

ISSN 1223-9683

博 物 館 紀 要

23

2008. 11.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목 차

❖ 기조강연

朝鮮時代의 佛教彫刻	정영호	5
------------------	-----------	---

❖ 논 문

조선전기 불교조각	성춘경	23
-----------------	-----------	----

조선 후기의 불상	최인선	53
-----------------	-----------	----

彫刻僧 色難의 활동과 불상양식	최선일	81
------------------------	-----------	----

총 평	홍윤식	111
-----------	-----------	-----

❖ 회 보

❖ 구입 및 기증 받은 도서 목록

朝鮮時代の 佛教彫刻

鄭 永 鎬*

I. 時代概觀(序言)

II. 前期의 佛像

III. 後期の 佛像

IV. 石佛의 造成

V. 結 語

I. 時 代 概 觀 (序 言)

朝鮮國을 창업한 太祖 李成桂(1335~1408)는 새로운 王朝를 이룩하면서 都邑을 開京(開城)으로부터 漢陽(서울)으로 옮겼다. 이것은 새 王朝의 건설과 함께 舊勢力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한 방편이기도 하다. 前代인 高麗末期에 있어서 불교 그 자체의 쇠퇴와 불교로 인한 정치, 사회, 종교 등 모든 면에 있어서의 부패는 새로운 지배 계급에 의하여 숙청의 표적이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教化理念으로서 유교가 숭상됨에 따라 유교는, 신라

* 단국대 석좌교수 · 석주선기념박물관장

와 고려를 통하여 1000여 년간이나 國敎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전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불교와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중대한 변화는 곧 당시의 조형미술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니 자연이 불교적인 조형미술의 쇠퇴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불교미술은 그 초기에는 前代의 여세와 太祖, 世祖 등의 귀의 혹은 보호에 의하여 약간의 造形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즉 조선은 국초부터 抑佛崇儒의 정책이었음을 창엽 당시 太祖 李成桂의 國是에서 알 수 있다. 더욱이 太宗(1401~1418)은 불교에 가혹한 탄압을 가해 전국에 242개소의 사찰만을 남겨두고 그 밖의 사찰은 모두 폐사하였으며 동시에 이들 寺院에 소속되어 있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였다. 이후 成宗(1470~1494)때에 이르러서는 더욱 강력한 억불정책을 써서 太祖가 실시하였던 度牒制까지 전부 폐지하여 出家入山을 일체 금하였고 中宗(1506~1544)때 僧科를 폐지함으로써 불교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끊어 놓았다. 이것은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정도로 불교계의 커다란 충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와 탄압 중에서도 世宗(1419~1449)과 世祖代(1455~1468)에는 불교가 상당한 활기를 띄어 사찰이 다시 일어나고 승려도 많이 늘어났었는바 이것은 두 임금의 개인적인 신앙으로서 世宗은 宮內에 內佛堂을 두었고 世祖는 圓覺寺를 지었으며 한편으로 刊經都監을 설치하여 여러 가지 불경의 諺解를 간행하였던 것에 의한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전·후 관계에서 太祖가 비록 국가적으로 排佛정책을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가 潛邸時 無學大師와의 관계를 간과할 수 없다. 특히 明宗(1546~1567)때에 이르러는 文定王后가 섭정을 하면서 名僧 普雨(1515~1565)를 중용하여 불교계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당시 奉恩寺를 禪宗의 本山으로 삼고 奉先寺는 敎宗의 本山으로 삼아서 禪·敎 兩宗을 두었으며 아울러 明宗7년(1552)에 僧科를 부활시켰던 것이니 이러한 모든 일련의 관계와 여러 사실을 잇어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불교미술은 이렇듯 國初이래 諸王의 정책과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前代인 고려나 신라시대와 같은 불교국과 달라서 역시 역대 제왕의 好佛策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太祖때 釋王寺를 창건한 일과 世祖가 원각사를 세우고 明宗때에 이르러는 봉은사와 봉선사를 크게 중창하였던 사실 등

은 이러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佛像이 조성되었으니 先代와 같은 巨作은 있을 수 없었으며 다만 小形의 金銅佛과 木佛, 土佛 등이 왕실의 보호아래 조성 봉안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金銅佛, 木佛, 土佛 혹은 乾漆佛의 불상이 당시에 조성되었음은 국초에 있어 前代의 여세에 연유된 것이라 하겠는데 고려시대에는 후기에 이르러 조성된 금동불과 목불 등의 作例가 상당수 보이고 있다.

Ⅱ. 前期의 佛像

조선시대의 불교미술은 초기에는 前代의 餘勢와 太祖, 世祖 등의 불교 보호 혹은 귀의에 의하여 몇 가지 불만한 미술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제14대 宣祖代에 日本의 침입으로 일어난 壬辰倭亂(壬25년, 1592)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나 文化的으로 前期・後期の 兩時期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러한 時代區分은 美術史上에도 적용되는 것인바 조선시대 전기인 壬亂 이전에는 고려시대의 여운을 엿볼 수 있는 시기로서 모든 조형물에 고려적인 조성양식과 수법을 다소나마 간직한 조형미술이 출현할 수 있었던 여건을 갖추었던 때로 오늘날 실제로 그 유례를 상당수 남기고 있는 것이다. 壬亂 이후는 그 후기가 될 것이며 이때는 前代인 고려시대의 여세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도리어 전란 때문에 오랜 전통이 대부분 단절되고 설혹 다소의 전통이 이어졌다 하더라도 어느 일부분에 변형을 일으키고 있으며 따라서 조형미술이 점차 소멸되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그 조성양식을 기존유품에서 본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비록 그대로의 양식과 수법을 따랐다 하더라도 조성상 기교의 감퇴와 조형을 위한 정신적인 내용의 결핍은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前期에 있어서 金銅佛의 경우 몇 곳에 奉安佛像이 알려져 있다. 경기도 楊洲郡

瓦阜面 松村里 山중턱 위의 水鍾寺에서 1970年 5月 23일에 8角 5層石塔을 옮겨 세우기 위하여 해체하였을 때 2層屋蓋石 上面의 圓孔內에 12軀의 金銅佛・菩薩像이 安置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때 圓孔內 側面에 「弘治六年癸丑六月初七日」에 造成奉安한다는 墨記가 있어 이 金銅佛・菩薩像들이 제9대 成宗 24年(1493) 造成임을 알 수 있다. 如來坐像, 觀音菩薩坐像, 半跏思惟像, 安坐像, 地藏菩薩坐像, 羅漢像 등인데 坐高는 9cm~11.7cm의 小形들이다. 대체적으로 相好는 肥滿한 편이고 法衣는 두꺼우며 胴體가 厚肉하다. 그러나 各部의 表現들은 미숙함이 없다. 高麗 후기의 樣式과 手法을 엿 볼 수 있다(사진 1~8 참조).



〈사진 1〉 水鍾寺石塔內發見 金銅如來坐像



〈사진 2〉 水鍾寺石塔內發見 金銅菩薩坐像들



〈사진 3〉 水鍾寺石塔內發見 金銅菩薩坐像



〈사진 4〉 水鍾寺石塔內發見 金銅菩薩半跏思惟像



〈사진 5〉 水鍾寺石塔內發見 金銅地藏菩薩坐像



〈사진 6〉 水鍾寺石塔內發見 金銅菩薩坐像



〈사진 7〉 水鍾寺石塔內發見 金銅羅漢坐像



〈사진 8〉 水鍾寺石塔內發見 金銅羅漢坐像

경상북도 聞慶郡 山北面 田頭里 大乘寺에 金銅觀音菩薩坐像이 奉安되어 있다. 坐像高 90cm로 中型이라 하겠는데 相好가 圓滿하고 寶冠이 華麗하며 胴體와 兩膝部에 가득한 瓔珞도 장엄하다 改金佛事時에 「正德十一年丙子四月日改金」이란 願文墨記가 腹藏에서 발견 조사되어 제11대 中宗 11年(1516) 이전에 造成하였음을 알 수 있다(사진 9 참조). 胴體全面의 華奢한 瓔珞장식, 圓筒形의 寶冠 등은 麗末造成의 菩薩像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경상북도 尙州市 智川里 山중턱의 甲長寺 金銅觀音菩薩坐像에서도 장식적인 寶冠과 胴體全面의 華麗한 瓔珞들을 볼 수 있는데 이 坐像에서는 「康熙二十八年己巳八月」의 重修記가 腹藏에서 발견 조사되어 제19대 肅宗 15年(1689) 以前의 양식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사진 10 참조).

한편 경상북도 盈德郡 蒼水面 葛川洞의 莊陸寺 菩薩坐像은 紙造金漆佛로 가벼운 무게인데 「洪武二十八年」의 墨記 發願文이 腹藏에서 발견되어 太祖 4年(1395)에 造成하였음

을 알 수 있다. 相好가 약간 肥滿한 편으로 全身滿鈕의 瓔珞 또한 麗末造成的 菩薩像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 坐像과 같은 紙佛은 그리 흔하지 않아 注目된다(사진 11 참조).

경상북도 月城郡 陽北面 虎岩里 祇林寺의 乾漆菩薩坐像은 臺座에 「弘治十四年 辛酉正月始至四月初八日」이란 墨記가 있어 제10대 燕山君 7년(1501)에 造成하였음을 알 수 있다. 稀貴한 乾漆佛로 坐像高 91cm의 中型이다. 半跏坐의 形으로 寶冠이 華奢하고 相好도 圓滿하다. 胴體의 瓔珞이 장식적이나 양쪽 어깨에 걸친 天衣는 다소 무겁게 보인다. 麗末의 특징적인 면을 잘 보이는 朝鮮전기의 대표적인 半跏像이라 하겠다(사진 12 참조).

木佛로는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中大洞 八公山 把溪寺의 木造觀音菩薩坐像을 들 수 있다. 腹藏發願文에 「正統十二年佛像重修」의 墨記가 있어 제4대 世宗 29年(1447)이 造成의 下限年代일 것이다. 坐像高 108.1cm의 中型으로 머리에는 금속제의 寶冠을 쓰고 있다. 相好는 원만하여 胴體의 瓔珞들도 華麗하고 衣文도 두텁지 않아 朝鮮前期의 특징을 잘 보이고 있다(사진 13 참조).



〈사진 9〉大乘寺 金銅觀音菩薩坐像



〈사진 10〉尙州 甲長寺 金銅觀音菩薩坐像



〈사진 11〉 盈德 莊陸寺 乾漆菩薩坐像



〈사진 12〉 祇林寺 乾漆菩薩坐像



〈사진 13〉 把溪寺 木造觀音菩薩坐像

Ⅲ. 後期の 佛像

조선 후기에 이르러는 造成材料의 求得문제가 크게 어려웠으므로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木材 혹은 土材로 조성한 木佛과 塑造佛이 流行하였다.

경상북도 尙州市 智川里 龍興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은 龍興寺 重修上樑文에 의하여 제16대 仁祖 25年(1647)의 造成임을 알 수 있다. 螺髮의 머리위에 肉髻가 낮게 표시되었다. 相好는 원만하나 胴體가 肥大한 편이고 法衣는 두터워졌다. 역시 후기의 둔중한 작풍이 엿보인다(사진 14 참조).

경상북도 善山郡 邑內 路上洞 圓覺寺 木造菩薩坐像은 腹藏墨記에 의하여 제16대 仁祖 27年(1649)의 조성임을 알 수 있다. 寶冠과 목걸이璽珞이 장식되었으나 華奢함이 소략해졌다. 그리고 法衣도 두터워지고 양쪽 무릎도 둔중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사진 15 참조).

충청북도 沃川郡 沃川邑의 龍巖寺 木造如來坐像은 腹藏墨記에 의하여 제17대 孝宗 2年(1651)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고 法衣도 두터워보인다.各部에 많이 생략된 느낌이 있다(사진 16 참조).

경상북도 尙州市 內西面 北長里 北長寺의 木造阿彌陀三尊坐像은 北長寺 事蹟記에 의하여 제19대 肅宗 2年(1676)의 조성임을 알 수 있다. 역시 法衣가 두텁고 各部가 생략되어 있는 점을 볼 수 있다(사진 17 참조).

경상북도 善山郡 海平面의 太祖山에 桃李寺가 자리하고 있다. 이 寺刹의 木造阿彌陀如來坐像은 이곳의 기록에 의하여 1600代에 造成하였음을 알 수 있다. 胴體가 肥大해지고 法衣도 두텁다. 무릎이 둔중하고 各部에도 생략된 면이 보인다(사진 18 참조).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몇 곳에 木刻幀畫를 남기고 있어 注目된다. 경상북도 尙州市의 南長寺 觀音庵 木刻幀畫(제19대 肅宗 20年, 1694), 전라북도 南原市의 實相寺 藥水庵 木刻幀畫(제22대 正祖 6년, 1782), 경상북도 尙州市의 南長寺 木刻幀畫(18~19세기), 경상북도 聞慶郡의 大乘寺 木刻幀畫(19세기) 등이 있다. 이들 木刻幀畫에서는 역시 후기의 木佛에서 볼 수 있는 彫刻技法을 잘 나타내고 있다(사진 19~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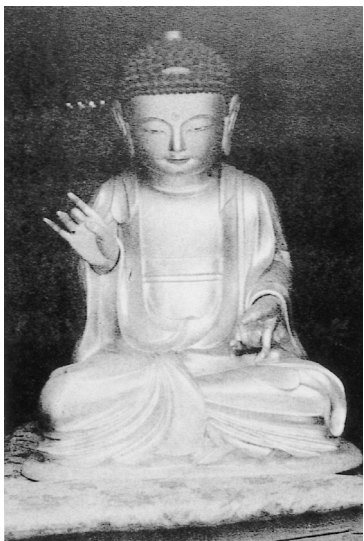
후기의 塑像으로 경상북도 尙州市의 南長寺 觀音庵 塑造觀音菩薩坐像(제18대 顯宗 9年(1668 추정), 충청남도 扶餘郡의 無量寺 塑造三尊佛像(17세기 전기추정) 등이 전한다. 역시 各部에 있어서 생략된 부분을 볼 수 있다(사진 23·24 참조).



〈사진 14〉 尙州 龍興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사진 15〉 善山 圓覺寺 木造菩薩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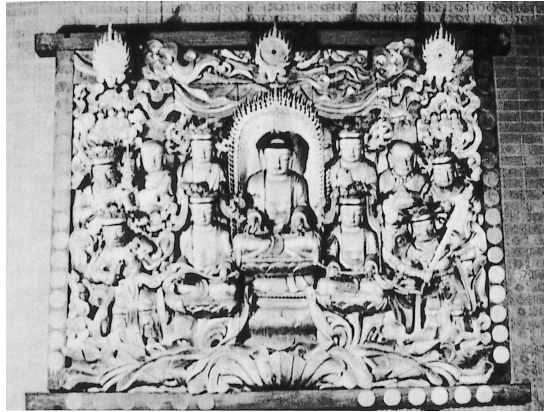
〈사진 16〉 沃川 龍巖寺 木造如來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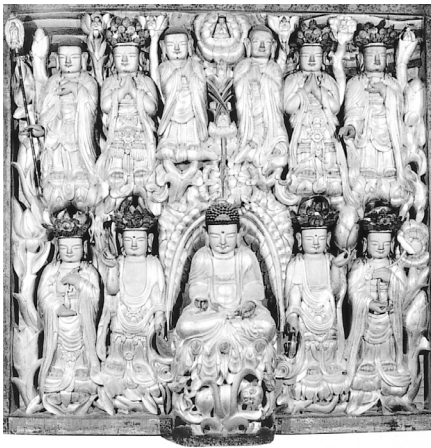
〈사진 17〉 北長寺 木造阿彌陀三尊坐像의 脇侍菩薩坐像



〈사진 18〉桃李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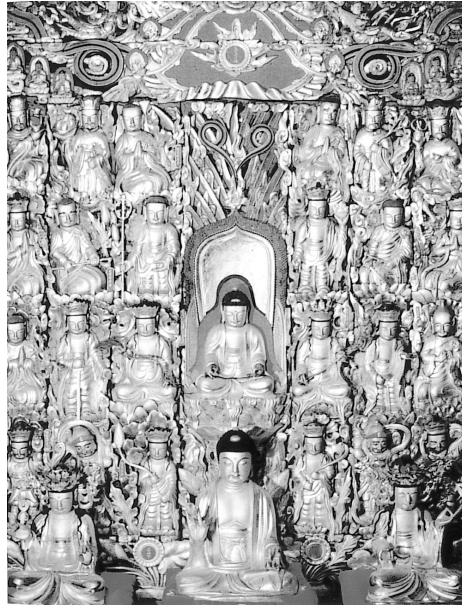
〈사진 19〉尙州 南長寺 觀音庵 木刻幀畫



〈사진 20〉實相寺 藥水庵 木刻幀畫



〈사진 21〉南長寺 木刻幀畫



〈사진 22〉大乘寺 木刻幀畫



〈사진 23〉尙州 南長寺 觀音庵 塑造觀音菩薩坐像 〈사진 24〉無量寺 塑造三尊佛像의 本尊如來坐像

IV. 石佛의 造成

그러나 石佛의 경우는 이들과 다르다. 고려 후기인 13세기 중반부터 말기에 이르는 사이에 조성된 석불은 그 유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곧 당시의 부진하였던 석불 조성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소형의 금동불이나 목불 등은 조성하는데 편리하여 많은 노력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나 석불의 경우는 石材의 선택부터 治石과 조각 등 工匠의 동원과 이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이 간단하지 않다. 그러므로 고려 후기에 이르러 몽고의 내정간섭에 따른 군비 부담과 가혹한 가렴주구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궁핍, 사회정세의 불안 등이 석불조각을 멈추게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듯 석불조각이 위축된 사회를 이은 것이 조선시대라고 할 때 강력한 불교 보호정책을 취하지 않고는 諸般 불교미술이 본 궤도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웠을 텐데 오히려 억불주의로 일관하였으니 불교미술은 더욱 퇴보하였고 따라서 석불의 조성은 더 한층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각 지방에서 조선시대의 석불이라고 말하는 石像들은 모두 一名「彌勒佛」이라고 하여 石柱形을 이루고 있는 塊石들로서 佛像의 相好와 胴體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들이 조선시대의 作例라 하여도 과연 그 조성시기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없다. 간혹 顔面에 눈, 코, 입, 귀를 갖추고 있다 하여도 불상의 相好각부와 같지 않으므로 오히려 「石造장승」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그리하여 조성연대가 분명한 石佛만을 택하여 고찰하지 않으면 의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현재 圓刻 石佛로서 연대가 뚜렷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아 조선시대 석불연구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오늘의 실정이다.

石佛에서 造成年代가 확실한 例를 들어보면 實相寺 瑞眞庵 石造羅漢坐像과 淸州 龍亭洞에 順治九年銘 佛頭가 있다. 瑞眞庵 石造羅漢坐像은 밑면에 「正德十一年丙子化主敬熙」라는 명문이 周緣에 한 줄로 둘러져 있는데 正德十一年이 제11대 中宗11年(1516)에 해당하므로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석상임을 알 수 있다. 이곳 瑞眞庵에는 이 在銘 羅漢像과 함께 5軀의 석조나한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들은 각부의 양식과 조성수법으로 보

아 在銘 羅漢像과 동시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되어 조성연대를 모두 中宗11년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 나한상들의 각부를 살펴보는 것이 조선 前期라 일컫는 임진왜란 이전의 석불 양식의 고찰이 될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 5軀의 나한상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相好는 약간 비대한 편이나 양쪽 귀와 눈, 코, 입 등은 정제되었다. 通肩衣文은 널찍하게 표현되었는데 蓮華座를 갖추고 있는 坐像이 있어서 주목된다. 움츠린 양쪽 어깨와 圖式的인 衣文, 형식화된 手印은 역시 당시의 위축된 불교미술의 一面을 엿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사진 25 참조).

淸州 龍亭洞의 順治九年銘 佛頭는 동체의 표현이 없고 4각형의 石柱 上端部에 頭像만을 조각한 것인데 그 밑으로 順治九年의 陰刻 造成緣記가 있으므로 이 佛頭가 제17대 孝宗 3年(1652)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頭像은 線彫로 머리를 표시한 素髮에 髮髻形이 있다. 이마에 白豪가 새겨져 있으므로 佛頭라고는 하나 一見하여 오히려 장승의 頭像 같기도 한 형태인 것이다. 이 두상이 조성된 孝宗3年(1652)은 조선후기라 칭하는 임진왜란 이후가 되는바 이 시대에 이르러서의 불상 조성은 前期에 비해 훨씬 퇴화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사진 26・2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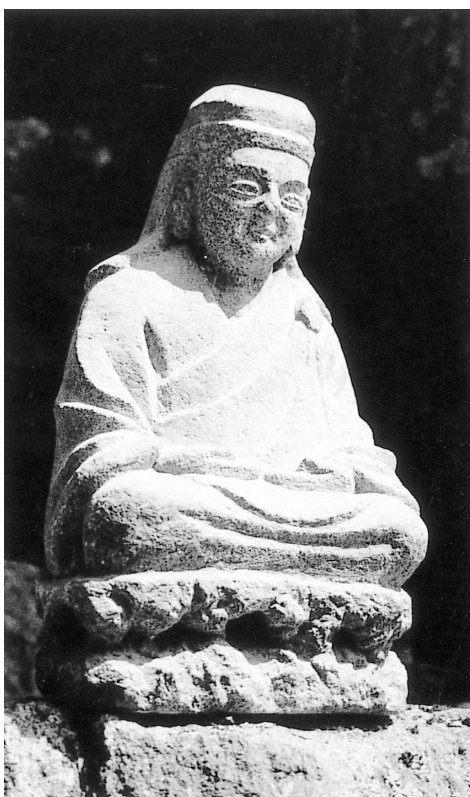
이후에는 더욱 석불 조성의 實例를 볼 수 없는데 제23대 純祖17年(1817)에 전라남도 海南郡 大興寺 千佛殿의 石佛들을 조성했다는 기록에 의하여 이곳의 1,000점에 달하는 불상의 조성연대를 알 수 있다. 즉 「日本漂海錄」에 의하여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다. 純祖 11年 2월에 海南 大興寺에 불이 일어나 千佛殿을 비롯하여 사찰이 모두 타버림에, 이때 타서 없어진 전각들을 차례로 중건하고 王 17年 가을에 천불전을 재건하여 3개월 동안 큰 佛事를 행하면서 千佛을 조성케 했다는 것이다. 당시 불사의 조성장소는 慶州인데 祇林寺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佛石山(佛岩山)의 玉石을 쪼아 千佛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作例는 다른 사찰의 事蹟記에 의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인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밝혀진 바가 별로 없다.

磨崖佛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冠岳區 奉天7洞의 冠岳山 磨崖菩薩坐像 옆 岩壁에 銘文이 있어 제16대 仁祖 8年(1630)에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사진 28 참조). 그리고 경기도 安養市 石水洞의 三幕寺 磨崖三尊佛像에도 銘文이 있어 제21대 英祖 39年(1763)에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역시 胴體가 肥大하고 各部가 形式化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들 磨崖佛像은 造成年代가 확실하여 조선시대 佛像彫刻研究에 귀중한 資料가 될 것이다(사진 29 참조).

이상과 같이 대략 朝鮮時代의 石佛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석불의 例가 거의 없는 편이므로 前・後期 石佛의 양식과 각 부 수법을 고찰하기에 미흡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깊은 현지조사와 기록의 검토로서 새로운 資料가 수집 보장되면 미흡한 내용이 보완되리라고 믿는다.



〈사진 25〉 實相寺 瑞眞庵 石造羅漢坐像



〈사진 26〉 淸州 龍亭洞 順治九年銘石像



〈사진 27〉 淸州 龍亭洞
順治九年銘石像佛頭(上半部)



〈사진 28〉 冠岳山 崇禎三年銘
磨崖菩薩坐像



〈사진 29〉 三幕寺 磨崖三尊佛像

V. 結 語

宗教美術은 宗教의 盛衰에 따라서, 그리고 그 時代의 政治, 社會相 등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의 척도가 달라지곤 한다. 예컨대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佛敎가 크게 융성하였으므로 이에 따르는 佛敎美術이 각 분야에 걸쳐 盛大하게 발달한 현상을 오늘날 남아 있는 遺蹟・遺物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는 國初부터 排佛崇儒의 정책이었으니 이렇듯 抑佛下에서의 佛敎美術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는 前代인 고려시대 佛敎美術의 영향으로 佛像 조각이 이어지듯 그런대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중반으로 내려오면서 前代의 여운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壬辰倭亂을 겪으면서 불교미술 모든 분야에 걸쳐 退步의 상황을 보였던 것과 같이 佛像 조각 또한 退化된 모습을 보게 된다. 실제 壬亂후기는 전기와는 전혀 달라진 造形이며 造成재료에 있어서도 求得이 어려운 金屬과 石材類의 佛像은 거의 없는 편이고 얻기 쉬운 土・木造로 土佛과 木佛들이 많이 流行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 바다.

조선전기 불교조각

-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

성 춘 경*

- I. 머리말
- II. 불상의 위치와 현상
- III.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조성연대
- IV. 맺는말

I. 머리말

조선왕조 5백년은 그동안 통치이념으로 지켜왔던 고려의 불교중심 사회를 타파하고 유교중심 사회로 국시를 바꿨으며 또한 고려왕실을 유지해 왔던 귀족을 대신하여 사대 부라는 새로운 계급이 정권을 장악하면서¹⁾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해 갔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한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왕조의 교체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정치, 경

* 전라남도 문화재 위원

1) 崔完基, 『테마로 읽는 朝鮮의 歷史』, 느티나무, 2000, p.44.

제, 사회, 문화 등 그 시대를 이끌었던 총체적 국가체제의 전환이 뒤따른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이러한 국가 성립의 기반이 되는 억불숭유라는 기치 아래에서도 왕실의 불운이나 또는 그들의 개인적인 길흉이 닥쳤을 때는 그 해결책을 불교에 의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세조가 아닌가 한다.

세조는 세자로 책봉된 덕종(의경세자)이 젊은 나이인 20세(1457년)에 요절하자 그간의 왕권도전으로 인한 수많은 정적의 제거, 조카 단종의 폐위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홍불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각종 경전의 인출사업은 물론 법화경, 지장경, 범망경, 기신론 등을 필사케 하고 친히 발문을 지어 그 경문 뒤에 붙이게 하였다.²⁾ 이 외에도 1464년(세조 10)에는 고려때의 고찰이었던 홍복사 터에 원각사를 건립하는 대불사를 단행하였으며 이어서 상원사의 문수동자상(1466년)과 원각사의 10층석탑(1467년)을 건립하였다.

세조 외에도 조선 건국 초기인 태조, 태종, 세종대에서도 억불숭유는 표면적인 국책이었으며 내용적으로는 홍불사례가 비일비재 하였다. 그러나 세조 다음대로 이어지는 성종과 연산군, 중종대(1469~1544)에 걸친 약 75년간은 척불과 폐불이³⁾ 연속되면서 불교가 폐쇄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명종대(1546~1567)에 다시 불교 중흥의 꽃이 피었으며 그 명맥은 선조대까지 이어지면서 조선 전기의⁴⁾ 분수령을 맞이한다.

조선 전기의 불교조각은 예상보다는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연구성과 또한 적지 않다.⁵⁾ 그런데 이들 대부분의 불상은 15세기에 집중되어 있고 16세기에 들어서는 그 수가

2) 金得槐, 『韓國宗教史』, 海文社, 1963, p.220.

3) 金煥泰, 『韓國佛教史概說』, 經書院, 1986, pp.181~183.

4) 불교미술사에 있어서 조선전기를 14세기말에서 15세기말경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李銀洙, 「朝鮮初期金銅佛像에 나타나는 明代 라마불상양식의 영향」, 『講座美術史』 15호, 2000, p.48), 또 1392~1625년까지를 조선전반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文明大, 「朝鮮前半期彫刻의 對中國(明)과의 交渉研究」, 예경, 2006, p.132). 그러나 필자는 14세기말에서 16세기말, 즉 조선 건국 초부터 임진왜란 발발시(1392~1592)까지를 조선전기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견해는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제기된바 있다(유마리, 「조선시대조각」, 『韓國美術史』, 藝術院, 1984, p.454).

5) 지금까지의 조선전기에 대한 연구 논문은 다음과 같다.

· 文明大, 「朝鮮前半期彫刻樣式의 研究」, 『梨化史學』 13 · 14합집, 1983, pp.49~61.

· 문명대, 「한국의 중 · 근대(고려 · 조선)조각과 미의식」, 『한국미술의 미의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p.99~127.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불화는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에 이르는 동안 다수가 제작되었는데⁶⁾ 왜 조각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수 현상이 나타난 것인지는 별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겠다.

조선시대 불상의 양식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1970년대 중반, 선학의 탁견이 제시된 바 있다.⁷⁾ 이를 대략 간추려 보면, 불상에 대한 인체파악의 부실과 표현기술의 미숙으로 인해 붓다의 존엄성과 정신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선전기 불상은 고려의 양식을 계승하였으며 때로는 신라불상의 양식을 모방하기도 하였으나 표현 능력에서만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집약된다. 여기에 중국 명에서 들어온 티벳계 불상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양식이 공존하고 있다는⁸⁾ 견해가 덧붙여진 것은 최근의 경향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전라도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불상양식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연 고려양식을 계승한 예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울러서 다른 지역의 불상들과도 그 연관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 文明大, 「高麗・朝鮮時代の 彫刻」, 『韓國美術史의 現況』, 도서출판 예경, 1992, pp.207~226.
 - 文明大, 「朝鮮前半期彫刻의 對中國(明)과의 交渉研究」, 『韓國前半期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6, pp.131~151.
 - 崔聖銀, 「朝鮮初期佛教彫刻의 對外交渉」, 『講座美術史』 19호, 2002, pp.41~58.
 - 유마리, 「조선시대조각」, 『韓國美術史』, 예술원, 1984, pp.448~459.
 - 李銀朱, 「朝鮮初期金銅佛像에 나타나는 明代라마불상의 영향」, 『講座美術史』 15호, 2000, pp.47~76.
 - 崔素林, 「黑石寺 木造阿彌陀佛坐像研究」, 『講座美術史』 15호, 2000, pp.77~100.
 - 文賢順, 「明初期티베트式佛像의 특징과 영향」, 『미술사연구』 13호, 1999, pp.119~152.
 - 文賢順, 「朝鮮前期의 새로운 佛教圖像」, 『미술사연구』 15호, 2001, pp.195~223.
 - 허형욱, 「전라남도順天市梅谷洞석탑발견 成化四年銘 청동불감과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美術資料』 70~71호, 국립중앙박물관, 2004, pp.147~164.
 - 成春慶, 「達聖寺木造地藏菩薩 및 阿彌陀三尊佛」, 『文化史學』 14호, 한국문화사학회, 2000.
 - 成春慶, 「羅州佛會寺毘盧舍那三尊佛考」, 『全南文化財』 12집, 전라남도, 2005, pp.111~134.
 - 6) 洪潤植, 『韓國佛教史의 研究』, 敎文社, 1988, pp.249~276.
 - 金廷禧, 「朝鮮前期의 地藏菩薩圖」, 『講座美術史』 4호, 1992, pp.84~88.
 - 文明大, 「朝鮮明宗代地藏十王圖의 盛行과 嘉靖34年(1555)지장시왕도研究」, 『講座美術史』 7호, 1995, p.14.
 - 7) 秦弘燮, 『韓國의 佛像』, 一志社, 1980(3판), pp.324~325.
 - 8) 앞 주, 文明大의 글, 「朝鮮前半期彫刻의 對中國(明)과의 交渉研究」, p.131.

Ⅱ. 불상의 위치와 현상

1. 불회사 건칠비로자나삼존불상(도 1, 도 1-1, 도 1-2, 도 1-3)

이 삼존불상은 나주시 다도면에 위치한 불회사의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데 본존불상은 건칠불이며 좌상이고 양협시불은 소조불이며 입상이다.

먼저 본존불의 얼굴을 보면 예리하게 호형을 그린 눈썹과 약간 귀 뒤쪽으로 치켜 올라간듯 한 눈꼬리, 날카로운 콧날과 그 밑으로 이어진 인중, 알맞게 꼭 다문 반달모양의 입술이 돋보인다. 머리는 촘촘한 나발이 두상을 둘러싸고 있는데, 육계의 정상은 뽕족하지 않고 두루뭉실하며 그 전면에 계주가 반달처럼 나와 있다. 이마 중앙에는 다른 예에서처럼 수정을 별도로 삽입하지 않고 이마 자체에서 돌출한 백호가 있으며 귀는 귓바퀴와 귓불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목에는 삼도가 선명하며 법의는 통견이다. 양편 어깨를 덮은 법의자락은 좌우 대칭으로 내려오다 지권인을 결한 두 팔에서 한번 꺾인 다음 다시 돌아서 밑으로 정연하게 내려오고 있다. 좌측 팔꿈치에 나타난 Ω 형 의문은 넓게 퍼져 M자형으로 변형되었고 무릎 위까지 내리덮은 옷주름은 깊은 U자형을 하며 가슴 중앙을 장식하였다. 전면의 배꼽 부위에는 군의를 묶은 띠매듭이 선명하다.

무릎은 오른발이 왼발 위로 올라오는 길상좌를 취했으며 무릎을 덮은 의문은 사선과 곡선이 교차되면서 양무릎을 덮고 있는데 왼쪽 무릎 전면에는 이파리형의 옷주름이 밑으로 뻗치고 있다. 수인은 왼손의 주먹 위를 오른손이 감싸고 있는 지권인을 취했다. 불상 밑바닥은 얇은 목판을 붙여 놓았으나 한쪽 부분이 개방되었으며 불체 내부에는 빈공간인 채 아무런 복장물이 없다(총고 130cm, 두고 41cm, 안폭 21cm, 어깨폭 62cm, 무릎폭 102cm, 무릎고 21cm).

두 보살입상은 흰칠한 체구에 삼굴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높고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우측상(향좌)을 보면 화려한 보관과 귀 밑으로 이어진 머리띠가 양편을 돌아 머

리 뒷면까지 연결되고 있다(도 1-2). 천의는 통견인 Y자형을 하고 있으며 양 팔을 걸쳐 내려온 천의의 끝단은 무릎 밑까지 뻗치고 있다. 상호는 넓적한 방형으로 이마가 넓고 코는 짧으며 입술은 오므린 상태다. 양편 귀에는 8엽으로 장식된 화문의 귀고리가 부착되었고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었는데 그 밑으로 화려한 구슬장식이 연결되었다. 가슴 밑으로는 군의의 띠주름 2조선이 양편에 걸쳐 있으며 무릎 하단으로는 V자형의 천의가 선명하게 묘사되었다. 수인은 우측손이 약간 외반되게 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고 좌측손은 밑으로 내려 엄지와 중지를 맞잡고 있다. 목부분과 어깨 사이, 상체와 하체, 그리고 다소 우측으로 힘이 쏠린 듯한 두다리를 보면 불신 전체가 삼굴자세임을 알 수 있다.

좌측상 역시 화려한 보관, 두 어깨를 걸쳐 길게 내려온 U자형의 천의, 무릎 밑으로 예리하게 뻗치고 있는 V자형의 의문 등이 우측상과 같은 양식이다(도 1-3). 이들 두 보살 입상의 특이점은 측면에서 보면 뒷면의 허리가 활처럼 구부러진 상태이며 전면에서 보면 복부가 유난히 튀어나온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다른 예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이다(우협시불 총고 : 207cm, 좌협시불 총고 : 202cm).

2. 죽림사 건칠아미타불좌상(도 2, 2-1)

이 건칠아미타불좌상은 나주시 남평면 풍림리 산 1번지 소재의 죽림사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다. 높이 114cm의 규모인데 좌상으로서의 꽤 큰 편에 속한다. 머리는 나발이며 육계가 사발을 얹어놓은 모습으로 넓고 약간 높은 편이다. 정상 계주없이 전면 중앙에는 수정의 계주가 돌출해 있다. 얼굴은 계란형으로 상하가 긴 편이며 넓은 이마 중앙에는 수정백호가 선명하다. 호형을 그린 눈썹과 가늘게 뜬 실눈, 곧바로 길게 뻗은 콧날이 인상적이며 입모양은 반달형을 하고 있다. 귀는 밑으로 길게 어깨 위까지 뻗었는데 귓바퀴의 사실적인 모습과는 달리 귓부리는 뭉뚱하게 처리하였다.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고 양쪽 어깨로 이어진 법의는 통견인데 배꼽 아래까지 연결된 U자형을 하였다. 네겹으로 겹쳐진 우측 어깨의 옷주름은 반달형을 하였으며 좌측 어깨의 삼각형으로 접힌 옷섶, 그리고 Ω형 의문이 미미하게 표현되었다. 무릎은 넓은 편으로

중앙이 약간 움푹 들어간 상태이며 길상좌를 취한 우측 발목에 걸쳐있는 군의자락은 평행선과 곡선이 교차하면서 밑바닥까지 내려오고 있다. 좌측 무릎 위로는 상하가 꼬부라진 이파리형 의문이 장식되었으며 배꼽 부위에는 내의를 묶은 띠매듭이 선명하다. 수인은 중품하생인을 결하고 있다.

3. 실상사 건칠아미타불좌상(도 3, 3-1, 3-2)

이 건칠아미타불좌상은 실상사 법당에서 좀 떨어진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다. 머리는 촘촘한 나발이며 육계는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진 상박하후형이다. 전면 중앙에 빨간 수정의 계주가 있고 얼굴은 상하가 긴 계란형이다. 이마는 넓고 중앙에 작은 백호가 보이며 그 밑으로 예리한 눈썹이 전개되는데 눈매가 선정에 젖은 실눈이 되어 눈두덩이 넓게 보인다. 귀는 상단의 귓바퀴와 하단의 귓볼이 사실적인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목에는 삼도가 역력하며 법의는 우견편단인데 옷주름이 전면과 측면을 S자형으로 돌아 다시 우측 팔에 걸치고 있다. 좌측 어깨 전면에는 Ω형의 의문이 뚜렷하고 가슴 아래에는 하의를 묶은 띠줄과 띠매듭이 장식되었다. 무릎은 좌우가 수평인 길상좌를 취했고 의문은 층단 옷주름이 아닌 큰 주름과 작은 주름이⁹⁾ 평행을 이루면서 내려오다 끝단에서 Ω형으로 마무리 된 형태이다. 수인은 우측손을 쳐들고 좌측손은 밑으로 내린 중품하생인을 결하고 있다(총고 125cm, 두고 42cm, 안고 23.5cm, 안폭 20cm, 견폭 50cm, 무릎폭 83.5cm, 무릎고 21cm).

9) 이 衣文은 이른바 鰐波式이라하여 원래는 일본사람이 사용한 말로서 日本 天平시대에 유행하였다고 한다(金理那,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89, p.206~238; 姜友邦,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0, p.242). 이 衣文은 法衣의 옷주름선의 양감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높고 둥글게 융기한 옷주름선 밑에 또 한겹의 낮은 波狀의 옷주름이 이어진 것이 특징이다. 일찍이 인도의 간다라, 중국, 일본 등의 불상에서 간헐적으로 유행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안압지출토금동관불, 석굴암본존불, 실상사철불, 전 보원사지철불 등에서 나타난다. 실상사불 및 무위사삼존불 중 본존불의 예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큰주름과 작은 주름이 자연스럽게 겹쳐진 의문의 잔재가 간파된다. 이는 실상사철불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 번파식 의문에 대한 조선 전기까지의 잔재 有無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4. 무위사 목조삼존불좌상(도 4, 도 4-1, 도 4-2)

이 삼존불상은 무위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다. 본존불의 머리는 나발이긴 하나 머리 부위와 육계가 구분되지 않고 반원형을 하였다. 두정에는 정상계주, 전면에는 반달형의 계주가 있다. 백호가 아주 작으며 눈은 실눈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었으며 법의는 통견인데 깊은 U자형이고 그 위로는 하의를 묶은 띠줄과 띠매듭이 장식되었으나 희미하게 간략화 되었다. 우측 어깨에는 법의의 반단의 문이 겹쳐있고 좌측 어깨에는 상하로 이어진 옷주름을 마치 고리처럼 꼬이게 하였다. 무릎은 수평이며 우측발이 위로 올라오는 길상좌를 취했는데 무릎하단은 큰 주름과 작은 주름이 겹친 파상문이고 무릎 상단은 몇가닥의 군의주름을 겹치게 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수인은 우측손은 올리고 좌측손은 무릎 위에 내려놓은 중품하생인이다(총고 122cm, 두고 34cm, 안고 28cm, 안폭 24cm, 어깨폭 48cm, 무릎폭 85cm).

관음보살상(도 4-2)은 화려한 보관과 방형의 얼굴, 본존불과 유사한 천의를 걸치고 있다. 좌측 어깨 밑에는 Ω 형 의문이 보이며 또 가슴 안쪽의 옷섶을 약간 외반되게 구부린 것이 이색적이다. 무릎은 좌측 다리를 내리는 반가좌 형식인데 좌측다리를 감싼 군의주름이 대좌 밑으로 드리워져 있고 우측 다리는 가부좌 형태를 취하였다. 수인은 선정인인데 버들가지가 꽂힌 보병을 들고 있다.

지장보살상(도 4-1)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고 머리다발이 어깨를 걸쳐 팔꿈치까지 내려오고 있다. 얼굴은 관음보살상 보다 약간 작게 보이며 가슴에는 관음보살상과 같이 영락을 걸치고 있다. 우측손은 긴 석장을 잡고 있으며 좌측다리는 가부좌를 결하고 우측 다리는 밑으로 내려 땅에 닿게 하였다. 지장보살상 역시 군의자락이 대좌 밑으로 내려온 상현좌 형식을 취했다. 이들 양 보살상은 대좌에 별도 주름을 붙여 상현좌 형식을 취한 것이 흥미롭다. 무위사목조삼존불좌상의 조성연대는 극락전 건립연대인 1430년(宣德 五年)경으로 추정된다.¹⁰⁾

10)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삼존불좌상의 조성연대는 후불벽화가 그려진 1476년(成化十二年)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현 극락전의 건립연대인 1430년(宣德五年) 전후로 본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한편 보림사 塔誌를 보면 1478년(成化十四年) “무위사주불을 조성하고 대회를 베풀어 안거에 들다”라

5. 순천 매곡동 석탑발견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도 5, 도 5-1, 도 5-2)

순천 매곡동 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은 2003년, 순천시 매곡동 북정리에 거주하는 최모씨가 본인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 원래부터 있었던 석탑을 옮기려다 청동불감과 함께 발견된 것이라 한다.¹¹⁾ 이때 금동아미타삼존불상의 몸체에서 여러 가지 복장물과 발원문이 발견되었는데, 이 발원문 중에 1468년(成化四年戊子四月日)이란 조성연대와 그 발원주체가 현 순천시 별량면 竹寺¹²⁾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문장의 흐름으로 보아 “300여 명의 대중이 탑이 넘어진 것을 보고 1478년 5월 17일에 중수했다(大衆三百餘員見塔傾五月十七日重修造)”라는 기록 뒤의 내용은 “그 사이(또는 이즈음)에 쌍봉사에서 대회를 베풀고 무위사 主佛을 조성했다(傾雙峰寺設大會...無爲寺造主佛...)”라고 본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한다. 즉 뒤에 나온 “傾”은 “그사이” 또는 “이즈음”의 뜻을 가진 한자(頃)를 잘못 쓴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1478년 5월 17일, 보림사의 탑이 넘어진 것을 보고 중수하였다. 이 무렵에 무위사 주불을 조성했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왜 보림사 탑지에 무위사 주불내용이 나온 것인지, 또 만일 위 연대를 인정한다면 그 主佛이 당시 어떤 전각의 주불인지를 알 수 없다. 『無爲寺事蹟』(1739)에 1555년 당시의 主殿건물을 보면 毘盧殿, 彌陀殿, 靈山殿, 文殊殿 등이 보이는데 이중 어떤 건물의 主佛인지를 알 수 없다. 또 현 극락전 삼존불을 지칭했다면 삼존불 또는 아미타, 관음, 지장(또는 세지)이라 명기했어야 되는데 왜 主佛이라고만 기록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어쨌든 위 연대를 인정한다면 현 극락전 건립(1430년) 이후 1478년까지 약 48년 동안 불상이 봉안되지 않은 것인지 의문스럽다. 『無爲寺事蹟』에는 天順年間(1457~1464)에 아미타, 관음, 세지(실제는 지장보살임) 삼존불을 봉안하고 벽화도 채색하였는데 세칭 吳道子가 그린 것이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기록 역시 지금까지 알려진 1476년의 벽화연대와는 맞지 않으며 또한 삼존불의 지장을 세지로 표기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 『康津無爲寺極樂殿修理報告書』, 文化財管理局, 1984, pp.49~52.
- 『迦智山寶林寺』, - 精密地表調査 -, 순천대학교박물관, 1995, pp.55~58.
- 최인선, 김희태, 양기수, 『보림사』, 장흥문화원, 2002, pp.114~116.
- 『無爲寺事蹟』, 1739년(乾隆四年己未).

11) 석탑에서 발견된 당시 금동불감과 함께 나왔으며 불상복장에서 “成化四年日(1468년)”이란 연대가 명기된 발원문이 나왔다. 필자의 글에서는 금동불감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였다(허형욱, 「전라남도 順天市梅谷洞석탑발견 成化四年銘(1468) 청동불감과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美術資料』 70~71호, 국립중앙박물관, 2004, p.147). 이 석탑재는 부재 불명의 넓은 판석 위에 옥개석 3개가 올려져 있으며 맨 윗층 옥개석 상면에는 직경 10.5cm, 깊이 7.5cm되는 원형 홈이 남아있다(총고 180cm). 현재 이 석탑재는 순천시 보존계획에 의해 2004년 4월, 순천시 매곡동 북정리 309-16번지 윤석영씨가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변으로 옮겨 보존되고 있다.

12) 순천시 별량면에는 동화사(보물 제831호 3층석탑이 있음)가 있을뿐 「竹寺」로 추정할 만한 곳은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 순천 매곡동 석탑발견 금동아미타불좌상(이하 매곡동 금동불좌상이라 약칭)은 훼손이 거의 없고 도금상태도 양호한 편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대좌는 전면과 측면의 일부에 결손이 있으며 색깔도 변색되었다. 머리는 나발이며 육계가 크고 높게 돌출하였는데 정상에 계주가 없다. 얼굴은 계란형이 아닌 방형이며 콧대 역시 짧고 뭉뚱하게 되었다. 목에 삼도가 보이며 법의는 통견인데 두꺼운 편이고 속내의를 묶은 띠매듭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무릎은 수평이며 길상좌를 취했고 의문은 간략하게 처리되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대좌 밑으로 세가닥의 옷주름이 중앙과 좌우로 흘러내린 상현좌를 한 것이다. 수인은 중품하생인을 결하고 있다. 대좌는 양·복련이 연접되고 있으며 상·하단 측면에는 연주문이 시문되었다.

좌측의 관음보살좌상(도 5-2)은 삼지형(三枝形)화문 장식의 보관을 쓰고 있으며 전면 중앙에는 간략화 된 화불이 묘사되었다. 얼굴은 방형에 가까우며 이마에 백호가 있고 양편 귀밑에는 이중 원권형의 귀고리가 달려 있다. 어깨 밑으로 머리다발이 길게 드리워져 있고 천의는 X자형이며 가슴 전면으로 구슬장식의 목걸이가 걸려있다. 무릎을 덮은 군의자락은 Ω형이 연접되고 있으며 대좌는 본존불의 양식과 동일하다.

우측의 지장보살좌상(도 5-1)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다. 천의는 통견이며 좌측 어깨에 천의를 묶은 원형고리가 부착되었다. 허리가 가늘고 길상좌를 취한 무릎, 군의자락이 Ω형으로 묘사된 점 등이 좌측 관음보살상과 동일 양식이다. 대좌 역시 검게 변색되긴 하였으나 양·복련이 중첩되었으며 연주문이 상·하 측면에 시문된 양식까지 좌측 관음보살상과 같다.

6.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도 6, 6-1)

이 지장보살좌상은 목포시 유달산(해발 229.3m)의 동남쪽 산기슭에 자리한 달성사 지

발견되지 않는다. 현재 금동삼존불 및 불감은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장전에 봉안되어 있다. 2000년 2월, 조사당시 불상의 몸에서 1565년(嘉靖四十四年 乙丑十月...)이란 조성연대가 명기된 복장발원문이 발견되어¹³⁾ 16세기 중반 지장보살의 양식을 연구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

머리는 둥그런 민머리이며 양눈썹 사이에는 아주 작은 백호가 돌출해 있다. 얼굴은 방형에 가까우며 가느다란 호형의 눈썹과 일자형의 실눈, 뭉뚝한 코와 입술 등은 다소 사실적인 표현을 하였다. 귀는 길게 내려와 어깨 위에 맞닿아 있고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었다. 천의는 전면에서 보면 통견이나 배면(도 6-1)에서는 우견편단 형식을 취했다. 깊은 U자형의 천의와 군의를 묶은 띠줄이 뚜렷하며 수인은 우측손을 엄지에 중지 약지를 맞대고 있고 좌측손 역시 엄지에 중지 약지를 맞대고 있다.

다리는 좌측 다리를 가부좌하고 우측 다리는 밑으로 내려뜨리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군의의 옷주름이 대좌 하단으로 내려오는 상현좌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종래의 반가상이 대부분 좌측 다리를 내리고 우측 다리를 가부좌 하는 형식인데 반해 이 지장보살상은 그 반대형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7.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도 7, 7-1)

이 목조보살좌상은 원래 완도읍 장좌리 상왕산(해발 644.1m) 동쪽 산기슭에 위치한 관음사에 봉안되었던 것인데 절이 폐사되면서 1970년대 중반,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인계되어 보관중이다.¹⁴⁾ 그런데 이 불상의 몸체에서 1569년(隆慶三年己巳仲夏日願文)이란

13) 2000년 2월경, 조사당시 선학 황수영선생과 정영호선생, 그리고 일본 남석환선생께서도 본 조사에 동참해주셨다(앞 주, 成春慶의 글, 「達聖寺木造地藏菩薩 및 阿彌陀三尊佛考」, pp.69~70).

14) 崔夢龍, 「莞島觀音寺木造如來坐像과 服藏遺物」, 『美術資料』 제20호, 국립중앙박물관, 1977, p.63; 관음사는 원래 완도읍 장좌리 상왕산 동쪽 계곡에 있던 절인데 박일선씨가 운영하던 개인 사찰이었다. 1970년대초 박씨가 사망하자 그 부인 김유심(현 73세)보살이 이 불상을 전남대학교박물관에 기증하였다고 한다. 그 뒤 김보살은 완도읍 장좌리 489-1번지로 이주하여 관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 목조보살좌상은 상왕산 기슭에 관음사를 처음 건립할 무렵 바로 이웃인 완도읍 죽청리에 소재한 모 사찰에서 남편 박일선씨가 인수한 것이다. 이때 들은 바에 의하면 일정기에 장흥 보림사에서 가져온 것이라 한다. 이 증언은 현 완도군청 장보고기념관 학예연구사 이주승씨가

조성연대가 적힌 발원문이 발견되었다.¹⁵⁾

현재 보관이 유실되어 자세한 현상을 알 수 없지만 정상에 머리묶음이 표출된 것으로 보아 원래는 보살상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얼굴은 양볼의 살집이 풍부한 원만상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목에는 삼도가 보이며 천의는 깊은 U자형을 하였으나 둔중하다. 우측 어깨에는 덧겹의 옷주름이 시문되었는데 옷깃의 끝단이 밖으로 접혀진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 좌측 어깨의 Ω형 의문이 보이지 않고 무릎은 좌측발은 가부좌 형태이고 우측발은 무릎을 세운 궤좌(跪坐)를 하고 있다.

III.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조성연대

고려후기에서부터 조선전기까지의 불상 중에 신체의 비례가 잘 조화되고 균형이 잡혀 있으며, 특히 그중에서도 얼굴이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한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형식이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고려후기의 장곡사 금동약사불좌상, 신암사 금동아미타불좌상,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좌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양식의 특징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추상적이거나 육감적이지 않고 전체 조각이 유기적으로 조화되며 생명감이 넘쳐흐르는 이른바 이상적인 사실성의 구현을 예로 들었다.¹⁶⁾ 이들 불상의 재료를 보면 금동, 건칠, 목조라는 것이 특징이며 그 분포상황을 보면 주로 경기, 충청, 전라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경상도 지역에도 몇 예가 산견되고 있다. 조선전기의 불상이 고려양식을 계승했다고 한 것은 바로 위에서 본 이들 불상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왜 고려후반부터 조선전기까지 7~8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던 조각양식의 복고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겠으나 아마도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

제보한 것이다.

15) 앞 주, 최몽룡의 글, pp.64~65.

16) 文明大, 「高麗後期端雅樣式(新古典的樣式)의 成立과 展開」, 『古文化』 22호, 1983, p.34.

회적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시대이건 모든 미술작품은 그 미술을 창조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또는 생존 양식이 낳은 인식방법을 반영한 것이라 한다.¹⁷⁾ 그러므로 고려후기에서 조선전기의 불상에 나타난 부드러움과 우아한 모습이 재현된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며 생존양식이며 인식방법의 표출이었음을 이들 불상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불회사 건칠아미타불좌상(도 1)¹⁸⁾을 보면 기본적인 모델링은 인근의 심향사 건칠아미타불좌상(도 11)과 비교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양식에서는 오히려 광주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1388년 이전)¹⁹⁾과 친연성이 있다. 자운사 불상(도 9)의 복장 발원문에 의하면 원래의 봉안처는 나주지역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지역적인 근접성의 이유때문인지 자운사상과 가장 유사한 점은 얼굴이다. 자운사상은 양손을 후대에 보수하여 좀 어색해 보이며 그간의 개금불사 때문인지 얼굴이 약간 부은 듯한 느낌이 있으나 이마 중앙에 표출된 백호, 얼굴 전체 모양이 상후하박형, 즉 역삼각형에 근접한 외모 등은 불회사 불상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물론 자운사불상의 양 어깨를 걸친 깊은 U자형의 법의, 왼쪽 무릎 표면에 묘사된 이파리형 의문은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도 8)과 그 맥이 닿고 있으며 가깝게는 남원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도 10)²⁰⁾과도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양식상의 유사성이나 친연성은 분명 불회사 불상이 이들 불상으로부터 받았을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 그런데 불회사 불상을 자세히 보면 몇군데의 신체부위의 기법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 점이 발견된다. 당당한 어깨와 수평의 건장한 다리, 명쾌한 이목구비 등은 앞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 쥐고 있는 지권인의 수인은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특징이다. 또 왼쪽 어깨에 표현된 Ω형의 의문은 사라지고 느슨해진 M자형으로 간략화 되었으며 좌측 무릎에 나타난 지금까지의 이파리형 옷깃은 퇴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면 불회사불상의 조성연

17) 르네 위그(金華榮 역), 『예술과 영혼』, 열화당, 1994, p.97.

18) 이 글에서 논의된 전라도 지역 7건의 불상은 필자가 편의상 임의로 선정한 것이며 이외에도 조선 전기에 해당되는 불상을 추적하면 몇 예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 이분희, 「光州紫雲寺木造阿彌陀佛坐像」, 『聖寶』 6호, 2005, pp.60~82.

20) 윤덕향 외 3인, 『호남의 불교문화와 불교유적』, 백산서당, 1998, p.349.

대는 불회사의 3창연대로 전해지는 1413년경으로 본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한다.²¹⁾

본존불을 협시하고 있는 양편의 보살입상은 매우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으며 게다가 삼굴자세, 군의를 덮고 내려온 V자형의 예리한 옷주름 등은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도 1-2, 1-3). 특히 이들 보살입상의 전면을 보면 복부가 약간 팽창한 모습인데 이는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예로서 멀리는 군위삼존불상의 양보처인 관음·세지보살입상에서 볼 수 있으며 가까이는 광주 증심사 석조보살입상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전면의 복부가 팽창한 양식은 일찍이 중국 남북조시대, 그리고 후대인 금·원대에 몇 예가 나타나고 있다.²²⁾ 또 양 무릎 밑에까지 내려온 V자형 의문은 고려불화 중 아미타구존도의 여래 및 보살입상²³⁾ 등에서 몇 예가 있는데 이처럼 불회사 보살입상이 불화와 친연성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작품의 모본은 불화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화려한 보관은 조선 초기의 보살상에서 볼 수 있으며 V자형의 의문은 고려불화와와의 연관성이 짙은 점을 감안하면 그 조성연대는 본존불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15세기 전반기로 추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죽림사 건칠아미타불좌상(도 2)은 기본적인 형식은 인근의 심향사불상과 관련되고 있으면서 얼굴의 모습과 착의내용, 결과부좌한 무릎의 외모 등에서는 긴장감이 떨어지며 의문의 요철도 얇고 다소 이완되고 있다. 타원형의 턱부분에 살집을 붙여 포동포동한 느낌을 주고 있으나 목부분으로 이어진 부위는 뻣뻣하고 긴 편이 되어 어깨선이 늘어지고 있다. 좌측 어깨의 Ω형 의문 역시 도식화 되었고 양 무릎도 긴장한 수평을 유지하지 않고 중앙이 움푹 들어가 힘의 균형이 결여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목부위에서 좌측 어깨로 내려온 대의와 옷깃에 표현된 삼각형의 옷주름이다. 이는 15세기 후반으로 넘어간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도 14)과 천주사 목조아미타불좌상(도 15)에서 나타나고 있어 죽림사불상의 연대추정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만 이들 두 상들은 좌측 어깨의 Ω형 의문의 변형, 좌측 무릎 표면에 나타난 이파리형 의문의 선행양식이 사라진 것을 보면 약간의 시대적 하한성을 시사하

21) 앞 주, 성춘경의 글, 「羅州佛會寺毘盧舍那三尊佛考」, p.125.

22) 성춘경, 『전남의 불상』, 학연문화사, 2006, p.240.

23) 李東洲 監修, 『高麗佛畫』, 中央日報社, 1984, 도판 21, 22, 24, 25 참조; 이들 보살입상의 재료가 소조인 점에 대해서는 앞 주, 『전남의 불상』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고 있다. 따라서 죽림사 불상의 조성연대는 15세기 중반을 하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실상사 건칠아미타불좌상(도 3)은 정상계주가 생략되긴 하였으나 나발의 머리테와 육계가 확연히 구분되고 있는 것은 심향사불상(도 11), 불회사불상(도 1), 죽림사불상(도 2)과 동일하다. 상호 역시 코가 낮고 뭉뚝한 감이 있긴 하지만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는 이들 불상과 같은 부류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상사불상을 자세히 보면 좌측 어깨에 묘사된 Ω형 의문은 아직 남아 있으나 왼쪽 무릎 위에 있는 종래의 이파리형 의문이 사라지고 없다. 이는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도 14)과 천주사 목조아미타불좌상(도 15)²⁴⁾과도 연계되고 있다.

실상사 불상의 양식에서 몇가지 눈여겨 볼 것은 육계가 나발의 머리테에서 솟아오른 모습이 전자의 예보다 더 뾰족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 뒤로 돌아 우측 어깨를 걸친 우견편단의 옷깃이 유난히 두껍다는 것이다(도 3-1, 3-2). 이는 앞에서 예를 든 흑석사 불상과 천주사 불상에서도 동일한 기법임을 알 수 있다. 흑석사 불상이나 천주사 불상처럼 정상 계주가 둥글게 솟아있고 육계가 유난히 뾰족하며 왼쪽 어깨에 드러난 삼각형 옷깃의 접힘이 나타난 것은 중국 명대에 유행한 티벳계 양식의 영향으로 보인다.²⁵⁾

티벳불교는 다른 말로 라마교라고도 하는데 원 황실에 의해 발전하였으며 주로 귀족층 이상의 상층계급에서 성행하였다고 한다.²⁶⁾ 이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북경 묘응사의 삼세불과 창평현에 위치한 居庸關의 마애불상을 들 수 있다(도 18).²⁷⁾ 이같은 불

24) 천주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 발원문 연대(1482년)는 이미 1970년대에 발표된 바 있다(秦弘燮, 『韓國의 佛像』, 一志社, 1980(3판), p.335). 이외에도 黃壽永 監修, 『佛像』, 韓國의 美 10, 中央日報社, 1984(4판), p.239에 조선전기(15세기초)로 해설되고 있다. 천주사의 위치는 경북 칠곡군으로 전해지고 있다. 천주사상의 전래 내용은 다음글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다(李銀洙, 「朝鮮初期金銅佛像에 나타나는 明代라마불상양식의 영향」, 『講座美術史』 15호, 2000, p.58 주 34참조).

25) 崔聖銀, 「朝鮮初期 佛教彫刻의 對外關係」, 『講座美術史』 19호, 2002, pp.47~48.

文賢順, 「朝鮮前期의 새로운 佛教圖像」, 『미술사연구』 15호, 2001, pp.216~218.

이외에도 뾰족한 육계 위에 둥근 정상 계주가 보이며, 허리가 가늘고 왼쪽 어깨에 삼각형 모양의 옷깃 접힘의 양식은 중국 명대의 금동불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金銅佛像』, 天津市文物公社, 1998, 도 18, 19, 20, 25, 76 참조).

26) 鄭恩雨, 「元과 高麗後期에 나타나는 라마도상의 佛教彫刻」, 『실�크로드文化와 韓國文化』, 忠南大學校人文科學研究所, 1997, p.442.

27) 앞 주, 鄭恩雨의 글, pp.442~444.

교조각의 영향은 원의 패망과 함께 明에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티벳계 불상의 특징은 뾰족한 삼각형의 얼굴, 허리가 가는 삼각형의 상체, 가슴이 발달한 우견 편단, 머리의 육계가 유난히 높고 크며 뾰족한 정상계주²⁸⁾, 그리고 대좌는 양·복련이 중첩되고 테두리에는 연주문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도상은 원래 인도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도 19).²⁹⁾

세 번째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무릎을 덮은 군의주름이 미세한 표현이지만 큰 주름과 작은주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고, 네 번째는 상체가 하체보다 약간 길어진 신체 비례의 특징이다. 이는 실상사 불상에서부터 미미하게 나타나지만 흑석사 불상³⁰⁾과

28) 앞 주, 文明大의 글, 「朝鮮前半期彫刻의 對中國(明)과의 교섭연구」, p.136.

29) 1927년, 인도의 동북부에 위치한 뱅가라데시 치타공의 제워리(Jhewari)에서 발견된 대량의 금동불(9~11세기)에서도 정상계주가 생략된 것을 제외한 다른 부위의 양식이 티벳불상과 거의 흡사한 도상이 확인되고 있다(ASOK K. BHATTACHARYA, 『JHEWARI BRONZE BUDDHAS』, INDIAN MUSEUM CALCUTTA, 1989, 도판 11, 12, 16, 17, 18, 19, 20, 27, 28, 29 참조). 이 외에도 네팔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2구의 금동여래좌상(10~12세기)도 이 양식임을 알 수 있다(王家鵬, 『藏傳佛教金銅佛像圖典』, 文物出版社, 1996, 도판 115, 141 참조). 티벳 불상양식의 인도 유입설은 앞 주 鄭恩雨의 글에서도 확인된다(「元和 高麗後期에 나타나는 라마도상의 佛教彫刻」, p.448).

30) 앞 주, 崔素林의 글, 「黑石寺 木造阿彌陀佛坐像研究」, p.84.

이 흑석사 불상은 현재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1380번지에 위치한 흑석사에 봉안되고 있으나 원래의 봉안처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1458년에 작성된 복장발원문에 의하면 조선 태종의 후궁 의빈 권씨, 명빈 김씨, 효령대군 등이 대표적 시주자이며 발원한 사찰명은 井巖山 法泉寺이다. 세종 30년(1448년 戊辰) 12월 10일(壬戌)조를 보면, 井岳山(岳, 崑, 岩, 巖字는 모두 바위암자임)은 赤城縣에 있다고 기록되었다. 현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이다. 그런데 당시 적성현 관할 지역으로 추정된 현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만정리 임야 741번지에 이 불상 조성의 주 발원자인 의빈 권씨의 묘가 도굴된 채로 남아있다(도 20). 묘 앞에는 문인석(고 170cm)과 묘비(고 78, 너비 40, 두께 10cm)가 있으며 묘비전면에는 “懿嬪權氏之墓”란 글씨가 음각되었고 뒷면에는 成化四年(1468)이란 건립연대가 음각되어 있다(도 20-1).

한편 의빈 권씨의 사위(딸 정혜옹주 남편)인 운성부원군 朴從愚(?~1464)墓 역시 의빈 권씨묘에서 100m의 지근거리에 있다. 이 묘는 부인 정혜옹주와 합장되었으며 역시 문인석과 묘비가 남아있다(연천군향토유적 제 4호). 이 묘비는 운성부원군이 사망한 4년 후인 1468년(成化四年三月初)에 건립된 것이다.

이상의 정황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井巖山과 법천사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지만 赤城縣이 현재의 적성면이 분명하고 또 의빈 권씨묘와 일련의 가족묘가 한 권역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法泉寺 역시 경복궁에서 그리 멀지않은 적성현의 권역 내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도 적성면,

천주사 불상에서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상체가 하체에 비해 길어진 이같은 양식은 티벳계 조각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미 고려말 순창의 순평사금동아미타불좌상(도 12)³¹⁾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신체비례는 지리산과 경상도(또는 경기도) 일대에서 잠시 성행했던 특징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실상사 불상의 양식적 특징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고려 후기의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일부 기법에서 미세하나마 티벳계의 불상양식이 가미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성연대는 15세기 초에서 중반에 걸쳐있는 시기로 보면 가장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³²⁾

무위사 목조아미타불좌상(도 4)은 앞에서 살펴본 건칠아미타불좌상의 얼굴과는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즉, 얼굴이 방형에 가까우며 머리와 육계가 구분되지 않고 반원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양 뺨의 살집을 통통하게 한 것은 전례와는 다른 표현이다. 또한 양 어깨에서 내려온 깊은 U자형의 법의, 왼쪽 어깨의 옷주름을 꼬이게 하여 둥근 고리처럼 표현한 것은 Ω 형 의문의 변형일 수도 있겠으나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상체에 비해 무릎의 폭이 넓어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특히 무릎을 덮고 있는 군의자락의 큰주름과 작은주름이 겹치게 한 기법은 실상사 불상과 같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왼쪽 무릎의 이파리형 의문 대신 몇 겹의 옷주름을 겹치게 하여 Ω 형으로 표현한 것은 전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라 하겠다.

즉 의빈 권씨묘역 인접지역에 寺洞(또는 寺內洞)이란 地名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 일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요구된다.

- 『文化遺蹟分布地圖』(漣川郡), 육군사관학교화랑대연구소, 2007, p.297, 303.(도판 391-1, 391-2, 391-3 참조)
- 운성부원군 朴從愚의 내용은 다음 문헌에도 기록되고 있다.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연천군, 한국토지박물관, 2000, pp.581~582. 의빈 권씨의 관련 자료(도판)를 제공해 준 한성욱 학예실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31) 앞 주, 윤덕향 외 3인, 『호남의 불교문화와 불교유적』, pp.379~381.

32) 실상사에는 건칠아미타불좌상 외에도 이 본존불을 형식한 건칠관음보살입상, 대세지보살입상 2구가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건칠관음보살입상은 실상사 보광전에 봉안되고 있으며 대세지건칠보살입상은 부산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 임석규, 「한국乾漆佛像의 광학적 조사현황」, 『한국의 사찰문화재』,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7, p.106 및 『乾漆佛』, 문화재청, 2008, pp.99~101 도판참조.
- 崔恩領, 『朝鮮初期乾漆佛像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좌우측의 관음·지장보살상(도 4-1, 4-2)역시 본존불과 같은 얼굴, 같은 착의법이다. 다만 관음보살상의 좌측 어깨의 Ω형 의문과 가슴 안쪽의 옷깃을 구부려 외반되게 표현한 기법은 사실감을 더해 준다. 관음보살상은 좌측 다리를 지장보살상은 우측다리를 밑으로 내리고 있는 반가좌³³⁾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리를 대칭되게 한 것은 처음부터 의도된 구도로 보인다. 또 군의의 한쪽 가닥을 대좌 밑으로 내린 상현좌 형식은 고려불화의 여래좌상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조선초기 조각의 예에서는 매우 독특한 사례라 하겠다. 머리에 두건을 쓴 예는 중흥사 석조지장보살좌상(도 1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동지장보살좌상,³⁴⁾ 영암용암사지 3층석탑에서 출토된 금동지장보살좌상³⁵⁾ 등의 선행양식이 있는데 아마 이들 양식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보듯이 무위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은 15세기 초반(1430년경)의 작례이지만 전례의 부드럽고 우아한 얼굴이 아닌 방형이면서도 옷깃을 꼬아 둥근 고리처럼 표현한 이례적인 기법, 큰주름과 작은주름을 시도하면서도 이파리형 의문 대신 몇가닥을 겹치게 하여 Ω형으로 대체한 무릎표면의 착의법 등은 티벳계 양식을 탈피한 매우 새로운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또 보살상의 상현좌의 옷주름이 무릎에서부터 연결된 것이 아니고 대좌에서 별개로 조각한 기법은 재료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던가 싶다.

매곡동 금동아미타불좌상(도 5)은 정상의 계주가 생략되었으나 육계가 뾰족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솟아 있으며 치켜뜬 눈과 뭉뚝한 코 등은 인근의 구례 천은사 금동불감 내에 있는 금동불좌상(도 13)과 유사하다.³⁶⁾ 천은사 금동불좌상(2구)은 고려후기의 전통

33) 보살상이 이처럼 다리를 내리고 있는 형식을 일명 유희좌(遊戲座)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이 “유희”라는 의미는 불상 분위기와는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형식은 주로 인도, 네팔 및 티벳 등 동남아시아에 그 예가 많이 남아 있으나 그렇다고 이들 무위사목조삼존불상이 티벳계 도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이미 이 형태는 한국화 된 것으로 보인다.

34) 黃壽永 監修, 『佛像』, 한국의 미 10, 中央日報社, 1984, 도판 85.

35) 『靈巖龍岩寺址』, 목포대학교박물관, 영암군, 1997.

36) 현재 천은사에 보관중인 금동불감과 금동불(현재 2구)은 1960년대 이후에 확인된 것이며 이미 그 이전에 다른 금동불감과 3구의 금동불좌상(舊藏)이 전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 앞 주, 文賢順의 글, 「朝鮮前期의 새로운 佛教圖像」, p.148. 도판 2 및 주5의 내용 참조.

· 현재의 천은사 불감 내의 금동불 2구는 1960년 11월까지의 불감만 있고 금동불상 2구는 확인되지 않았다.(鄭永鎬, 「智異山 泉隱寺의 金銅佛龕」, 『考古美術』 통권 제4호), 그 후 1년 후인 1961년 10월경 鄭明鎬교수가 화엄사 각황전 내 화엄석경을 정리하던 중 천은사를 방문하여 금

을 따른 것으로 통견의 법의와 깊은 U자형의 의문, 힘이 배어있는 결가부좌의 기법 등은 모두 고려적인 요소라 하겠다.³⁷⁾ 이에 비하면 매곡동 본존불상은 세가닥으로 뻗쳐 내려온 상현좌는 앞에서 살펴본 무위사의 보살상과 연계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삼존상 모두 허리가 가는 역삼각형이고 양·복련으로 연결된 대좌 등은 이미 15세기에 유행한 티벳계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관음보살상의 삼지형³⁸⁾ 화문장식의 보관(도 5-2)과 허리춤을 투각한 X자형의 천의는 독특한 기법이긴 하나 보관 밑에 표현된 머리털을 갈라 빛은 가르마의 움푹 패인 모습은 무위사의 관음보살좌상(도 4-2)과 일치하고 있다. 지장보살상의 좌측 어깨에 부착된 등근 고리(도 5-1) 역시 무위사 본존상의 고리 모양의 의문과 비슷하다. 이러한 양식상의 유사한 조형성은 분명 무위사삼존불상과의 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매곡동삼존상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잠자는 듯한 실눈과 양 뺨에 살집을 주어 포동포동하게 표현한 것까지도 무위사 삼존상의 분위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 모티브는 천은사 금동불좌상을 따르는 고려후기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세부적인 기법에서는 무위사 삼존불상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매곡동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1468년)은 그 재료가 금속재로서 일부양식은 티벳계 불상 양식이 가미되면서 세부적인 양식은 인근에 위치한 무위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의 영향을 배제할 수가 없다.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상(도 6)은 머리는 민머리이며 눈은 실눈처럼 가느다란 모습이고

동불 2구를 확인하였다(鄭明鎬, 「泉隱寺金銅佛龕의 金銅佛坐像」, 『考古美術』 통권 제43호, 1964). 그런데 현재 용산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중인 금동불좌상 3구가 앞 주 文賢順의 글 「朝鮮前期의 새로운 佛教圖像」에 나온 도판 2의 사진과 同一한 것임을 알 수 있다(鄭恩雨, 『高麗後期佛教彫刻研究』, 문예출판사, 2007, pp.270~271 및 도판 3-41 참조).

현 천은사 금동불감 및 금동불좌상 2구는 1972년 1월 29일, 도지정문화재 제 29호로 지정되었는데 최근 2008년 3월 12일, 보물 1546호로 승격되었다. 그렇다면 당초 도지정문화재 지정당시 傳 나옹화상원불이라 하여 지정의미를 부여한 것인데 그 의미부여 대상이 어느 쪽인지 또 그 출처도 함께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37) 천은사금동불좌상(2구)의 대좌는 기존의 티벳불상의 대좌와는 사뭇 다른 기법이다. 즉 연주문이 생략되고 연화문의 문양도 도식화되는 등 본래 대좌의 원형인지 의심스럽다.

38) 조선초기 보살상의 보관 형식을 왕관형보관, 통형화관, 산형화관, 통형꽃이장식보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매곡동상의 관음보살상의 보관은 이들 보관형식과는 특이하게 다르다.

· 文賢順, 「朝鮮初期菩薩像의 寶冠研究」, 『미술사연구』 16집, 2002, pp.111~128.

코는 뭉뚱하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평면성을 면치 못하는 방형이지만 아직은 입가에 가벼운 미소가 남아 있다. 화려한 천의와 U자형을 고수한 옷주름은 15세기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몇가닥의 군의자락이 대좌 밑으로 내려온 상현좌 형식은 바로 인근인³⁹⁾ 무위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의 관음·지장보살상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와같이 달성사 지장보살좌상처럼 한쪽 다리를 밑으로 내리는 반가형식은 고려불화에서 상당수를 볼 수 있으나 조각의 작례로서는 매우 희귀한 편이라 하겠다. 이같은 선행양식은 광양 중흥사 석조지장보살좌상(도 16), 무위사 목조삼존불상 중 관음·지장보살좌상,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목조지장보살좌상(15세기 초반),⁴⁰⁾ 그리고 기림사 건칠보살좌상(도 17) 등이 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우측 다리의 무릎 위 부위를 군의로 묶은 다음 이를 다시 밑으로 흘러내리게 한 것이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전례가 없어 주목된 양식이다. 얼굴은 비록 방형으로 우아하고 부드러운 면은 사라졌지만 깊은 U자형의 천의와 힘있게 내리뻗은 상현좌의 기법 등은 15세기의 양식을 계승한 16세기 중후반(1565년)의 매우 돋보인 작품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도 7)이다. 원래의 봉안처가 장흥 보림사로 밝혀졌지만 16세기경 어떤 전각에 봉안된 것인지 알려진 바가 없어 아쉽다. 상호는 방형에 가까우며 아직은 온화한듯 하면서도 개성이 없다. 게다가 보살이면서 천의의 착의법이 여래상과 같아 혼란스럽다. 좌측 어깨의 Ω형 의문이 변형된 모습이나 아직 고수되고 있으며 둔박한 U자형의 천의와 신체 비례에 비해 유난히 큰 손이 거세고 투박하다. 좌측 발은 가부좌이고 우측발은 무릎을 구부린 궤좌(跪坐)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고려 말 또는 조선초기의 금동보살상의 예에서 가끔 볼 수 있으나 16세기 목조보살상에서는 희귀한 사례라 하겠다.

이 상에서 주목된 것은 허리가 뒤로 젖혀진 상태이고 머리는 앞으로 튀어나온 특이한 신체구조이다(도 7-1). 이러한 작품은 매우 이례적인 예로서 당시 이 지역의 풍토적인

39) 달성사목조지장보살상의 원래 봉안처는 나주 운흥사였으며 강진 무위사와는 약 30km 내외 거리에 있다.

40) 이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좌측 어깨의 Ω형 의문이 변형되었지만 군의를 묶은 띠매듭이 아직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유려한 천의의 착의법으로 보아 15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박도화, 『보살상』, 대원사, 1990, p.74. 도판참조).

요소인지 아니면 유교적 상황과의 절충을 시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어쨌든 이제 서서히 등글고 생동감이 넘치는 굴곡은 사라지고 평면과 방형이 주요 구성을 이룬 예가⁴¹⁾ 이 상에서 확인된 셈이다.

IV. 맺는말

지금까지 전라도지역에 소재한 일곱군데의 조선 전기 불상에 대해 살펴본 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회사 불상, 죽림사 불상, 실상사 불상의 양식적 특징은 고려 14세기 후반의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죽림사 불상과 실상사 불상은 일부 부위에서 흑석사 불상과 천주사 불상이 갖는 티벳계 불상양식이 가미되고 있다. 불회사 보살입상의 복부가 팽창한 것은 중국 남북조시대, 금·원대에 몇 예가 있지만 국내의 군위삼존석굴의 관음·세지보살상과 증심사 석조보살입상에서 근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또 군의의 V자형의 의문은 고려불화와의 유사성을 짚어 보았다.

둘째, 무위사 불상은 그 조성연대가 15세기 초반(1430년경)이면서 그 기본적인 모델링은 전자의 상들과 다른 면이 있다. 특히 일부 양식에서는 선례가 없는 이례적 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실상사 불상과 함께 미미하지만 일부 양식에서 큰주름과 작은주름의 기법이 잔존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셋째, 매곡동 금동삼존불좌상은 천은사 금동불감내의 금동불좌상과 연계되면서도 세부적인 기법은 인근의 무위사 삼존불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신체의 외모 및 대좌 등은 티벳계 양식이 병존하고 있다.

넷째, 달성사 지장보살좌상은 반가상으로서 고려의 선행양식과 무위사의 지장보살상

41) 앞 주, 유마리의 글, 『조선시대조각』, p.454.

및 기림사보살상의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관음사 보살좌상은 매우 이례적인 신체구조를 하고 있으며 일부 양식이 투박하면서도 평면적인 요소가 부각된 것은 조선후기(17세기)로 넘어간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닌가 한다.



〈도 1〉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
총고 130cm, 15세기초



〈도 1-1〉 불회사 건칠비로자나불좌상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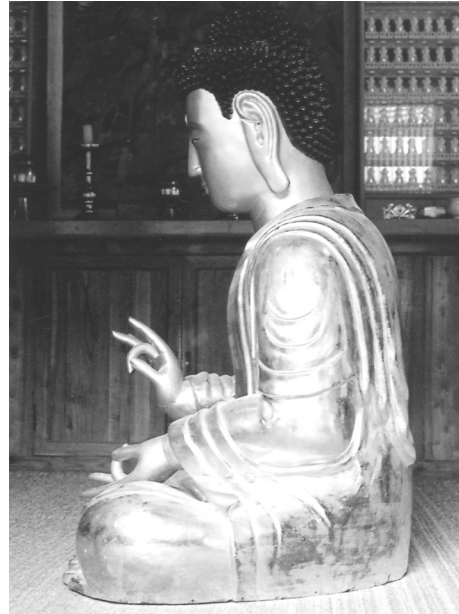
〈도 1-2〉 불회사 소조보살입상(우측), 총고 207cm



〈도 1-3〉 불회사 소조보살입상(좌측), 총고 202cm



〈도 2〉 죽림사 건칠아미타불좌상
총고 114cm, 15세기초



〈도 2-1〉 죽림사 건칠아미타불좌상 좌측면



〈도 3〉 실상사 건칠아미타불좌상
총고 125cm, 15세기초



〈도 3-1〉 실상사 건칠아미타불좌상 좌측면



〈도 3-2〉 실상사 건칠아미타불좌상 우측면



〈도 4〉 무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총고 122cm, 1430년경



〈도 4-1〉 무위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총고 140cm, 1430년경



〈도 4-2〉 무위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총고 146cm, 1430년경



〈도 5〉 순천 매곡동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 본존불총고 12.2cm, 1468년



〈도 5-1〉 순천 매곡동 금동지장보살좌상
총고 9.7cm, 1468년



〈도 5-2〉 순천 매곡동 금동관음보살좌상
총고 11.4cm, 1468년



〈도 6〉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총고 141cm, 1565년



〈도 6-1〉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배면



〈도 7〉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총고 41.5cm, 1569년



〈도 7-1〉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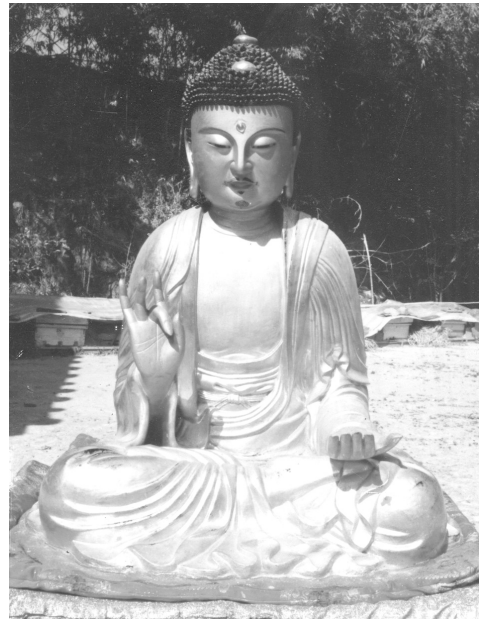
〈도 8〉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총고 87cm, 13625년



〈도 9〉 자운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총고 63cm, 1388년 이전



〈도 10〉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
총고 134cm, 14세기후반



〈도 11〉 심향사 건칠아미타불좌상
총고 132cm, 14세기후반



〈도 12〉 순평사 금동아미타불좌상
총고 104cm, 14세기말



〈도 13〉 천은사 금동불감내금동불좌상(2구)
총고 16.1cm, 14세기 후반



〈도 14〉 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총고 72cm, 1458년



〈도 15〉 천주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총고 56.8cm, 1482년



〈도 16〉 중흥사 석조지장보살좌상
총고 79cm, 14세기후반



〈도 17〉 기림사 건철보살좌상
총고 91cm, 1501년



〈도 18〉 중국 居庸關벽면마애불, 1343~1345년



〈도 19〉 석조여래좌상, 인도가야출토, 9세기초



〈도 20〉 의빈 권씨 묘역 전경



〈도 20-1〉 의빈 권씨묘비(고 78, 폭 40, 두께 10cm)

조선 후기의 불상

최 인 선*

- I. 머리말
- II.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의 시기구분과 양식적 특징
- III. 조선후기 불상 제작의 계파문제
- IV. 『造像經』의 복장내용과 조선후기 복장과의 비교
- V. 맺음말

I.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 사찰의 전각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은 거의 조선시대 후기의 불상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형편이다. 이 시기의 불상 재료는 목재와 흙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석재와 금속류도 많지는 않지만 제작되어 각 전각에 봉안되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많은 불상의 복장 발원문이 발견되어 불상 연구에 새로운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100여건 이상의 복장 발원문이 발견되고 있는데

* 순천대학교 인문학부 사학전공교수

대부분이 17세기와 18세기의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발원문의 등장은 조선후기의 불상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어 그동안 공백기나 다름없었던 조선후기의 불상 연구에 큰 전환점을 이루게 하였다.

조선시대 불교조각사는 대체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란 커다란 국난을 전후해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것이 거의 관례가 되고 있다. 양란으로 불에 타고 허물어진 사찰을 재건하면서 새롭게 많은 불상이 조성되었으며, 조선전기와 다른 새로운 불상 표현방식이 등장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양란의 직후인 17세기는 전국적으로 재건된 주요사찰의 중심 전각들에 봉안된 불상들이 주로 조성되어 비교적 큰 불상들이 만들어진 시기이다. 반면에 18세기 이후에는 사찰의 주 전각 이외의 전각들에 주로 봉안된 불상들이 많이 조성되어 그 규모가 전시기보다는 작은 편이다.

큰 전란을 겪고 난 후에 불교계가 이처럼 사찰을 다시 복원하고 불상을 조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민간에 깊게 뿌리를 내린 불교가 보유한 광범한 신도층의 경제력과 임진왜란 때에 불교계가 수행한 의승군의 역할로 사회적으로 제고된 불교의 위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17세기 불교조각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특징은 시대양식에 우선하는 조각가 개인 양식의 확립과 조각승 계파의 확실한 성립이다. 조각승들이 首長을 중심으로 집단을 이루어 일정한 불상양식을 공유하는 계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작업량이 있어서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불상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¹⁾

조선후기의 불상연구는 최근에 들어와서야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조각사적 연구 경향을 중심으로 시기구분과 양식적 특징 문제를 요약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에 조선후기 불상 제작은 각 계파가 형성되어 불상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역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조선 후기 불상의 연구는 최근 들어와서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다름아닌 복장물 가운데 발원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발원문은 불상을 조성한 조각가, 조성연대, 시주자, 조성배경, 봉안된 사찰의 승려들 등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1) 宋殷碩,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1.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위 『造像經』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경전을 통해서 복장물의 내용들이 무엇이고 그 복장물을 어떻게 만들고 안립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져 이 부분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Ⅱ.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의 시기구분과 양식적 특징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시기구분과 양식적 특징은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어 큰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각각의 발표순 대로 살펴봄으로써 얼마만큼의 진전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진홍섭 교수는 조선시대 조각사의 시기구분을 하지 않고 다만 양식적 특징에 대해서만 언급하였고, 그러한 양식적 특징은 오래 동안 언급되어 왔다²⁾. 조선시대는 송유배불 정책으로 불교는 큰 타격을 입었다. 전체적인 대세는 쇠퇴의 길을 걸어 불교가 국민의 사상과 생활에 직결되지 않았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조성된 불상은 형식적으로 아름답지 못했고 성격적으로 깊이가 없었다. 예배의 대상으로서 존귀한 존재로서의 불상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려오는 불교의 격식을 따라 법당에 갖추어지는 조형물의 하나로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수한 불상은 조성될 수 없었으며, 다음과 같이 조선시대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전 시대의 불상에 비해서 인체의 파악이 부족하다.

둘째, 측면관에 있어 등이 앞으로 굽고 턱이 내밀리고 있다.

셋째, 얼굴에는 개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넷째, 법의는 두꺼워 인체 표현이 없다.

2) 秦弘燮, 『韓國의 佛像』, 一志社, 1976, pp.176~177.

다섯째, 의문은 사실적이 아닐 뿐 아니라 형식적인 데 그쳤다.

여섯째, 전체적으로 俗化된 감이 농후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형식은 조선시대 불상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정신과 기술이 전시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퇴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선종의 유행으로 불상 조각이 쇠퇴하여 조형 예술의 퇴보를 가져 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고려 시대 불상으로서의 개성이 나타났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개성마저 사라지고 시대적인 하나의 양식은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예술적인 아름다움이나 창조적인 양식의 전환은 볼 수 없다.

문명대 교수는 시기구분을 크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고 다시 세분해서 5분기를 설정하였다³⁾. 그는 조선시대가 그 이전의 천 여 년 동안과는 판이한 문화가 전개되었다고 보았다. 억불숭유 정책으로 상류 문화에서는 불교문화가 쇠퇴하고 유교 문화가 성행한 것이다. 여기에 따라 불교미술은 위축되고 불상 조각도 현저히 후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 전반기에는 왕과 공신들의 진영상은 사라졌지만 불상 조각은 왕실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적 조영 활동이 있었으므로 옛 전통이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했다고 보이며, 후반기에는 임진왜란 후 전쟁 기간 불교계의 구국 의병활동이 감안되어 국방 요지에서의 佛事의 공인과 민간 차원에서의 불사도 묵인됨으로써 활발한 조영활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불상 조영은 국가·왕실 및 상류사회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로써 불상 조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즉 불교의 민간화에 따라 시주 계층의 저변화와 불상 조상가의 승려화, 불상의 민중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획기적인 새로운 변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조선시대 조각사의 시기 구분을 하였다.

3) 문명대, 「朝鮮前期 彫刻樣式의 研究(1)」, 『梨花史學研究』 제13·14合集, 1983, p.49.

_____, 「조선시대 불교조각사론」, 『高麗·朝鮮 佛教彫刻史 研究－삼매와 평담미』, 예경, 2003, pp.263~305.

〈표 - 1〉 조선시대 조각사의 분기와 특징

	시 기	분 기		특 징
1	전반기 (1392~1622)	1	태 · 성종기(초기) : 1392~1505	고려양식에서 조선양식으로의 전환기
		2	중 · 선조기(중기) : 1506~1622(30)	조선조 양식의 정립기
2	후반기 (1623~1910)	3	인 · 숙종기(융성기) : 1623(30)~1724	조선조 양식의 확립기
		4	영 · 정조기(만기) : 1725~1800	조선조 양식의 전개기
		5	중 · 선조기(말기) : 1801~1910	조선조 양식의 마무리기

그리고 조선시대의 불상 조각의 양식적 특징을 다음과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1. 전반기 불상 조각의 양식적 특징

조선 전반기 조각은 고려의 전통 양식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조선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또한 明의 양식이 가미되어 독특한 조선 전기 조각 양식이 다음과 같이 성립되었다.

첫째, 15세기 전반에서 중엽경(3/4분기)까지 大乘寺 불상이나 高山寺 불상처럼 얼굴이나 상체비례가 당당하거나 단아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1500년경 전후부터 상체가 늘씬해지면서 육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셋째, 15세기 불상은 얼굴과 신체가 단정하면서 건장하고 당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1500년경부터 상체가 세장하고 육계가 높아지며 정상계주가 표현되고, 명나라적인 그린 듯한 얼굴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섯째, 왕실 귀족층 발원의 불상일 경우 고려 후기 단아 양식의 불상보다 더 회화적인 필선이 나타나는데 단순화되는 경향도 보인다.

여섯째, 가슴에 표현된 裙衣 깃이 가로로 굽게 직선화되는 특징을 표현하였다.

일곱째, 고려 후기에 나타나던 왼팔꿈치의 Ω 형 주름이 옆으로 빗기게 표현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덟째, 보살상의 영락 장식이 초기에는 상원사 문수동자상처럼 상체에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이 심려하게 나타나다가 점차 전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2. 조선 후반기 조각 양식의 특징

조선 후반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3분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에 들어와 독특한 조선적인 특징이 완전히 확립된다.

첫째, 머리·상체·하체를 쌓아올린 듯한 블록식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얼굴이나 상체 등이 사각형적이면서 평판화되고 있다.

셋째, 얼굴은 평판형에 가는 눈, 작은 입과 코, 큰 귀 등을 오려붙인 듯하게 나타내고 있다.

넷째, 무표정한 인상도 있지만 소박하면서 친근미 나게 미소 띤 정감있는 얼굴도 보이고 있다.

다섯째, 방형의 신체는 양감 표현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여섯째, 본존의 경우 좌상이 대부분이어서 정적인 불상이 주류를 이룬다.

일곱째, 대부분 통견의이며 보살상도 대의를 입고 있다.

여덟째, 간략하고 담연한 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 조각사의 분기점을 광해군대까지로 잡았는데 이러한 견해는 임란직후의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빚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17세기 초반기의 작품들도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으므로 조선시대 조각사의 분기점은 역시 임란이란 큰 전쟁을 분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분기점은 1600년을 경계로 삼은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유마리 선생은 1650년 경을 전후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였다⁴⁾. 조선시대는 조선의 국시가 억불숭유정책으로 바뀌어 불교는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된다. 특히 五教兩宗을 선·

교양종으로 통폐합한 뒤부터는 사회를 지도하는 지배적인 종교에서 겨우 사회의 이면에 서만 활약하는 종교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대로부터 뿌리깊게 내려진 불교는 여전히 인기가 있어 왕실의 비·빈, 궁녀나 당대의 귀족들인 사대부의 처·첩들이 그들 자신의 願望을 기원해서 사찰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같은 지배계층인 왕실부터 그들과 친숙한 불교에 더욱 집착하게 되어 불교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대중화된다. 따라서 질·양면에서 여전히 우수한 면을 보이는 조선조각은 크게 두시기로 나누어진다.

조선전기 조각 : 1400년경부터 1650년경까지

조선후기 조각 : 1650년경 이후의 불상

조선조 후기 조각은 기술의 한계를 지닌 지방장인이 쉽게 만들려고 한 작품이 대부분으로 단순, 소박하며 평면화된 불상들이 대두하는 한편, 중앙에서 외래양식이나 기술을 그때 그때 습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장인이 만든 왕실 후원의 불상들도 볼 수 있다. 임란과 병란을 계기로 하여 사회적인 모순이 일어나는 등 앞 시대의 전통이 변모됨에 따라 조선 후기의 조각은 보다 보수적인 경향을 나타내지만 기교가 배제된 정감있는 단순, 소박한 미를 지닌 불상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임영애 교수는 조선시대 불교조각을 1592년의 임진왜란과 1636년의 병자호란을 계기로 크게 2기, 즉 조선 전반기(1392~1640)와 후반기(1640~1900)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전반기는 다시 1500년경을 중심으로 1기와 2기로, 후반기는 1800년경을 경계로 1기와 2기로 나뉘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⁵⁾. 이러한 시기구분은 불교조각의 양식적인 특징과 함께 역대제왕들의 호불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는 조선시대의 불교미술이 다른 시대와는 달리 역대제왕의 정책이나 당시 사회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조선시대 불교조각의 시기구분 역시 그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구분하였으며, 각 시기의 조각 특징도 아울러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4) 柳麻理, 「조선시대 조각」, 『韓國美術史』, 대한민국 예술원, 1984, pp.448~459.

5) 林玲愛, 「조선시대의 불교조각」, 『韓國佛教美術大典－1 佛教彫刻』, (주)한국색채문화사, pp.265~270.

〈표 - 2〉 조선시대 조각사의 분기와 특징

	시기	분기		특 징
1	전반기 (1392~1640)	1기	1392~1500	우아하고 귀족적인 고려 후반기 조각전통양식이 주를 이루다가, 15세기 중엽 이후부터 명나라의 양식을 다소 받음
		2기	1500~1640	지방장인에 의해 조성되면서 순박하고 정감있는 조선양식을 만들어 간 시기
2	후반기 (1640~1900)	1기	1640~1800	순박하고 투박한 미술양식, 단순 소박하고 평판적인 면. 형식화가 정착된 시기
		2기	1800~1900	18세기의 불상양식에서 더 진전되어 극단적으로 단순화와 형식화가 진행되지만, 조선조 조각양식을 정착시켜 조선적 정감이 넘치는 새로운 조각미를 창조한 시기

최선일 선생은 가장 최근의 견해로 조선시대 조각사의 분기점을 1600년으로 삼고 후기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4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⁶⁾.

조선후기의 불교조각사는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양식을 기준으로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조선후기 불상양식의 성립기(1600~1650년)로 전쟁이 끝나고 사찰의 중창과 중수가 이루어지면서 중소형 불상을, 1620년대 중반 사찰경제가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3~5m에 달하는 대형소조불을 제작하였다. 이 시기의 불상은 얼굴표현과 신체비례 및 오른쪽 어깨와 하반신에 걸친 대의 표현이 모두 다르게 표현되어 조각승 계보마다의 불상양식이 성립되지 않았다.

2기는 조선후기의 불상양식의 전성기(1651~1740년)로 명산대찰의 부속건물 등에 1~1.5m 정도의 중형목조물을 6~9명 정도의 조각승들이 제작하였다. 이 시기의 불상은 동일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만든 불상이 얼굴표현과 신체비례 및 오른쪽 어깨와 하반신에 걸친 대의 표현 등이 동일하게 표현되었다.

3기는 조선후기 불상양식의 확산기(1741~1800년)로, 대부분 사찰 전각에 불상이 봉안되어 불상 제작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조각승이 불상 제작보다 중수와 개금을 주로 하고,

6) 崔宣一,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일부 불화승이 조각승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불상은 18세기 전반 불상의 양식을 계승하여 도식화되면서도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첨가되었다.

4기는 조선후기 불상양식의 쇠퇴기로(1801~1910년)로 불상 제작의 수요가 거의 없어져서 조각승의 존립자체가 붕괴되고, 그 역할을 불화승이 대신하면서 불상을 제작하여 조각기술이 현저하게 쇠퇴하였다.

〈표 - 3〉 발원문과 문헌으로 본 불상 제작과 개금의 관계⁷⁾

시 기	불상 제작의 수	불상 개금의 수
제1기(1600~1650)	67	0
제2기(1651~1740)	114	19
제3기(1741~1800)	13	28

위의 표대로 조선 후기 전반기는 불상제작에 진력하였으며, 제3기 이후 불상제작은 현저히 줄어들고 개금과 보수가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불교조각사의 시기구분 문제에 대해서 몇 견해를 살펴보았다. 임란이란 큰 국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사찰들은 큰 피해를 입어 대부분의 사찰들은 불에 타버리거나 훼손되어 당시 사찰의 현상은 그야말로 폐허로 변해버린 곳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전란이 끝나자 사찰들은 스님들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에 나서기 시작하여 각 전각들을 복원하였고 그 안에 봉안할 불상들을 조성하였다. 안성 청룡사 소조삼존불상(1603년), 김해 선지사 목조여래좌상(1605년), 함양 상련대 목조보살좌상(1612년), 익산 송림사 목조여래좌상(1614년), 순천 송광사 목조여래좌상(각민 작, 1614년, 한국전쟁 중 소실),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소장 목조여래좌상(1615년), 서천 봉서사 목조삼존불좌상(1619년) 등이 1600년대 초반부터 조성되었다. 이 불상들은 상반신이 약간 길어서 조선 전반기의 불상과 상통한 점들도 눈에 띄나 1600년대 이전의 불상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임란이란 큰 국난을 계기로 불상의 양식에 있어서 커다란 분기점이 형성되었다고 보여 지므로 이를 계기로 조선시대의 조각사

7) 최선일, 앞의 논문, p.141을 인용하여 표 작성.

는 분기점을 삼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1600년을 분기점으로 조선시대 불교조각사는 크게 조선전기와 조선후기로 나누는 것이 더욱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현재까지 많은 자료들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각 분기의 세분화 과정은 차후에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Ⅲ. 조선후기 불상 제작의 계파문제

조선후기는 불상 발원문과 불상제작 관련문헌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불상조성 시기와 제작자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조선 전기는 불상의 조성연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이 있으나 불상제작과 관련된 장인들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서 소위 계파문제는 거론할 단계가 아직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임란이란 커다란 국난을 겪은 후 각 지역에 있는 사찰들이 복원되고 중창되면서 많은 양의 불상이 제작되면서 관련 기록들이 남아있어 불상을 조성하였던 담당자들이 주로 스님들이었으며, 이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한 계파를 형성해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표적인 각 계파들과 그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7세기에 활동하였던 조각승 계파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일정한 인원으로서 집단을 이루어 불상을 조성하였는데, 17세기 초반 성립한 조각승 계파들은 17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각 계파의 조각 양식을 이어나가면서 확대 재생산하였다. 대부분 계파들은 이르면 1610년대에, 늦어도 1620~30년대에는 기본적인 인적 구성을 이루었으며, 계파 내부의 조각승들은 각 계파의 수장이 만들에 낸 조각양식을 공유하였다. 한 계파가 조성한 불상들은 적게는 3~4건에서 많게는 20~30여 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조각승 계파들은 대부분 계파 내부의 인원으로 한 불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계파간의 공동 작업도 많지는 않지만 하였다.

17세기 전반기는 각 계파의 수장이 등장하여 자신의 계파를 이루어 활동하던 시기였으며, 17세기 후반기는 유계에 소속되어 계파의 수장으로부터 조각을 배운 2~3세대 제자들이 본격적인 활동 벌인 시기였다. 17세기 초반에 활동한 각 조각승 계파의 수장들은 16세기 말에 활동한 조각승으로부터 조각 기법을 전수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응원·수연·법령·인균 등 17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각승 계파의 수장들이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한 1615년 금산사 獨聖像 조성불사에 관한 기록은 17세기 조각승 계파가 16세기의 조각승으로부터 이어졌을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1640년대에서 1680년대 사이는 각 계파에서 계승자들이 나와 가장 활발한 조성활동을 벌인 시기이다. 응원파의 印均과 三忍, 수연파의 雲惠와 敬林, 청헌파의 勝一과 熙藏, 법령파의 惠熙와 祖能, 무염파의 海心과 道祐 등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조각승들이다.

元悟派는 원오를 중심으로 1610년대에 성립되었으며, 경상남도 서부지역과 전라남도 동부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원문을 통해 인적 구성은 확인되었으나 다른 조각승 계파와 달리 계파를 특징짓는 불상 양식은 아직 확인 되지 않았다.

玄眞派는 17세기 초반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인 조각승 계파로, 경상북도 남부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경상, 전라, 충청 등 삼남 일대에서 두루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진파가 조성한 불상들은 현재 1612년에서 1637년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활동연대로 보아 16세기 말에 활동하던 조각승으로부터 조각을 배웠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진파가 1610년대 초기에 만든 불상들은 마른 체형에 길쭉한 얼굴을 한 불상들이었지만 16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육중한 몸에 사각형 얼굴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현진파 양식의 불상들로 바뀌어 1630년대 까지 이어졌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17세기 후반에는 현진파 양식의 불상을 조성하는 현진파 조각승들은 발견되지 않아, 현진파는 17세기 전반의 활동으로 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應元派는 전라남도 동부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전라남도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응원파가 조성한 불상들은 현재 1624년에서 1659년까지 분포하고 있지만, 응원은 1615년에 활동한 기록이 남겨져 있고, 응원파의 조각승들이 17세기 말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들도 남겨져 있다. 응원파가 독자적인 조각승 계파를 이룬 시기는 늦어도 1620년대 초반으로 확인되었으며, 應元和 印均, 三忍 등 응원파의 주요 조각승들은 1610년대에서

1660~70년까지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응원파의 불상은 시기적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量感이 매우 발달된 얼굴과 부드러운 손과 파도치듯 유려하게 묘사된 옷주름을 특징적으로 갖고 있다.

守衍派는 17세기 전반에는 전라북도를 근거지로 하여 충청도와 경기도, 황해도의 서부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17세기 후반에는 전라남도 일대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守衍派는 161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7세기 전반에는 守衍과 靈哲이 수화사로 불상을 조성하였으며, 17세기 후반에는 雲惠와 敬林이 수화사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연파 조각승들의 불상은 얼굴이 방형이며, 상체가 발달하였고, 두 다리 사이에 흘러내린 옷주름이 파도치듯이 입체적으로 처리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靈哲은 수연의 불상 양식을 이어 좀 더 세련시켰으며 입체적인 얼굴과 옷주름을 잘 표현하였다. 영철의 작품은 17세기 후반 가장 뛰어난 조각승의 하나인 雲惠로 이어졌는데, 운혜에 이르러 조각의 입체성과 실재성이 더욱 발달하였다. 운혜는 넓은 얼굴 안에 이목구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고, 옷주름도 매우 율동적이고 입체적으로 나타내었다. 운혜의 제자인 敬林은 영철의 작품 또는 운혜의 초기 작품에 가까워 날렵하고 경쾌한 묘사가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淸憲派는 1626년 처음 기록에 등장할 당시 이미 독립된 계파로서 성립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청헌이 수화사로서 불상을 가장 활발하게 조성한 시기는 1630년대와 1640년대였으며, 勝一·應惠·熙藏 등 청헌파를 계승한 조각승들은 1640년대부터 1670년대까지 17세기 후반기의 청헌파를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헌이 조성한 불상은 엄숙한 표정의 얼굴과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으며, 손을 발 위에 닿을 정도로 낮게 두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법은 승일과 회장 등 17세기 후반 청헌파 조각승들에게 계승되었다. 勝一은 현진, 청헌, 무염 등 당대의 유명한 대조각승들을 도와 次畫僧으로 많이 참여하였으며, 164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약 30여 년 동안 수화사로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승일은 ‘y’모양의 陽刻線으로 입체를 나타낸 귀와 좌우대칭의 곡선들로 이루어진 하반신의 옷주름이 특징이다. 熙藏은 17세기 조각승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불상을 조성하여 남긴 조각승으로, 청헌-승일-회장으로 이어지는 청헌파의 계보에 속한다. 불상의 측면을 매우 두텁게 조각하여 입체감을 강조하였고, 오른쪽 어깨

와 두 다리 사이에는 끝이 뾰족한 자신만의 독특한 옷주름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法靈派는 1610년대에 法靈이 수장으로 계파를 이루었으며, 17세기 후반에 惠熙와 祖能이 계승하여 수화사로서 활동하였다. 특히 이들 계파에서 조성한 불상에는 귀의 형태와 하반신 옷주름이 매우 특이하게 묘사되었다. 耳輪은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돌출하였으며, 두 다리 사이의 옷주름은 매우 깊이 파여 요철이 강한 특징이 있다. 혜희와 조능은 법령으로부터 수련을 받은 조각승들인데, 둘 사이에 인적 교류의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無染派는 무염, 해심, 도우를 중심으로 1630년대에서 1660년대까지 전라도일대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한 계파이다. 무염파가 조성한 불상은 팽팽한 양감이 강조된 얼굴과 신체, 그리고 양각과 음각을 함께 사용하여 입체감을 잘 표현한 옷주름 등이 특징이다. 17세기 후반 무염파를 계승한 海心은 스승인 무염의 작풍을 이어 1650년대에 무염파의 중요 불사를 책임 맡아 행하였던 반면, 도우는 1650년대 이후 무염파 조각승들과 공동 작업을 중단하고 희장과 조각승들의 도움을 받아 희장과 양식의 불상을 조성하였다.⁸⁾

色難派에 속하는 色難, 忠玉, 夏天이 제작한 불상은 오른쪽 어깨에서 가슴으로 늘어진 옷자락의 옷깃이 사선으로 접혀 있고, 끝부분이 완만하게 늘어진 U자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왼쪽 무릎을 덮은 소매자락은 무릎을 완전히 덮고 있어 다른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의 세부 표현과 차이가 있다. 그가 만든 불상양식은 후배와 제자들에 의하여 18세기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부표현이 생략되면서 도식화되었다.

進悅派는 속하는 조각승은 18세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계보이다. 진열이 어느 계보와 직접관련이 있는지 현재 알 수 없지만, 그의 스승인 自修와 같이 불상을 제작한 雲坦이 無染派에 속하는 敬性和 불상을 제작하여 無染派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進悅이 활동하던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같은 지역인 전라북도에 色難派의 주요 조각승인 一機가 활동하여 양자 간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진열은 이 시기 활동한 조각상과 달리 불상의 형태가 다양한데, 熙藏이나 色難이 제작한 불상의 세부 표현을 따르면서

8) 宋殷碩, 앞의 논문, pp.267~269.

도 하반신을 덮은 옷 주름이 S자형으로 펼쳐진 형태는 진열의 새로운 대의 표현이다. 진열의 제자 尙淨은 進悅이 제작한 불상 양식을 따르면서 대의 자락 사이사이에 연봉우리가 튀어 나오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도 封珰과 戒心이 제작한 불상에서 그대로 표현되었다.⁹⁾

그 밖에 한 계파를 설정할 수 있는 17세기와 18세기에 활동하였던 조각승들이 더 있으므로 앞으로 계파는 더 세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IV. 『造像經』의 복장내용과 조선후기 복장과의 비교

복장이란 불상의 내부에 넣는 신앙적 의미를 갖는 물건을 말한다. 이러한 복장을 불상에 넣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중국의 경우에 8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례(實例)는 중국의 송나라(宋代)부터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로 볼 때 그 기원은 766년에 조성된 경남 산청의 석남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南寺 石造毘盧遮那佛坐像)의 납석제호에 안치한 복장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까지 소급해서 보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불복장 예는 고려후기부터 보이고 있으며 조선시대 들어와서 유행하고 그 예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복장을 뒷받침하는 경전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알려진 조상경(造像經)이란 단행본은 1575년 전남 담양 용천사본(龍泉寺本)의 『조상경(造像經)』(일산 원각사소장), 1677년 전남 고흥 팔영산 능가사본(楞伽寺本)의 『관상의궤(觀相儀軌)』(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소장), 1720년 평안도 용강 화장사본(華藏寺本)의 『조상경(造像經)』(부산 대원정사 소장), 1746년 경북 상주 김룡사본(金龍寺本), 1824년 금강산 유점사본(楡岾寺本)의 『조상경(造像經)』(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소장),

9) 崔宣一, 앞의 논문, pp.188~189.

간기가 없는 필사본((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소장, 1888년경) 등 6본이 전래되고 있다¹⁰⁾.

이들 『조상경』은 겉표지의 책 제목이 4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내용은 거의 같다. 용천사본은 『大藏一覽經』, 능가사본은 『觀想儀軌』, 화장사본은 『華嚴造像』, 금릉사본과 유점사본, 필사본은 『造像經』이라고 그 이름을 겉표지에 적고 있다. 이러한 경들을 통칭해서 『조상경』이라고 하는데 복장물의 내용과 의식이 일목요연하게 잘 편집되어 있다.

복장물은 후령통을 밖에서 감싸고 있는 외형물과 후령통을 포함하여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복장물의 안립(安立)은 후령통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황초복자로 후령통을 감싸면 끝난다. 복장의 절차에 대해 『조상경』의 묘길상대교왕경(妙吉祥大教王經)에 「후령통내안립차제(喉鈴筒內安立次第)」와 「황초폭자내안립차제(黃綃幅子內安立次第)」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¹¹⁾.

1. 복장물 구성요소

『조상경』에 따르면 복장물 구성요소는 아주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조선시대에 불복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오방병(오보병) 내용물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의 五方瓶에 들어갈 내용물은 다음과 같다.

東：方鏡 青綃暗輪 報身字 化身字 青綃輪字 青色瑪瑙寶瓶 大麥 生金 人蔘 青木香 大黃 蒔蘿青芥 青色幡 青線 青時花 青樹葉 矩舍草 青芥 青帛杵
南：三角鏡 紅綃噴輪 報身字 化身字 紅綃輪字 黃色摩尼寶瓶 稷 眞珠 甘草 丁香 雄黃 紫芥 紅色幡 紅線 紅時花 楸樹葉 摩訶矩舍草 紅蓋 紅帛杵

10) 태경스님 역저, 『조상경(造像經)』, 운주사, 2006, pp.21~22.

11) 崔仁善, 「康津 玉蓮寺 木造釋迦如來坐像과 腹藏」, 『文化史學』 창간호, 1994, p.142~143.

西：圓鏡 白絹鑊輪 報身字 化身字 白絹輪字 紅色珊瑚寶瓶 稻 生銀 柱心 藿香 小黃
白芥 白彩幡 白線 白時花 夜合樹葉 室利矩舍草 紅蓋 白帛杵
北：半月鏡 黑絹叶輪 報身字 化身字 黑絹輪字 緣色琉璃寶瓶 綠豆 琉璃 阿梨 沈香 雌
黃 蔓菁芥子 黑彩幡 黑線 黑時花 梧桐樹葉 苾芻矩舍草 緣蓋 黑帛杵
中：圓鏡 黃絹坎輪 報身字 化身字 黃絹輪字 白色水晶寶瓶 麻子 琥珀 附子 乳香 牛黃
黃芥 黃彩幡 黃線 黃時花 聖樹葉 悉黨矩舍草 白蓋 黃帛杵

오방병에 들어갈 물목은 각 병에 19개씩 모두 95가지이며, 병까지 합하면 총 100가지이다. 이 물목들이 조상경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가운데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각 방위색의 瓶, 五寶, 五穀 정도이며, 다른 물목들은 구분하기가 어렵다.

(2)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白絹金書若干(흰 비단에 금으로 약간 쓴다) 唵縛日羅(二合)婆舍迦哩誡那□羅吽(옴 바즈라 바사가리 가나맘라 흠)

生紙書諸梵書若干 佛腹盛滿爲限(생지에 모든 범서를 약간 쓴다. 불복을 채워 가득할 정도로 한정한다)

이 보협주를 보협인타라니경(寶篋印陀羅尼經) 혹은 보협인심주경(寶篋印心呪經)이라고도 하며 구명(具名)으로는 일체심여비밀전신사리보협인타라니경(一切心如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이며 당(唐)의 불공(不空)이 번역한 것이다. 그 내용은 40구로 된 보협인타라니(寶篋印陀羅尼)의 공덕을 설하고 있으며, 이 주문(呪)을 송독(誦讀)하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극락에 가게 되고, 병자는 쾌유하여 수명을 연장하게 하고, 빈궁한 사람은 무량의 복덕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현재까지도 진언종·천태종(眞言宗·天台宗)에서는 삼대타라니(三大陀羅尼)의 하나로서 언제나 이것을 송지(誦持)하고 있다¹²⁾.

이 다라니경은 목판으로 만들어 주로 朱色과 검정색으로 인쇄하여 많은 매수를 복장

12) 趙明基, 「寶篋印陀羅尼經」, 『考古美術』 3卷 6號, 1962.

에 매납하고 있다.

(3) 兩面圓鏡

二介 一介筒內五瓶底安之 一介五瓶口覆之(2개이다. 1개는 통 안 오병 바닥에 그것을 안치하고, 1개는 오병 입구에 그것을 덮는다)

조선시대의 복장물 가운데 양면원경은 대부분 청동으로 둥글게 만들어 후령통 바닥과 위에 놓고 있다.

(4) 五色線

長十尺 隨方色係五瓶口 畢竟合爲一絡 上出喉鈴筒八葉盖口 又穿出八葉大紅蓮中央 又穿天圓中央畢竟 又上出黃綃幅子外 橫豎環結後 以准提呪豎裏 以法印呪橫緘 證明某 謹封 (길이 10척을 방향의 색에 따라 오보병 입구에 걸어서 마칠 때는 합하여 하나의 실이 되게 한다. 후령통팔엽 뚜껑 입구로 나오게 한다. 또한 팔엽대홍련 중앙을 뚫어 나오게 한다. 또한 천원의 중앙을 뚫어 마친다. 또한 위로는 황초복자 밖으로 나오게 하여, 가로 세로로 돌려 묶은 후에, 준제주로 세로로 안을 싸고, 법인주로서 가로로 묶어 함봉하고, 某가 삼가 봉함을 증명한다)

五色線은 五色絲를 말하는데 (東) 青色 (南) 紅色 (西) 白色 (北) 黑色 (中) 黃色 등 오색의 실이다. 대부분의 오색사들은 그 색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색이 바래있는 경우가 많다.

(5) 黃綃幅子

一 方一尺五寸許也(사방 1자 5척이면 된다)

황초복자는 후령통을 감싸는 노란보자기를 말한다. 조상경에는 ‘方一尺五寸許也(사방

1자 5척이면 된다)’라 하여 형식이 사각형이고 그 크기만 기술하고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색이 노란 사각형 비단 종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6) 願文

一度 青綃紅書 證明諸師 宰匠 給侍 檀越 緣化 見聞隨喜助演者 ——備書爲可也(원문 하나, 푸른 생명주에 붉은 글씨로 모든 스님, 만든 사람, 심부름한 사람, 시주한 사람, 인연이 있는 사람, 보고 듣고 따라 기뻐하여 도운 사람들을 증명하는 것은 낱낱이 준비하여 쓰는 것이 옳다)

이 원문은 ‘發願文’, ‘造像記’, ‘造像記文’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원문은 푸른색 명주에 붉은 글씨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한지에 필사한 발원문이 더 많다.

(7) 喉鈴筒

具八葉蓋 蓋上中央筒喉穴 筒體形可容五瓶許造之 塑像用圓筒 畫幀用方筒 筒外四面 書四方呪表四方 開筒隨四方位書真心種子 慎勿差謬方位也(팔엽개를 갖춘 뚜껑의 중앙에 구멍을 통하게 만든다. 후령통은 통 모양으로 五瓶이 들어갈 정도로 만든다. 塑像 즉 불상의 후령통은 圓筒(등근 통)을 쓰고, 幀畫 즉 불화의 후령통은 方筒(네모진 통)을 사용한다. 통 밖의 사면에는 四方呪(아미라하라고 범어로 씀)를 써서 사방을 표시한다. 통의 뚜껑은 사방위를 따라 진심종자를 쓴다. 방위에 차이나 오류가 없도록 조심한다)

후령통의 뚜껑은 팔엽개를 갖추고 뚜껑의 중앙에 구멍을 만든다고 하였다. 그리고 『조상경』에 의하면 후령통 모양은 불상일 경우 원통 즉 원형으로 만들고, 불화의 경우 방통 즉 사각형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그런데 錦海瓊英(1856~1937)이 지은 『腹藏眞言』(1919년)집의 「腹藏諸種物目圖本」에 의하면 “塑像則用圓筒 畫幀則方筒也 方圓不妨”이라 하여 사각형이든지 원형이든지 상관없다는 표현이 있어 주목된다.

조선후기의 불상 후령통은 대부분 원형이며, 그 재료는 청동이 가장 많고 竹製(영광 불갑사 팔상전 목조나한상, 1706년), 紙製(온양민속박물관 소장 木造大勢至菩薩坐像, 1788년) 등도 간혹 보이고 있다. 후령통의 크기는 5~15cm 내외로 작은 편이며, 지금까지 발견된 후령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은 完州 松廣寺 極樂殿 소조삼신불좌상의 후령통으로 높이 32.8cm, 지름 13.5cm이다.

(8) 五方鏡

(東) 方鏡 (南) 三角鏡 (西) 圓鏡 (北) 半月鏡 (中) 圓鏡

若無金銀 代以好紙造成也 四方鏡 筒外隨方懸之 中方鏡 筒底安之 然安能懸之膠粘則無妨也(만약에 금이나 은이 없으면 좋은 종지로 대신하여 만든다. 사방경은 통 밖에 방위에 따라 걸고, 중방경은 통 바닥에 놓는다. 그러나 안치할 때 아교로 붙여 걸리게 하여도 무방하다)

조선시대 복장물을 보면 오방경은 후령통의 4곳에 놓고 오색사로 묶은 경우가 많으며 나머지 1경은 후령통 밑에 놓는다. 조상경에서는 아교로 붙여도 무방하다고 하였으나 조선후기 대부분의 경우 오색사로 묶어 놓았다.

(9) 五方瓶(五寶瓶)

(東) 青色瑪瑙寶瓶 (南) 黃色摩尼寶瓶 (西) 紅色珊瑚寶瓶 (北) 綠色琉璃寶瓶 (中) 白色水晶寶瓶

若無七寶 代以五色紙造成 其形二寸半許造之也 此寶瓶五方色易位 則圓融耶(만약에 칠보가 없으면 오색지로서 조성한다. 그 모양은 두치 반 정도로 만든다. 이 보병의 오방색은 위치를 바꾸면 원융하지 않은가)

오방병은 후령통과 같은 모양 즉 즉 원형으로 만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삼배와 같은 천으로 오방병을 만든 경우가 조선 후기에 많이 보이고 있다.

2. 복장물 안립절차

복장물은 후령통을 밖에서 감싸고 있는 외형물과 후령통을 포함하여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복장물의 안립은 후령통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황초복자로 후령통을 감싸면 끝난다. 복장의 절차에 대해 『조상경』의 妙吉祥大教王經¹³⁾에 「喉鈴筒內安立次第」와 「黃綃幅子內安立次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 후령통 내의 안립절차

喉鈴筒內安立次第

先安五輪種子 次安真心種子 次安報身呪 次安准提呪 次安兩面圓鏡 次安五寶瓶 次安舍利盒中有舍利七粒 次安無孔心珠 次以兩面圓鏡覆五瓶口 以其繫瓶口五色線合之拔出於筒蓋 喉鈴穴然後筒蓋閉之 筒底安中方圓鏡 次以地方 抱裹於筒 詳審方位 次以八葉蓮仰面天圓下覆 而以五色線貫穿蓮華天圓之上 以天圓抱裹地方之外 令天抱地外 然後以黃綃幅子畢封也(후령통 안을 안립하는 절차 : 먼저 오륜종자를 놓고 그 다음 차례로 진심종자, 보신주, 화신주, 준제주, 양면원경(1), 오보병, 사리 일곱알이 든 사리합, 무심공주를 놓는다. 다음에 양면원경(2)으로 오보병의 입구를 덮고 각 오보병의 입구에 매어진 오색실을 오보병 전체의 입구에서 하나로 합하여 후령통의 뚜껑으로 뽑아낸다. 그러한 후에 후령통의 뚜껑을 덮고 통 밑에 중방원경을 놓는다. 이어서 지방으로 후령통을 싸는데 이 때 방위를 잘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팔엽연의 윗면이 천원의 아래로 가게 한 다음 오색실로 연화와 천원을 관통하게 하고 하늘이 지표면을 감싸듯이 천원으로 지방을 감싼다. 그리고 난 후 황초복자로 쓴다.)

(2) 황초복자 내의 안립절차

黃綃幅子內安立次第

13) 중국 오대역경승의 한 사람인 慈賢(중인도 마갈타국인, 생몰연대 미상)이 譯하였으며, 고려시대에 전래되었다.

黃綃幅子內 先安願文 次寶篋呪 次安天圓地方所裏喉鈴筒 以黃綃幅子包裹 竝以幅子頭及五色線合 而回之曲着於背 後因以五色線半回豎裏半回橫裏 線盡然後 以准提呪豎封 以法印呪橫封 於南面證明 稱臣謹封 後 奉安於壇上 誦呪法師 念不動尊眞言 加持一百八遍(황초복자 안을 안립하는 절차 : 황초복자(노란보자기) 안에는 먼저 원문을 놓고 다음에 보협주(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를 놓는다. 그 다음에 천원과 지방으로 겹을 싼 후령통을 놓고 황초복자로 감싼다. 보자기의 끝과 오색선을 합하여 빙 둘러 뒤에서 묶고, 남은 오색선으로 반은 돌려 세로로 묶고 반은 돌려 가로로 묶는다. 실이 다하고 나면 준제주를 세로로 봉하고 법인주를 가로로 봉한 다음 남면에다가 ‘臣 아무개가 삼가 봉한다’고 쓴다. 그 후에 의식단상에 봉안하고 송주법사는 不動尊眞言을 염하여 일백팔편을 가지 한다.)

위의 기록을 보면 복장절차는 후령통 내의 밑에서부터 차례로 오륜종자, 진심종자, 보신주, 화신주, 준제주, 양면원경(1), 오보병, 사리일곱알이 든 사리합, 무심공주를 놓는다. 다음에 양면원경(2)으로 오보병의 입구를 덮고 각 오보병의 입구에 매어진 오색실을 오보병 전체의 입구에서 하나로 합하여 후령통의 뚜껑으로 뽑아낸다. 그러한 후에 후령통의 뚜껑을 덮고 통밖에 사방주를 달고 통 밑에 중방원경을 놓는다. 이어서 지방으로 후령통을 싸는데 이 때 방위를 잘 살펴야 한다. 다음으로 팔엽연(팔엽대홍련)의 윗면이 천원의 아래로 가게 한 다음 오색실로 연화와 천원을 관통하게 하고 하늘이 지표면을 감싸듯이 천원으로 지방을 감싼다. 그리고 난 후에 보협주와 푸른 비단에 朱書한 원문을 놓고 노란보자기인 황초복자로 모든 내용물을 감싼다. 보자기의 끝과 오색선을 합하여 빙 둘러 뒤에서 묶고 남은 오색선으로 반은 돌려 세로로 묶고 반은 돌려 가로로 묶는다. 실이 다하고 나면 준제주를 세로로 봉하고 법인주를 가로로 봉한 다음 남면에다가 臣 아무개가 삼가 봉한다고 쓴다. 이와같은 순서가 복장물을 安立하는 모든 절차이다.

V. 맺음말

조선시대 조각사의 분기점은 임란이란 커다란 국난을 그 분기점(1600년)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불상은 그 이전시기와 분명히 양식적으로 차이가 있고, 불상 제작에 스님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계파가 형성되어 활동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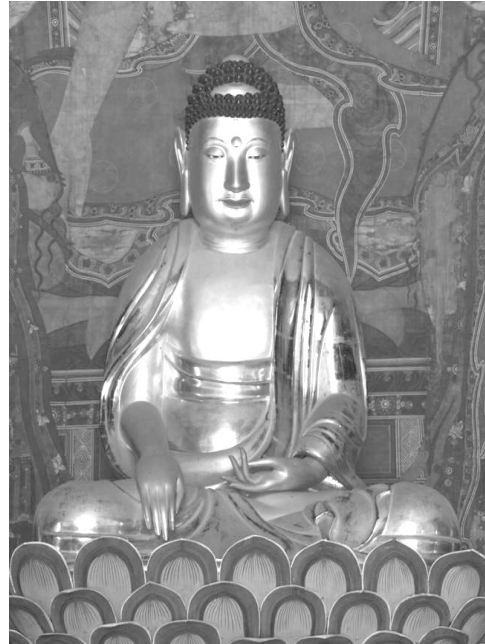
조선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은 각 계파별로 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크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계승 발전하고 있는 점도 있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여 각 계파 형성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아울러 각 계파들의 조각적 특징도 거론하고 있다. 계파 문제는 계속해서 자료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세분화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상의 복장물은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금 등을 할 때에 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복장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불상 연구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원문을 비롯한 몇 가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복장에서 나온 전체적인 유물들을 포함해서 자세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시의 공예 수준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행위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의 불상 자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각각의 불상과 불상을 조성한 그룹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므로 머지 않아 조선후기 불상에 대한 이해가 더 분명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도 1〉 송광사 광원암 목조아미타불좌상
1624년, 應元 作



〈도 2〉 여수 흥국사 대웅전 본존상, 印均 作
송정연간(1628~1644)



〈도 3〉 하동 쌍계사 대웅전 본존불, 1639년, 청헌 작



〈도 4〉 창녕 관룡사 목조삼세불, 1629년, 현진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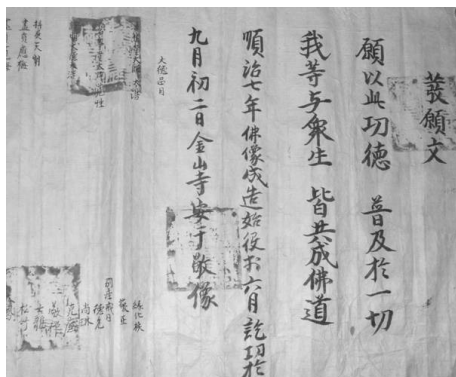
〈도 5〉 군산 동국사 소조삼존불좌상
應梅 作, 16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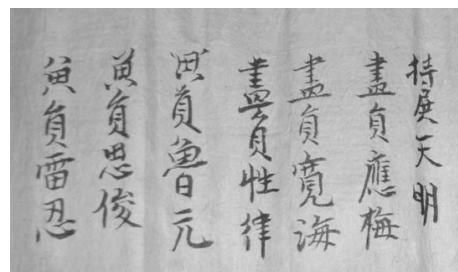
〈도 6〉 금산사 대장전 봉안 모습(1910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원판



〈도 7〉 동국사 발원문



〈도 8〉 발원문 앞 부분



〈도 9〉 발원문 畫員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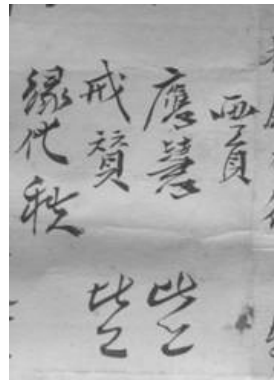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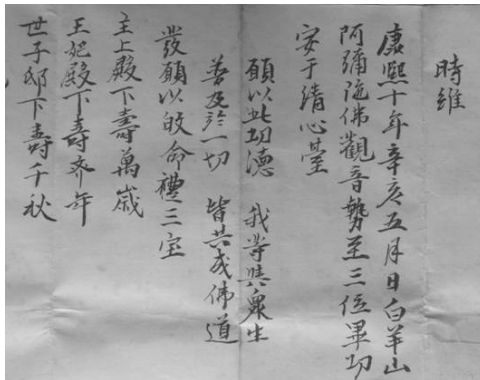
〈도 10〉 신안 일심사
목조보살좌상, 1672년, 응혜 작



〈도 11〉 제주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1672년, 응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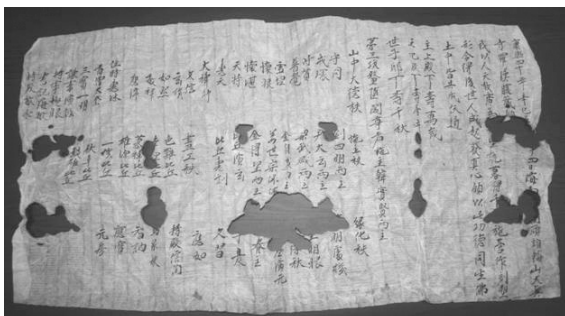
〈도 12〉 광양 무등암
목조보살좌상, 1678년, 응혜
작(原 하동 쌍계사 소은난야)



〈도 13〉 일심사 보살상 발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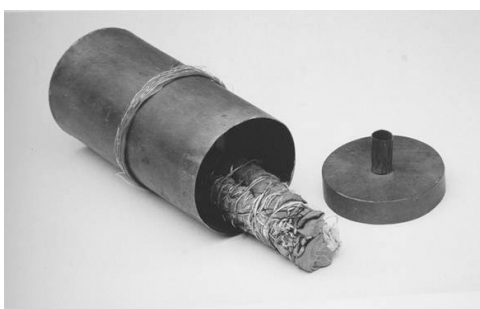
〈도 14〉 해남 대흥사 응진전 목조삼존불, 1702년, 色難 作



〈도 15〉 대흥사 응진전 삼존불 발원문



〈도 16〉 발원문 가운데 화공질 부분



〈도 17〉 후령통



〈도 18〉 오보병



〈도 19〉 신안 일심사(1671년, 應惠) 오보병 내용물



〈도 20〉 황초복자

彫刻僧 色難의 활동과 佛像樣式

崔 宣 一*

I. 머리말

II. 彫刻僧 色難 作 紀年銘 佛像

1. 1680년대 기년명 불상
2. 1690년대 기년명 불상
3. 1700년대 기년명 불상

III. 彫刻僧 色難派의 활동과 불상양식

1. 色難의 활동
2. 色難 作 불상양식의 변천
3. 色難派 조각승의 활동과 기년명 불상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연구는 불상을 만든 개별 조각승의 활동과 그 계보 및 불상양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 이러한 僧侶匠人(이하 僧匠)에 대한 접근은 조선후기에 활동한 佛畫僧 義謙과 鑄鐘匠 思印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후,²⁾ 이를 바탕으로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1) 崔宣一, 「朝鮮後期 彫刻僧의 활동과 佛像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6. 8

宋殷碩,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7.2.

2) 조선후기 주종장과 불화승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安貴淑, 「朝鮮後期 鑄鐘匠 思印比丘에 관한 研

17세기 후반에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 色難(色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본격화 되었다.³⁾ 최근 조선후기에 불상을 제작하거나 중수·개금에 참여한 僧匠과 주도적인 역할을 한 首畫僧에 관한 기초 자료까지 정리되었다.⁴⁾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조선후기에 활동한 조각승 가운데 기년명 불상과 문헌기록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인물이 色難이라는 것이다. 그와 관련된 연구논문은 6편이 발표될 정도로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한 획을 긋는 彫刻僧이다.⁵⁾ 따라서 2000년에 발표한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재 지정조사와 사찰문화재 전수조사를 계기로 밝혀진 불상과 문헌을 통하여 色難의 활동과 불상양식 및 변천까지 접근해 보겠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불상을 제작한 색난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의 불상양식과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들이 만든 불상과 비교하여 지역적인 차이까지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무기년명 불상 가운데 색난파가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불상에 대하여 접근하여 보겠다.

본 논문에서는 조각승 色難이 제작한 기년명 불상을 시기별로 나누어 형식적인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은 색난이 제작한 불상의 변천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함이다. 그리고 색난이 제작한 불상과 사적기 등의 문헌 기

究], 『佛敎美術』 9, 1988, pp.128~181과 安貴淑, 「朝鮮後期 佛畫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대한 研究(上)」, 『미술사연구』 8, 1994, pp.63~137 및 安貴淑, 「朝鮮後期 佛畫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대한 研究(下)」, 『미술사연구』 9, 1995, pp.153~201 등이다.

3) 최선일,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미술사연구』 14, 2000, pp.35~62.

4) 崔宣一, 『朝鮮後期僧匠人名辭典 - 佛敎彫塑 -』, 養士齋, 2007.

5) 金理那,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조선시대 가섭존자상」, 『미술자료』 33, 국립중앙박물관, 1982. 12, pp.59~65.

崔仁善, 「康津 玉蓮寺 木造釋迦如來坐像과 腹藏」, 『文化史學』 1, 한국문화사학회, 1994. 6, pp. 129~158.

崔宣一, 「日本 高麗美術館 所藏 朝鮮後期 <木造三尊佛龕>」, 『미술사연구』 16, 2002, pp.137~155.

吳珍熙, 「조각승 色難派와 華嚴寺 覺皇殿 七尊佛像」, 『講座 美術史 - 미술사의 작가와 유파 I』 26, 韓國佛敎美術史學會, 2006, pp.113~138.

송은석, 「고흥 능가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 사회평론, 2006, pp.176~197.

록을 통하여 그의 활동과 불상양식을 검토하여 보겠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색난파에 속하는 개별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양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彫刻僧 色難 作 紀年銘 佛像

현재까지 조사된 色難이 제작한 불상은 1680년에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을 시작으로 총 13건, 백 여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불상이 남아있는 것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그가 불교조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1. 1680년대 기년명 불상

(1) 1680년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광주광역시 덕림사 지장전에 봉안된 목조지장보살좌상은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의 일부가 공개되었지만, 당시에 조각승이나 후원자에 관한 관심이 적어 緣化秩과 施主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⁶⁾ 필자는 이 불상을 색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고,⁷⁾ 2005년에 광주광역시 지방문화재 지정조사를 계기로 발원문의 내용이 공개되었다. 발원문의 주요 내용은 “地藏大聖造成願文 康熙十九年庚申夏化主守閭和南謹封 ... 於仲夏之晦奉安靈鳳寺勝因已就願無量海 ... 緣化秩 證明 玉念 首工 色難 道軒 冲玉 慕賢 惠察 皎一 釋宗 得牛 楚卞 進機 性訓 ...”으로, 1680년에 色難, 道軒, 冲玉, 慕賢, 得牛, 楚卞 등이 전남 화순 靈鳳寺에 지장보살상 등을 제작하였다.⁸⁾

6) 朴春圭·千得琰, 『光州의 佛蹟』, 光州直轄市 郷土文化開發協議會, 1990, pp.244~246.

7) 최선일,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미술사연구』 14, 2000, p.53.

목조지장보살좌상의 크기는 높이가 99.5cm이고, 무릎 폭이 70cm인 중형불상이다(圖 1). 지장보살좌상은 민머리의 성문비구형으로, 약간 상체를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다. 각이진 얼굴에 눈 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반쯤 뜬 눈, 원통형의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표현하였다. 두꺼운 大衣는 단정하게 목주위에 옷깃이 한 번 접혀있고, 오른쪽 어깨에 걸쳐 팔꿈치 뒤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 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편삼과 겹쳐져 있다. 허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가장 안쪽 자락이 완만하게 펼쳐지고, 소매 자락은 왼쪽 무릎 밑을 완전히 덮은 연판형으로 처리되었다. 이와 같은 소매 자락은 1648년에 印均이 제작한 전남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에서 볼 수 있다. 대의 안쪽에 입은 僧脚崎는 가슴까지 올려 끈으로 묶어 도식화 된 5개의 蓮瓣形 주름으로 접혀 있다. 따로 만든 두 손은 佛身의 손목에 끼워 넣었고, 수인은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린 오른손과 허벅지 위에 자연스럽게 놓은 왼손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2) 강진 옥련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좌상과 강진 정수사 나한전 목조나한상

전라남도 강진군 옥련사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여래좌상과 정수사 나한상은 1990년대 복장조사가 이루어졌다.⁹⁾ 발원문의 중요 내용은 “新造像記文 其惟阿羅漢數歲在甲子之春山之衲明彦其名者有志新構聖殿 ... 康熙二十三年歲在甲子南至月下澣雲溪寒衲天機記 ... 良工秩 上工 色難 副工 道軒 次工 行坦 慕賢 楚卞 雄遠 哲玉 道見 文印 緣化秩 證明 性元 泰儀 應眼 ...”으로, 1684년에 明彦이 정수사 나한전을 새로 만든 후, 玲運이 발원하여 色難, 道軒, 行坦 등이 불상을 제작하였다. 현재 본존은 1951년에 강진 옥련사 대웅전으로 옮겨졌고, 나한상은 조성사찰인 정수사 나한전에 봉안되어 있다.

목조석가불좌상은 높이가 86cm, 무릎 폭이 56cm인 중형불상이다(圖 2). 앞으로 숙인 머리는 螺髮이 촘촘하고, 肉髻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며, 머리 정상부에 원통형의 頂上

8)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 사진은 전남도청 정경성 선생님의 厚意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사찰문화재 전수 조사를 통하여 사진과 원문이 학계에 공개되었다(『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전남 I · II · III』,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 圖 14).

9) 최인선, 「康津 玉蓮寺 木造釋迦如來坐像과 腹藏」, 『文化史學』 1호, 1994, pp.129~158.

髻珠와 이마 위에 반원형의 中間髻珠(○)가 있다. 두꺼운 대의는 변형통견으로, 대의자락은 오른쪽 어깨에서 반달모양으로 걸친 후 팔꿈치와 腹部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다른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다. 불상의 뒷모습은 목 주위에 대의 끝단을 둘렀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오른쪽 대의 끝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오른손은 觸地印을, 팔목에 “釋迦”라는 명문이 적힌 왼손은 다리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손바닥을 펴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형태를 하고 있다.¹⁰⁾ 전체적으로 강진 옥련사 불상은 1680년에 제작된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身體比例, 印象, 大衣와 僧脚崎 처리 등이 유사하다.

정수사 나한전에 봉안된 16나한상은 바위 위에 結跏趺坐, 半跏坐, 遊戲坐, 椅子坐 등의 다양한 자세로, 해태와 코끼리 등을 잡거나 경전을 들고 있다(圖 3). 얼굴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각이진 얼굴에 눈 꼬리는 약간 위로 올라간 눈, 원통형의 코, 어깨까지 내려온 귀, 미소를 머금은 입 등이 강진 옥련사 불상과 같다. 나한상의 착의를 보면 장삼 위에 가사로 왼쪽 어깨를 덮은 방식은 동일하지만, 장삼 안쪽에 內衣를 입은 상과 입지 않은 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대부분의 나한상이 얇은 바위 위에 가사 끝자락이 늘어져 옷 주름선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

(3) 1685년 고흥 능가사 응진전 목조석가삼존상과 목조나한상

전라남도 고흥군 능가사 팔상전 불상은 필자가 이전에 색난이 만든 것으로 추정하였다.¹¹⁾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의 중요 내용은 “新造成一如來六菩薩十六大阿羅漢二九童子二使者二帝釋兩金剛諸端嚴相記願 康熙乙丑六月日南閩浮提朝鮮國全羅道興陽縣八影山楞伽寺比丘尙機發大願生大信募諸檀那求諸妙工敬造 本師釋迦如來相與提花彌勒迦葉阿難文殊普賢六大菩薩及大阿羅漢十六帝釋二童子二九監齋直符二使若左右金剛諸端嚴相奉安... 康熙二十四年乙丑六月日秀演謹記 懶忍謹書 ... 寺中秩 大禪師 正玄靈駕 大禪師 信熙靈駕 禪師 圓日靈駕 ... 金魚 首 色難 道軒 順瓊 幸坦 楚祐 慕善 楚卞 得祐 徹玉 雄遠 文印 載軒 持殿 得俊 證師 玉念 ... 大功德主 前行判 尙機”으로, 1685년에 色難, 楚祐, 徹玉,

10) 최인선, 위의 논문, p.131.

11) 최선일,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미술사연구』 14, 2000, p.53.

道軒, 慕善, 雄遠, 順瓊, 楚卞, 文印, 幸坦, 得祐 등이 불상을 제작하였다.¹²⁾ 발원문의 寺中秩에 중창주인 碧川正玄의 이름 뒤에 靈駕가 표시되어 불상을 제작하기 2~3년 전에 그가 열반에 들었음을 알 수 있다.¹³⁾

목조석가여래좌상의 크기는 높이가 104cm, 무릎 폭이 69.5cm인 중형불상이다(圖 4). 불상과 나한상은 1684년에 강진 옥련사 목조여래좌상과 같은 模本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양식적으로 동일하지만, 얼굴의 표정과 신체비례가 인체에 더 가깝다. 협시보살상은 본존과 동일한 형태로 조각되었고, 머리에 화려한 寶冠과 양손에 연화가지를 든 것이 다르다(圖 5).

목조가섭존자상은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깍지를 낀 자세로 장삼과 가사를 걸치고 있다(圖 6). 그러나 장삼과 가사에는 새롭게 改彩되어 고풍스러운 멋이 사라졌고, 가사는 붉은 색에 노랑색으로 선을 그려 대조를 이루는 마름모 모양으로 처리하였다. 어깨를 덮은 가사와 장삼은 손목에서 길게 늘어지고, 왼쪽 어깨에서 대각선으로 걸친 장삼은 무릎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다리 사이로 늘어진 옷단의 중간이 둥글게 뒤집혀 있어 주목된다. 아난존자상은 얼굴형, 손의 자세, 의습 표현에서 가섭존자상과 같지만, 젊은 얼굴에 정수리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은 점이 다르다. 이외 16나한상은 강진 정수사 나한상들과 같이 다양한 동물이나 경전을 들고 바위에 앉아 다양한 자세를 하고 있다(圖 7).

(4) 1689년 일본 교토 고려풀관 소장 목조아미타삼존불감

일본 京都 高麗美術館에 소장된 목조불감은 2004년에 필자가 복장 조사를 하였다.¹⁴⁾ 불상의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의 내용은 “願文 造像之緣 始自何人之作而出也 ... 康熙 二十八 己巳二月日 ... 巧匠通政大夫 色難 得牛 雄遠 證明 性元 ...”으로, 1689년에 色難,

12) 이 불상은 2004년 4월에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스님이 복장을 조사하였고, 필자는 2006년 1월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 내용을 볼 수 있었다.

13) 능가사 대웅전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 중 1639년에 운혜가 불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았지만(『楞伽寺 大雄殿 實測調査報告書』, 文化財廳, 2003, pp.67~68). 벽천정현의 활동과 비교하여 발원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己卯六月을 乙卯六月으로 잘못 읽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운혜의 활동시기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1650년부터 1680년까지이다.

14) 崔宣一, 「日本 高麗美術館 所藏 朝鮮後期 <木造三尊佛龕>」, 『미술사연구』 16, 2002, pp.137~155.

得牛, 雄遠이 불감을 제작하였다.

목조삼존불감은 전체 높이가 48.5cm로, 中龕에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側龕에 관음과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였다(圖 8). 본존인 아미타불은 전체 높이가 37.0cm로 蓮花줄기가 달린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자세를 하고 있다(圖 9). 앞서 살펴본 색난이 제작한 불상과 전체적인 형태는 동일하지만, 크기가 작아 의습 처리 등이 생략되었다. 側龕에 들어 있는 보살은 寶冠에 각각 化佛과 淨瓶이 표현되어 관음과 대세지보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음보살은 높이가 31.0cm로 둥근 얼굴에 높은 보관을 쓰고, 보관 밑에는 짧은 細線으로 머리카락을 새겼으며, 어깨 뒤로 치레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얼굴의 耳目口鼻와 手印은 아미타불과 같지만, 어깨가 좁으면서 신체에 비하여 머리가 큰 편이다. 신체에 걸친 대의는 본존과 같이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고 있다. 대좌는 仰蓮과 伏蓮으로 이루어진 二重蓮花臺座로 끝부분에 내부 바닥에 끼울 수 있는 작은 꼭지가 달려 있다. 이 목조불감과 동일한 형태의 유물이 1689년에 색난이 제작한 서울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 木造地藏三尊佛龕(圖 10)¹⁵⁾과 작자 미상의 단양 救仁寺 소장 목조아미타삼존 불감 등이 있다(圖 11).¹⁶⁾

2. 1690년대 기년명 불상

(1) 1693년 구례 천은사 응진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나한상

전라남도 구례군 천은사 응진전 불상은 色難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었고(圖 12),¹⁷⁾

15) 이 불감은 2004년 특별전(『衆生の 念願』, 한국불교미술박물관, 2004, 圖 16)에 공개되어 필자가 학예실에 발원문 사진이나 복사본의 실견을 문의했지만, 박물관 측에서 먼저 조사한 연구자가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들었다. 이후 색난이 제작한 불감이라는 의견을 계진하였고(최선일, 「조선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연구」, p.100), 최근에 불감 조성에 참여한 조각승이 알려졌다(吳珍熙, 「水落山 念佛寺 木 觀音菩薩坐像 考」, 『講座 美術史』 29, 2007.12, p.111 註5).

16) 이 불감은 본존의 인상과 대의처리 등을 바탕으로 1690년을 전후하여 색난이 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

17) 최선일,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미술사연구』 14, 2000, p.55.

최근 발원문 조사를 통하여 1693년에 色難, 幸坦, 得牛, 雄遠, 文印, 執森, 秋鵬, 秋評이 불상을 제작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¹⁸⁾

목조석가여래좌상의 크기는 전체 높이가 89cm, 무릎 폭이 68cm로, 앞서 살핀 1680년에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684년에 강진 옥련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85년에 고흥 능가사 응진전 목조석가여래좌상과 전체적인 신체비례와 耳目口鼻의 처리 및 대의를 걸친 방식이 동일하다.

(2) 1694년 화순 쌍봉사 목조석가삼존불상과 목조아미타불좌상

전라남도 화순군 쌍봉사 대웅전은 1984년 4월 3일 소실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내부에 봉안되었던 목조석가삼존상은 화재 시에 한 농부가 구했다고 한다.¹⁹⁾ 극락전에 봉안된 목조아미타불좌상 대좌 밑바닥에 묵서의 주요 내용은 “... 康熙三十三戊戌 ... 彌陀殿 彌陀左右觀音大勢至菩薩 三層寶殿釋迦阿難迦葉尊者奉安 ... 金魚秩 色蘭 慕賢 得牛 雄遠 執森 秋鵬 秋評 ... ”으로, 1694년에 色難, 慕賢, 得牛, 雄遠, 執森, 秋鵬, 秋評이 彌陀殿의 阿彌陀佛과 大雄殿의 釋迦佛을 제작하였다.²⁰⁾

목조석가불좌상의 크기는 높이가 123cm, 무릎 폭이 80.5cm이다(圖 13). 불상의 인상과 착의법은 1680년에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684년에 강진 옥련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85년에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93년에 구례 천은상 목조석가여래좌상과 거의 유사하지만, 무릎의 높이가 낮아져 인체비례를 따르고 있다. 본존과 같이 제작된 가섭존자는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각지를 낀 자세로 長衫과 袈裟를 걸치고 있다(圖 14). 어깨를 덮은 장삼은 손목에서 길게 늘어지고, 왼쪽 어깨에서 사선으로 걸친 장삼이 무릎까지 내려와 있다. 다리 사이로 늘어진 옷단이 둥글게 뒤집힌 표현은 1685년에 고흥 능가사 응진전 가섭존자상에서 볼 수 있었다.

극락전에 있는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전체 높이가 165cm로 中品下生印을 걸하고 있다(圖 15).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좌상에 비하여 어깨가 벌어져 당당하고, 대의 안쪽에 편삼

18) 吳珍熙, 「水落山 念佛寺 木 觀音菩薩坐像 考」, 『講座 美術史』 29, 2007.12, pp.67~68.

19) 대한불교조계종, 『사자산 쌍봉사』, 무돌, 1995, pp.27~28.

20) 최선일,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미술사연구』 14, 2000, p.52.

을 입어 석가불과 착의법이 다르게 표현되었다. 협시보살입상은 1989년에 도난당해서 근래에 새로 제작해 봉안하였다.²¹⁾

(3) 1698년 제주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개금

제주도 제주시 관음사에 봉안된 목조보살좌상 내부에서 발원문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발원문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1698년에 전라남도 해남 성도암에서 조각승 色難 등이 이 보살상을 개금한 내용이다.²²⁾ 이 보살상은 대흥사로 옮겨졌다가 1908년에 제주 관음사를 재건한 안봉려관 스님에 의하여 현재 위치로 옮겨 봉안되었다.

목조보살좌상의 전체 높이는 75cm로, 전체적인 형태와 대의 처리에서 1685년에 고흥 능가사와 1693년에 구례 천은사 보살상과 동일하여 1690년을 전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圖 16).

(4) 1699년 개인소장 목조여래좌상

개인 소장의 목조여래좌상은 2001년에 서울 마이아트 경매에 출품되면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은 “願佛 阿彌陀佛像造成大施主慈敬 增福永壽之願 證明 守和 持殿 鏡玲 匠手 色難 冲玉 雄遠 一機 ... 大化主 性能 康熙二十六年乙卯五月十三日”로, 1699년에 色難, 冲玉, 雄遠, 一機가 불상을 제작하였다.

목조여래좌상의 크기는 높이가 25.3cm이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로 연화대좌에 結跏趺坐하고 있다(圖 17). 불상은 소형으로 印象과 대의 표현에서 앞서 살핀 色難의 기년명 불상보다 세부표현이 단순하고 생략되어 있다.

21)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대한불교조계종, 1999, p.209.

22) 이 보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은 김리나 홍익대학교 명예교수님이 2005년에 필자에게 주셨다.

3. 1700년대 기년명 불상

(1) 1700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 영암 축성암 소장 목조나한상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 전라남도 영암 축성암에 소장된 나한상에서 발견된 발원 문은 “康熙三十九年庚辰三月二十九日造成 一代教主釋迦如來尊像迦葉阿難尊者等像又十六大阿羅漢等像奉安于靈岩郡南面頭輪山成道庵 ... 緣化 善才良工 色蘭 一機 慕賢 秋鵬 秋平 ...”으로, 1700년에 色蘭, 一機, 慕賢, 秋鵬, 秋平이 해남 成道庵에 불상과 나한상을 제작하였다.²³⁾ 현재 조사된 나한상은 迦葉尊者在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那畔尊者在 영암 축성암에 봉안되어 있다.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소장된 목조가섭존자는 전체 높이가 56cm, 대좌의 지름이 23cm이다(圖 18).²⁴⁾ 가섭존자는 色難이 앞서 살펴본 1685년에 고흥 능가사와 1694년에 화순 쌍봉사 가섭존자와 비교하면, 얼굴과 耳目口鼻, 袈裟와 長衫의 착의법 등이 동일하다. 단지 깍지를 낀 양손이 위를 향하여 세운 각도만 차이가 난다. 축성암 소장 목조나반존자상은 16나한상 중 제 1존자로, 크기는 전체 높이가 46cm인 좌상이다(圖 19).²⁵⁾ 나반존자는 양손을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가지런히 놓고, 머리를 약간 숙여 禪定한 자세를 하고 있으며, 신체에 비하여 두 손이 크게 강조되었다. 그러나 色難이 제작한 나한상으로 禪定을 한 자세는 1684년에 강진 정수사 나한전, 1685년에 고흥 능가사 응진전, 1693년에 구례 천은사 응진전에 제작된 적이 없어 1690년대 후반에 나한상의 자세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1701년 해남 대흥사 응진전 목조삼존불좌상과 나한상

전라남도 해남 대흥사 응진전 불상은 기존에 色難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圖

23) 김리나,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조선시대 가섭존자상」, 『미술자료』 33, 국립중앙박물관, 1982, p.64 圖 4 참조.

24) 목조가섭존자상은 1998년 메트로폴리탄박물관 韓國室 開館 때 나온 圖錄에 紹介되었다. Chung, Yang-mo, Ahn Hwijoon, Yi Songmi, Kim Lena, Kim Hongnam and Jonathan Best. et. al, Arts of Korea,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8, fig.34과 註236 참조.

25) 최선일,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미술사 연구』 14, 2000, pp.47~48.

20).²⁶⁾ 최근 공개된 발원문을 통하여 1701년에 色難, 幸坦, 慕禪, 雄源, 一機, 秋平, 致雄이 불상과 나한상을 제작하였음을 알게 되었다.²⁷⁾

목조석가여래좌상의 크기는 높이가 82.4cm, 무릎 폭이 51.5cm로, 앞서 살펴본 1684년에 강진 옥련사와 1685년에 고흥 능가사 응진전 및 1693년에 구례 천은사 응진전 불상과 전체적인 신체비례와 이목구비의 처리 및 착의법 등이 동일하다.

(3) 1703년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존·사보살상

전라남도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존·사보살상은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이 근래에 공개되었다.²⁸⁾ 그 내용은 “康熙四十二年癸未 ... 造釋迦 觀音像 八影山沙門 色難 造多寶 文殊像 曹溪山沙門 冲玉 造彌陀像 稜迦山沙門 一機 造普賢像 雄遠 造觀音像 秋朋 造智積像 秋平 順瓊 幸坦 勝梅 初卞 覺初 道還 道堅 德希 法融 大裕 進聰 定惠 進一 善覺 澄海 瑞行 仁陟 夏天 ...”으로, 1703년에 色難, 冲玉, 一機, 雄遠, 秋朋, 秋平 등이 불상을 제작하였다. 화엄사 각황전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碧巖 覺性の 문도인 桂坡性能이 1699년에 장육전을 중수하여 1701년에 상량하고 그 이듬해 완공하였다. 각각의 불상은 책임자를 두고 제작한 점이 1675년에 운해가 만든 고흥 능가사 불상에서 볼 수 있었던 작업방식이다. 이 발원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色難 앞에 八影山 沙門으로 언급된 것으로, 八影山은 高興 楞伽寺가 있는 산이다. 이 발원문이 공개되기 이전에 色難이 고흥 능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이 발원문이 공개되면서 色難이 고흥 능가사에서 생활하였음이 확인되었다.²⁹⁾

木造三尊·四菩薩像의 본존은 전체 높이가 350cm, 무릎 폭이 250cm인 대형불상이다 (圖 21). 목조석가여래좌상은 상체를 약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얼굴은 1680년에 광주 덕림사, 1684년에 강진 옥련사, 1685년에 고흥 능가사 불상 등 보다 얼

26) 최선일, 위의 글.

27) 앞 책, 『한국의 사찰문화재 - 광주/전남 I · II · III』, p.388.

28) 앞 글,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p.55.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은 吳珍熙에 의하여 공개되었다(吳珍熙, 앞의 논문, pp.17~21).

29) 앞 글,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pp.57~59.

굴이 넓적하지만, 착의법은 거의 동일하다. 문수와 지적보살은 본존의 좌우에, 관음과 보현보살은 가장자리에 배치하였다(圖 22). 보살상들은 손의 위치나 着衣法이 불상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보살상은 화려하게 장식된 보관을 쓰고, 대의와 안쪽에 편삼을 입었으며, 僧脚崎와 무릎 갑대를 착용하고 있다. 이 보살상은 현재 도난당한 1694년에 화순 쌍봉사 극락전 협시보살상과 이목구비의 처리와 착의법 등이 유사하다(圖 23).

(4) 1703년 서울 경국사 목조보살좌상

서울특별시 경국사에 봉안된 목조보살좌상은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1703년에 전라남도 영암 도갑사에서 색난이 제작한 것으로 적혀 있다.³⁰⁾

목조보살좌상의 크기는 전체 높이가 70cm로, 전체적인 형태와 미목구비의 처리 및 착의법 등이 1685년 고흥 능가사와 1693년에 구례 천은사 보살상과 동일하다(圖 24).

(5) 1707년 고흥 능가사 불상

전라남도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능가사 사적기는 秘藏되었던 필사본으로 1995년에 고경스님에 의해 조사되었다. 1941년에 필사된 사적기는 조선후기부터 일제 침략기까지 상량문이나 발원문 등이 실려 있다. 내용 중에 「願文」은 “**康熙四十六年丁亥四月日敬造新塑像奉安於八影山楞伽寺大道場也 ... 證明 行修 誦呪 清日 ... 持殿 信益 彫妙工 通政大夫 色難 幸坦 通政大夫 雄遠 一機 荷信 混平 大猷 善覺 夏天 ...**”으로 적혀 있다. 이 발원문은 1707년에 色難, 幸坦, 雄遠, 一機, 荷信, 混平, 大猷, 善覺, 夏天이 능가사 大道場에 불상을 제작한 내용이다.

필자는 이 원문이 현재 능가사 대웅전에 봉안된 삼존불상 중 본존과 협시보살을 제작한 내용으로 추정한다(圖 25).³¹⁾ 이는 본존이 앞서 살펴본 색난이 제작한 불상과 인상이나 착의법 등이 유사하고, 현재 도난당한 목조보살입상과 1694년에 화순 쌍봉사 목조보

30) 필자는 서울시 문화재지정조사 보고서를 안귀숙 교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다.

31) 2000년에 필자는 이 불상을 색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최선일,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미술사연구』 14, 2000, p.55).

살좌상 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圖 26).

(6) 1709년 고흥 송광암 목조보살좌상과 광주 덕림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소실)

전라남도 고흥 송광암에 봉안된 목조보살좌상은 내부에서 조성발원문이 발견되었다. 그 내용은 “造像發願文 娑婆世界勝金州海東朝鮮國全羅道興陽縣東南千燈山金塔寺 …… 康熙四十八年四月日記 … 造像片手通政 色難 雄元 混平 一齊 德熙 大裕 善覺 夏天 雷習 廣惠…”로, 1709년에 色難, 雄元, 混平, 一齊, 德熙, 大裕, 善覺, 夏天 등이 전남 고흥 금탑사에 불상을 제작하였다. 목조보살좌상은 전체적인 얼굴 표정이나 대의 처리에서 색난이 제작한 앞서 살펴본 보살상과 유사하지만, 더 아담하면서 조형적으로 완숙한미를 가지고 있다(圖 27).

이 보살상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동일한 내용이 1709년에 제작된 광주 덕림사 목조삼존불좌상에서 발견되었다(圖 28).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은 “造像發願文 娑婆世界勝金州海東朝鮮國全羅道興陽縣天燈山金塔寺弟資德行的玄等伏以得人身甚難遇 …… 本師釋迦如來及彌勒提花竭羅三尊像次畫成八相幀影… 康熙四十八年己丑孟夏日無用堂秀演撰”이다.³²⁾ 이 불상은 1980년에 화재로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지만, 사진을 보면 색난이 송광암 보살상과 동시에 제작한 불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³³⁾

Ⅲ. 彫刻僧 色難派의 활동과 불상 양식

1. 色難의 활동

조각승 色難이 태어난 때와 僧匠이 된 배경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고 있지 않으며, 불

32) 朴春圭·千得琰, 『광주의 불적』, 광주광역시 향토문화개발협의회, 1990, pp.243~244.

33) 최선일,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미술사연구』 14, 2000, p.55.

상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단편적인 문헌기록을 통하여 활동과 조각승의 계보를 밝히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색난과 관련된 문헌기록은 이제까지 20건으로,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 16건과 사적기 등의 문헌기록 4건이 알려져 있다.

〈표 - 1〉 色難 관련 문헌기록

年代	造成地域	造成寺刹	造成 内容	彫 刻 僧	發願文과 奉安處
1680年	전남 화순	영봉사	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	首工 色難 道軒 冲玉 慕賢 ... 得牛 楚卞 ...	發願文 광주 덕림사 봉안
1683年	전남 고흥	능가사 능인전	가섭 · 아난존자 제작	色難 得牛	서울 지장암 소장 오진희, 「수락산 염불암 목관음 보살좌상」
1684年	전남 강진	정수사 나한전	석가삼존, 아난 · 가섭, 16나한, 시자 제작	上工 色難 副工 道軒 次工 行坦 慕賢 楚卞 雄遠 ...	發願文 玉蓮寺 - 석가상 淨水寺 - 나한상
1685年	전남 고흥	능가사	석가삼존, 아난 · 가섭, 16나한, 시자 제작	金魚 首 色難 ... 道軒 ... 雄遠 ... 楚卞 文印 幸坦 得祐 ...	發願文 色難이 迦葉大施主
1689年			목조아미타삼존불감 제작	巧匠 通政大夫 色難 得牛 雄遠	發願文, 日本 高麗美術館 소장
1689年			목조지장삼존불감 제작	色難 得祐 雄遠	문명대, 「조선시대 불교조각사론」 오진희, 「수락산 염불암 목관음보 살좌상」 한국불교미술박물관 소장
1693年	전남 구례	천은사	석가, 아난 · 가섭, 16나한 제작	色難 幸坦 得牛 雄遠 文印 執森 秋鵬 秋評	發願文
1694年	전남 화순	쌍봉사	목조석가삼존상과 목조아미타삼존상 제작	金魚 色難 慕賢 得牛 雄遠 執森 秋鵬 秋評	發願文
1698年	전남 해남	성도암	목조보살좌상 개금	色難 ...	發願文 제주 관음사 봉안
1698年	전남 고흥		범종 제작에 시주	通政 色難	銘文
1699年			목조불상 제작	匠手 色難 冲玉 雄遠 一幾	發願文 個人 소장
1700年	전남 해남	성도암	목조석가삼존, 아난 · 가섭, 16나한 제작	善手良工 色蘭 一幾 慕賢 秋鵬 秋平	發願文, 海南 祝聖庵 나만존자와 美國 메트로폴리탄박물관 가섭 존자 소장

年代	造成地域	造成寺刹	造成 内容	彫 刻 僧	發願文과 奉安處
1701年	전남 해남	대흥사 응진전	목조삼존불좌상과 나한상 제작	畫工 色難 幸坦 慕禪 雄源 一 機 秋平 致雄	發願文 한국의 사찰문화재
1703年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존 · 사보살상 제작	色難 冲玉 一機 雄遠 秋朋 秋平... 幸坦 勝梅 初卞... 夏天	發願文 八影山沙門
1703年	전남 영암	도갑사	목조보살좌상 제작	色難	서울 경국사 봉안
1707年	전남 고흥	능가사	소조불상 제작	彫妙工 通政 色難 幸坦 通政 雄遠 一機 ... 夏天	
1707年	전남 고흥	능가사	禪門拈頌說話 간행에 대시주자 참여	大施主 尙宗 大施主 色難 施主 德玄 書寫 全州金萬昌	
1709年	전남 고흥	금암사	목조보살좌상 제작	造像片手 通政 色難 雄元 ... 夏天	發願文 ³⁴⁾ 고흥 송광암 봉안 광주 덕림사 봉안(소실)
1711年	전남 고흥	능가사	기와 제작에 시주	通政 色難	銘文
1730年	전남 옥과	관음암	범종 제작에 시주	色難	銘文
1750年	전남 고흥	능가사	사적비 후면 언급	嘉善 色難	事蹟碑

위의 <표-1>의 기록에서 色難은 1680년에 화순 영봉사 불상(광주 덕림사 봉안)을 제작할 때, 수화승으로 활동한 것을 보면 최소한 1680년 이전부터 불상 제작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684년에 강진 정수사 나한전과 1685년에 고흥 능가사 불상을 제작하였는데, 후자는 1941년에 간행된 『楞伽寺 史料』에 “新造成 一如來 六菩薩 十六大阿羅漢 二帝釋 二使者 二童子 兩金剛 諸端嚴相記願”이라고 無用 秀演이 적혀 있다.³⁵⁾ 그런데 최근 능가사 응진전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이 공개되면서 無用秀演이 쓴 원문이 색난과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1685년에 고흥 능가사 불상에서 발견

34) 2006년 6월 전남 고흥 송광암 목조삼존불좌상에 대한 복장조사가 이루어졌다.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의 내용을 통하여 목조불좌상은 1680년에 寶海가,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709년에 色難이,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1726년에 夏天이 제작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35) 한성욱 · 김문정 · 이은영 · 김상균, 「全南 高興 楞伽寺 四天王像 복장물 보존수리」, 『聖寶』 4, 大韓佛教曹溪宗 聖寶保存委員會, 2002, pp.176~177, 표 10 능가사 연표 참조.

된 발원문에 “迦葉大施主 通政兼金魚色難”으로 나와 있어 色難이 空名帖을 받은 시기가 기존 알려진 것보다 더 빠르다. 그러나 능가사 불상 발원문에서 施主秩에 通政大夫를, 緣化秩에 法名만 쓴 것을 보면, 연화질 내에서는 공명첩을 주로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689년에 고려미술관 목조불감 발원문에서만 특이하게 “巧匠 通政大夫 色難”이라 적어놓았다. 아직까지 色難의 스승이나 선배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아 이후 1660년대부터 1670년대까지 色難이 보조화승으로 참여한 불상이 발견되기를 바랄 뿐이다.

色難은 1693년에 구례 천은사 불상과 1694년에 화순 쌍봉사 대웅전과 극락보전 불상을 제작하고, 1698년 고흥 능가사 범종 주조에 시주자로 참여한 후(圖 29),³⁶⁾ 해남 성도암 목조보살좌상(제주 관음사 봉안)을 개금하였다. 그는 1700년에 해남 성도암에 나한상을, 1703년에 화엄사 각황전 불상 가운데 釋迦牟尼와 觀音菩薩을 제작할 때 고흥 능가사에 거주하였다. 또한 색난은 1707년에 고흥 능가사 본존과 협시보살을, 1709년에 고흥 금암사 보살좌상(고흥 송광암 봉안)과 목조삼존불좌상(광주 덕림사 화재로 소실)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1707년에 『禪門拈頌說話』 간행과(圖 30) 1711년에 능가사 기와(圖 31) 및 1730년에 옥과 관음사 대은암 범종(곡성 서산사 소장)에 제작에 시주자로 기록되어 있다(圖 32). 이제까지의 고찰에 의해 색난은 최소한 1680년부터 1709년까지 造像 작업에 참여하고, 1730년까지 생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⁷⁾ 색난은 1750년에 건립된 高興 楞伽寺事蹟碑의 후면에 嘉善 色難으로 나와 있다(圖 33).³⁸⁾ 이 사적비에는 雲惠와 같이 활동한 조각승 敬琳이 1685년에 나한전 조성에 시주자로, 1750년에 사적비에 嘉善으로 나와 色難과 敬琳이 楞伽寺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色難 作 불상양식의 변천

이제까지 색난이 제작한 기년명 불상을 중심으로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7세기

36) 梵鐘의 銘文은 『全南金石文』, 全羅南道, 1990, pp.169~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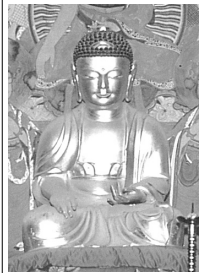
37) 관음사 범종 주조의 시주자 가운데 맨 마지막에 色難이 언급되어 있다(『谷城郡의 佛教遺蹟』, p. 167).

38) 이 事蹟碑는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스님에 의하여 1750년에 건립되었음이 밝혀졌다.

후반은 名山大利의 주요 전각 내에 불상이 봉안되어 색난과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들은 사찰의 응진전이나 암자에 주로 불상을 제작하였다. 그가 제작한 불상은 대부분 목조 불상으로 크기가 75~355cm로 다양하지만, 주로 100cm를 전후한 크기의 불상을 제작하였다.

1680년대 광주 덕림사 보살상과 강진 옥련사 불상은 당당한 어깨에 다부진 신체를 지녔으며, 하반신의 높이와 너비가 상반신에 비하여 넓은 편이다. 1690년대 제작된 불상은 당당한 신체에 상반신과 하반신의 비례가 인체에 비슷해졌다. 1700년대 불상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크기의 불상을 제작하여 약간씩 조형감각이 다르게 표현되었다. 마지막 기년명 불상인 1709년에 고흥 송광암 목조보살좌상은 커다란 보관을 쓴 머리에 비하여 어깨가 좁아졌지만, 아담한 얼굴과 신체의 비례가 적당한 편이다. 색난이 제작한 불상의 신체비례는 조선후기 불상의 신체비례인 1:0.65-0.68 정도를 따르지만, 1693년에 구례 천은사 불상이 전체 높이와 무릎 너비가 1:0.79로 가장 수치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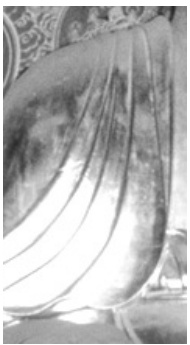
〈참고도판 1〉 색난이 제작한 불상

				
色難, 목조지장보살좌상, 1680년, 광주 덕림사	色難, 목조불감 본존, 1689년, 일본 고려미술관	色難, 목조석가여래좌상, 1694년, 화순 쌍봉사	色難, 목조석가여래좌상, 1701년, 해남 대흥사	色難, 목조보살좌상 1709년, 고흥 송광암

色難이 제작한 불상은 1680년에 광주 덕림사 불상부터 1709년에 고흥 송광암 목조보살좌상까지 거의 동일한 인상과 착의법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상은 대부분 각이진 얼굴형에 눈두덩이의 두툼해지면서 편안한 印象이다.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은 가슴까지 완만하게 펼쳐져 있고, 그 뒤로 세 겹으로 접힌 주름이 段을 이루면서 끝부분이 U형으로 처리되었다. 이와 같은 대의 형태는 雲惠가 1667년에 제작한 쌍봉사 불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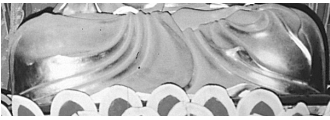
유사하지만, 색난의 불상은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조각되었다.

〈참고도판 2〉 색난파가 제작한 불상의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 자락

				
色難, 목조석가불좌상 1684년, 강진 옥련사	色難, 목조석가여래좌상 1694년, 화순 쌍봉사	色難, 목조석가불좌상 1703년, 구례 화엄사	夏天, 목조석가불좌상 1727년, 대구 동화사	夏天, 목조석가불좌상 1730년, 창녕 포교원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이 결가부좌한 양다리 밑으로 늘어지고, 왼쪽다리 복숭아 뼈부터 세 줄의 대의 주름이 규칙적으로 늘어져 있으며, 소매자락이 왼쪽 무릎을 완전히 덮어 蓮瓣形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色難이 제작한 불상은 대의 안쪽에 입은 僧脚崎를 가슴까지 올려 묶어 상단이 다섯 개의 仰蓮形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의 후배와 제자들도 색난이 제작한 불상양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점점 도식화 되어 불상의 미적 완성도는 떨어진다.

〈참고도판 3〉 색난파가 제작한 불상이 하반신의 대의 처리

		
色難, 목조지장보살좌상, 1680년 광주 덕림사	色難, 목조석가불좌상, 1684년 강진 옥련사	色難, 목조아미타불좌상, 1694년 화순 쌍봉사
		
色難, 목조석가불좌상, 1703년 구례 화엄사	色難, 목조보살좌상, 1709년 고흥 송광암	夏天, 목조석가불좌상, 1730년 창녕 관룡사(창녕 포교원 소장)

3. 色難派 조각승의 활동과 기년명 불상

色難과 같이 활동한 조각승은 40여명에 이르고, 색난과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은 忠玉(冲玉, 冲玉), 楚卞(楚汴), 得牛(得牛), 一機, 慕賢, 道軒, 行坦(幸坦), 秋鵬, 秋評(秋平), 得牛(得牛) 등이다.

〈표 - 2〉 色難派에 속하는 조각승

僧名	活動年代	活 動 事 項
忠玉 冲玉 冲玉	1668 ~ 1703	1668년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개금(首畫僧 天信) 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광주 덕림사; 首畫僧 色難) 1684년 전남 순천 송광사 불조전과 화엄전 불상 제작(首畫僧) 1690년 전남 곡성 도림사 목조지장삼존상과 시왕상 제작(首畫僧) 1699년 개인소장 목조불감 제작(首畫僧 色難) 1703년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세불사보살상, 관음보살좌상 제작(造多寶文殊像 曹溪山沙門; 首畫僧 色難)
楚卞 楚汴	1680 ~ 1706	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광주 덕림사; 首畫僧 色難) 1684년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불좌상과 나한상 제작(전남 강진 옥련사와 정수사 봉안; 首畫僧 色難) 1684년 전남 순천 송광사 불조전과 화엄전 불상 제작(首畫僧 忠玉) 1685년 전남 고흥 능가사 십육나한상 제작(首畫僧 色難) 1686년 전남 장흥 보림사 上龕, 願佛龕 새로 제작, 中下龕 중수 시 별좌로 참여 1690년 전남 곡성 도림사 목조지장삼존상과 시왕상 제작(首畫僧 忠玉) 1703년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세불사보살상, 관음보살좌상 제작(首畫僧 色難) 1706년 전남 영광 불갑사 팔상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나한상 제작(首畫僧)
得牛 得牛	1680 ~ 1694	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 제작(광주 덕림사; 首畫僧 色難) 1683년 전남 고흥 능가사 아난·가섭존자 제작(首畫僧) 1685년 전남 고흥 능가사 십육나한상 제작(首畫僧 色難) 1689년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소장 목조삼존불감 제작(首畫僧 色難) 1689년 서울 한국불교미술박물관 목조지장삼존불감(수화승 色難) 1693년 전남 구례 천은사 응진전 목조석가삼존상과 나한상 제작(首畫僧 色難) 1694년 전남 화순 쌍봉사 목조석가삼존불상과 목조아미타불좌상 제작(首畫僧 色難) 1695년 서울 염불암 목조보살좌상 제작(首畫僧)
一機	1698 ~ 1720	1698년 전남 해남 성도암 목조관음보살좌상 개금(제주 관음사 봉안, 首畫僧 色難) 1699년 개인소장 목조불감 제작(首畫僧 色難) 1700년 전남 해남 성도암 나한상 조성(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영암 축성암 소장, 首畫僧 色難) 1703년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세불사보살상, 관음보살좌상 제작(造彌陀像 稜伽山沙門; 首畫僧 色難) 1718년 경기 안성 칠장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제작(首畫僧) 1720년 전남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개채(首畫僧)

僧名	活動年代	活 動 事 項
一機	1698 ~ 1720	1698년 전남 해남 성도암 목조관음보살좌상 개금(제주 관음사 봉안, 首畫僧 色難) 1699년 개인소장 목조불감 제작(首畫僧 色難) 1700년 전남 해남 성도암 나한상 조성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영암 축성암 소장, 首畫僧 色難) 1703년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세불사보살상, 관음보살좌상 제작 (造彌陀像 稜伽山沙門; 首畫僧 色難) 1718년 경기 안성 칠장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제작(首畫僧) 1720년 전남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개채(首畫僧)
慕賢	1680 ~ 1700	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광주 덕림사; 首畫僧 色難) 1684년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불좌상과 나한상 제작 (전남 강진 옥련사와 정수사 봉안; 首畫僧 色難) 1685년 전남 고흥 능가사 십육나한상 제작(首畫僧 色難) 1694년 전남 화순 쌍봉사 목조석가삼존불상과 목조아미타불좌상 제작(首畫僧 色難) 1698년 전남 해남 성도암 목조관음보살좌상 개금(제주 관음사; 首畫僧 色難) 1700년 전남 해남 성도암 나한상 제작(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영암 축성암; 首畫僧 色難)
道軒	1659 ~ 1685	1659년 전남 고흥 금탑사 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개금(首畫僧 忠玉) 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광주 덕림사; 首畫僧 色難) 1684년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불좌상과 나한상 제작 (전남 강진 옥련사와 정수사 봉안; 首畫僧 色難) 1685년 전남 고흥 능가사 십육나한상 제작(발원문, 고경 스님 제공)
行坦 幸坦	1684 ~ 1720	1684년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불좌상과 나한상 제작 (전남 강진 옥련사와 정수사 봉안; 首畫僧 色難) 1685년 전남 고흥 능가사 십육나한상 제작(首畫僧 色難) 1693년 전남 구례 천은사 응진전 목조석가삼존상과 나한상 제작(首畫僧 色難) 1703년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세불사보살상, 관음보살좌상 제작(首畫僧 色難) 1720년 전남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개채 (首畫僧 一機)
秋鵬	1693 ~ 1703	1693년 전남 구례 천은사 응진전 목조석가삼존상과 나한상 제작(首畫僧 色難) 1694년 전남 화순 쌍봉사 목조석가삼존불상과 목조아미타불좌상 제작(首畫僧 色難) 1698년 전남 해남 성도암 목조관음보살좌상 개금(제주 관음사; 首畫僧 色難) 1700년 전남 해남 성도암 나한상 제작(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영암 축성암; 首畫僧 色難) 1703년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세불사보살상, 관음보살좌상 제작(造觀音像; 首畫僧 色難) 1750년 전남 고흥 능가사사적비 후면에 雪巖 秋鵬이 佛書 化主로 나옴
秋評 秋平	1693 ~ 1703	1693년 전남 구례 천은사 응진전 목조석가삼존상과 나한상 제작(首畫僧 色難) 1694년 전남 화순 쌍봉사 목조석가삼존불상과 목조아미타불좌상 제작(首畫僧 色難) 1698년 전남 해남 성도암 목조관음보살좌상 개금(제주 관음사; 首畫僧 色難) 1700년 전남 해남 성도암 나한상 제작(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영암 축성암; 首畫僧 色難) 1703년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세불사보살상, 관음보살좌상 제작(造智續像; 首畫僧 色難)
夏天	1703 ~ 1730	1703년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불 · 사보살상 중 석가와 관음보살좌상 제작(수화승 色難) 1707년 전남 고흥 능가사 소조불상 제작(수화승 色難) 1709년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보살좌상 제작(고흥 송광암 봉안, 수화승 色難) 1720년 전남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개채(수화승 一機) 1722년 전남 장흥 보림사 능인전 불상 삼존 개금(首畫僧) 1724년 전남 장흥 보림사 나한 중수(首畫僧) 1726년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보살좌상 제작(고흥 송광암 봉안, 首畫僧) 1727년 대구 동구 동화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 제작(首畫僧) 1730년 경남 창녕 포교원 목조석가불좌상 제작((首畫僧) 1730년 전남 고흥 금탑사 극락보전 미타삼존 개금 · 중수((首畫僧)

위의 승려 가운데 首畫僧으로 불상 제작이나 개금을 주도한 조각승은 忠玉, 楚卞, 得牛, 一機, 夏天 등이다. 色難과 공동작업한 조각승을 중심으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까지 제작된 불상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표 - 3〉 조각승 色難派 관련 문헌기록

年代	造成地域	造成寺刹	造成 内容	彫 刻 僧	發願文과 奉安處
1668년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개금	畫員 忠玉 天信 法海	發願文
1684년	전남 순천	송광사	불조전과 화엄전 불상 제작	畫員 冲玉 云益 楚卞 覺初 ...	發願文
1690년	전남 곡성	도림사	목조지장삼존상, 시왕상 제작	畫員 忠玉 靈善 楚卞 ... 覺初 ...	發願文
1695년	전남 장흥	봉일암 수도암	목조보살좌상 제작	畫員 得牛 德熙	發願文 서울 엽불사 봉안
1706년	전남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 나한상 제작	畫員 楚卞 靈善 覺楚 釋俊 ...	發願文
1718년	경기 안성	칠장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제작	良工 一機 善覺 善一 斗吳	發願文
1720년	전남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개채	畫員 一機 幸坦 碩俊 ... 夏天 得察	事蹟記
1722년	전남 장흥	보림사	三尊佛像, 금강신 중수개금	重修金剛 畫員 夏天	事蹟記
1724년	전남 장흥	보림사	나한 중수	畫員 夏天 弼英 得察 宗惠	事蹟記
1726년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보살좌상	良工 夏天 宗惠	發願文 고흥 송광암 봉안
1727년	경북 대구	동화사	목조삼세불좌상	梓匠 夏天 碩俊 得察 ... 宗惠 ... 宏陟	
1730년	경남 창녕	포교원	목조석가불좌상	首畫師 夏天 副畫師 得察 成榮 宗惠	發願文
1730년	전남 고흥	금탑사 극락보전	主佛彌陀三尊位改金 重修	改塗金片手 夏天 德熙 宗惠 畫成片手 鵬眼 得察 最祐 智雲 永賢	改金發願文

色難과 같이 활동한 조각승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수화승으로 활동한 승려는 忠玉 (-1668-1703-)이다. 충옥은 1666년에 고흥 금탑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을 수화승으로 개금하고,³⁹⁾ 1680년에 화순 영봉사 지장보살좌상 제작 시에 3번째 언급되어 불상 제작

39) 발원문을 조사한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스님은 “발원문은 조사 후 불상에 다시 넣었고, 발원문 가운데 시주자가 다음에 忠玉, 畫員 天信, 法海 순으로 적혀 있으며, 시주자가 언급된 위치보다 안쪽에 忠玉과 法海가 동일한 위치에 적혀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필자는 忠玉이 시주질의 안쪽에

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忠玉은 1684년에 色難이 강진 정수사 불상을 제작할 때, 首畫僧으로 순천 송광사 불조전과 화엄전 불상을 제작하였다.⁴⁰⁾ 불조전과 화엄전에 봉안된 불상은 色難이 제작한 불상과 유사한 인상과 대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신체에 비하여 얼굴을 크게 강조하여 비례감이 떨어진다(圖 34). 충옥은 1690년에 곡성 도림사 목조 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을 제작하였는데(圖 35), 지장보살상은 큰 얼굴에 벌어진 어깨를 가져 둔중한 신체와 대의자락이 도식화되어 간략하게 표현되었다. 그리고 色難을 수화승으로 1699년에 개인소장 불상과 1703년에 구례 화엄사 각황전 불상 제작 시에 多寶如來와 文殊菩薩을 제작하였다. 그는 화엄사 각황전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曹溪寺沙門으로 나와 있어 順天 松廣寺에 거주하였던 승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득우(得牛, 得牛 : -1680-1695-)는 1680년에 수화승 색난과 전남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을, 1683년에 수화승으로 전남 고흥 능가사 아난·가섭존자를 제작하였다. 수화승 색난과 1685년에 전남 고흥 능가사 십육나한상을, 1689년에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소장 목조삼존불감과 서울 한국불교미술박물관 목조지장삼존불감을, 1693년에 전남 구례 천은사 응진전 목조석가삼존상과 나한상을, 1694년에 전남 화순 쌍봉사 목조석가삼존불상과 목조아미타불좌상을 만들었다. 최근 1695년에 수화승으로 서울 염불암 목조보살좌상을 제작하였음이 확인되었다(圖 36). 이 보살상은 1698년에 수화승 색난이 제작한 목조불감의 본존과 같이 대좌 밑까지 옷자락이 길게 늘어진 것이 특이하다.

一機(-1698-1720-)는 수화승 色難과 1698년에 전남 해남 성도암 목조관음보살좌상(제주 관음사 봉안) 개금하고, 1699년에 개인소장 목조아미타불 제작 시에 4명 가운데 맨 마지막에 언급되었다. 그러나 1700년에 영암 성도암에 제작한 나한상 발원문에는 慕賢보다 먼저 언급되어 色難의 제자보다 후배일 가능성이 있다. 1720년에 수화승으로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 改彩 때,⁴¹⁾ 정수사 불상 제작에 次工으로 참여했던 行坦을 대신하여

언급되어 畫員으로 이해하였지만, 만약 忠玉이 시주질의 마지막에 걸린다면 불상의 개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승려는 天信이다. 天信은 無染과 같이 1656년 완주 송광사 석가삼존불좌상과 나한상 제작 시에 참여했던 승려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조각승 色難派가 無染의 계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40) 금탑사와 송광사 불조전 불상 발원문은 송광사 성보박물관장 고경 스님이 조사하였다.

41) 『曹溪山松廣寺史庫』第2目 片史 同五十九年庚子四月日四天王重修改彩(證明 以濟 持殿 致淨 化主

首畫僧으로 작업하여 行坦보다 지위나 연령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一機는 1703년에 구례 화엄사 각황전 불상 내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阿彌陀佛을 주도적으로 제작한 승려로, 稜伽山 寺門으로 적혀 있어 扶安 邊山에 살았던 승려임을 알 수 있다. 그가 거주하던 전북 부안은 전남 장흥과 마찬가지로 고려 후기 몽고가 일본을 침략하려고 선박을 제작한 지역으로 양질의 목재가 생산되어 조각승들이 작업하기에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최근 1718년에 一機가 수화승으로 제작한 목조관음보살좌상이 조사되었다(圖 37).

楚卞(-1680-1706-)은 1684년에 수화승 色難과 강진 정수사 불상을, 수화승 忠玉과 순천 송광사 불조전 불상을 제작하고, 1706년에 首畫僧으로 영광 불갑사 불상을 靈善, 覺楚, 釋俊, 定慧, 瑞行, 澄性, 致海, 寂勝, 澄海, 四祥和 제작하였다(圖 38).⁴²⁾ 이들은 모두 色難이나 忠玉과 같이 활동한 조각승으로 색난파에 속하는 승려들이다.

夏天(-1703-1730-)은 1703년에 수화승 색난과 구례 화엄사 각황전 불상을 제작하고, 1720년에 수화승 一機와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개채하였다. 首畫僧으로 1722년에 장흥 보림사 능인전 삼존불상을 개금하고,⁴³⁾ 1724년에 보림사 나한을 중수하였다. 수화승으로 1727년에 대구 동화사 대웅전 불상과(圖 39)⁴⁴⁾ 1730년에 창녕 관룡사 불상을 제작하였다.⁴⁵⁾

色難派에 속하는 忠玉, 得祐, 一機, 楚卞, 夏天이 제작한 불상은 色難이 제작한 불상의 신체비례를 따르고 있다. 불상은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가슴까지 완만하게 펼쳐져 있고, 그 뒤로 세 겹으로 접힌 주름이 段을 이루면서 비스듬히 늘어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이 걸가부좌한 양다리 밑으로 늘어져 완만한 곡선으로 펼쳐지고 그

了眼 供養主 漢陟 獲軒 畫員 一機 幸坦 混平 碩俊 善覺 善日 夏天 得察 斗珍) 참조.

42) 『靈光 母岳山 佛甲寺 - 地表調査報告書 -』, 동국대학교 박물관 · 영광군, 2001, pp.166~168에 일부 조각승의 이름이 빠져 있음을 발원문을 실견하면서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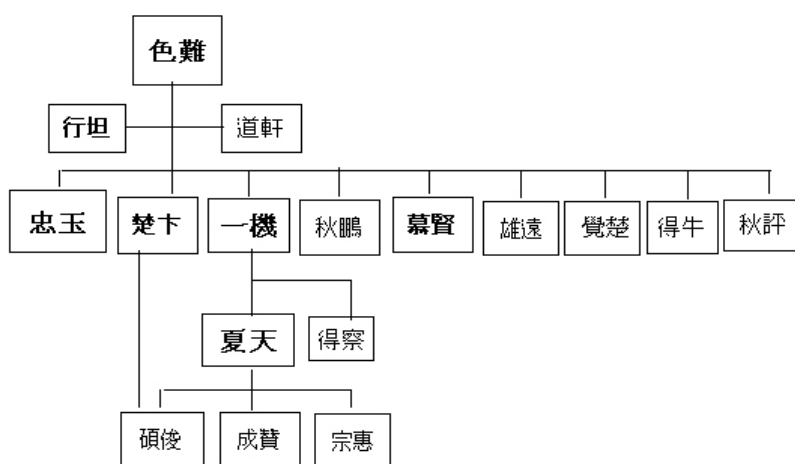
43) 고경 감수, 김희태 · 최인선 · 양기수 譯註, 앞의 책, p.71에 宗畫로 읽었으나, 원문에 宗惠로 적혀 있다.

44) 김미경, 「八公山 桐華寺 木造三世佛坐像의 腹藏物 檢討」, 『불교미술사학』 3,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5, pp.269~291.

45) 김창균, 「거창 · 창녕 포교당 성보 조사기」, 『聖寶』 4, 大韓佛教曹溪宗 聖寶保存委員會, 2002, p. 171.

뒤로 세 가닥의 옷 주름선이 규칙적으로 늘어져 있다. 소매자락은 왼쪽 무릎을 완전히 덮어 蓮瓣形으로 처리되어 色難과 그 계보 조각승이 제작한 불상에서 주로 보이는 특징이다. 大衣 안쪽에 입은 僧脚崎는 가슴까지 올려 묶어 僧脚崎 上段이 蓮瓣形을 이루고 있다. 이들이 만든 불상 양식은 18세기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부 표현이 생략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 4〉 色難派의 계보



이와 같이 색난파에 속하는 조각승들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불교조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세력이다. 이들은 주로 중소 사찰의 주전각이나 부속전각에 불상을 제작하였다. 색난파에 의하여 제작된 추정되는 불상은 전남 강진 백련사 응진전 목조불좌상(圖 40), 전남 구례 화엄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 전남 해남 대둔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의 본존(圖 41),⁴⁶⁾ 서울 봉원사 목조지장보살좌상(圖 42), 1702년에 전남 순천 선암사 불조전 53불상(圖 43),⁴⁷⁾ 경남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

46) 이 삼세불좌상은 복장조사가 되지 않아 제작연대나 제작자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본존과 좌우 협시불은 조각수법이 서로 다르다. 협시불은 대웅전 창건연대인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작품으로 보이고, 본존상은 이후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47) 선암사 불조전에 봉안된 60불 가운데 4구는 새로 제작되었다. 나머지 불상은 선암사사적기 중에

좌상, 전남 순천 선암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 경남 고성 옥천사 나한전 협시보살좌상(圖 44), 밀양 표충사 대광전 불상(圖 45), 전북 남원 실상사 불상(圖 46), 인천 시립박물관 목조보살좌상(圖 47), 해남 미황사 응진전 불상(圖 48) 등이다. 따라서 색난은 기존 연구에서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았지만, 전국 사찰에 대한 체계적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남부 지역에 많은 사찰에 불상을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다.

I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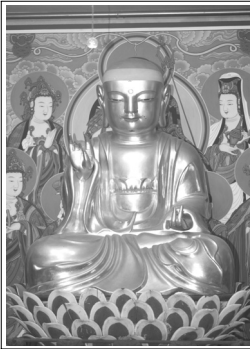
이상으로 조선후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조각승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색난과 그 계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얻을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색난의 生沒年代나 다른 조각승과의 교류관계 등은 밝힐 수 없었지만, 제작연대를 알 수 없는 조선후기 불상 중에 색난파의 조각적 특징을 가진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추정되는 불상을 살펴보았다.

발원문과 사적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 色難은 1640년을 전후하여 출생하여 1670년 경에 佛像製作의 수련기와 보조화승으로 거친 후, 수화승으로 1680년에 화순 영봉사 불상을 제작하였다. 그는 고흥 능가사, 강진 정수사, 구례 천은사, 화순 쌍봉사, 해남 성도암과 대흥사, 구례 화엄사, 영암 도갑사, 고흥 금탑사 등 전라도 지역에 많은 불상을 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색난은 1698년에 고흥 능가사 범종, 1707년에 『禪門拈頌說話』 간행, 1711년에 고흥 능가사 기와, 1730년에 옥과 관은사 대은암 범종 제작에 시주자로 참여하여 사찰 운영에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색난파는 色難(-1680-1730-) → 忠玉(-1668-1703-), 楚卞(-1680-1706-), 一機(-1698-1720-) → 夏天(-1703-1730-), 碩俊(-1706-1727-), 宗惠(-1724-1730-)으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夏天은

1702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1728년에 대구 동화사와 1730년에 창녕 관룡사에 불상을 제작하였고, 이외에도 색난파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합천 해인사, 고성 옥천사, 밀양 표충사 등에 남아있어 색난파와 그 계보 조각승의 활동범위가 경상도 지역까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색난은 고흥 능가사에 거주하였기에 조계산을 위주로 활동한 浮休門徒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불교조각사 연구에서 조선후기 불상은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후기 불상이 이상적인 조형미가 없어지고, 중국의 불교조각의 영향이 없어 다양한 불상양식과 변천이 적어 한국조각사에서 쇠퇴기로 단정하고 있지만, 이 시기는 한국불교조각사에서 가장 한국적인 불상을 제작한 시기로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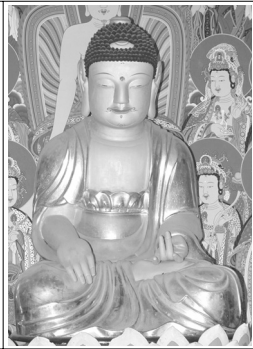
〈圖 1〉色難
목조지장보살좌상
1680년 광주 덕림사



〈圖 2〉色難
목조석가불좌상
1684년 강진 옥련사



〈圖 3〉色難
목조나한상
1684년 강진 정수사



〈圖 4〉色難
목조석가여래좌상
1685년 고흥 능가사



〈圖 5〉色難
목조미륵보살좌상
1685년 고흥 능가사



〈圖 6〉色難
목조가섭존자상
1685년 고흥 능가사



〈圖 7〉色難
목조나한상
1685년 고흥 능가사



〈圖 8〉色難
목조아미타삼존불감
1689년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圖 9〉色難
목조아미타삼존불감의
본존, 1689년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圖 10〉色難
목조지장삼존불감
1689년 서울
한국불교미술박물관



〈圖 11〉
목조아미타삼존불감
단양 구인사



〈圖 12〉色難
목조석가불좌상
1693년 구례 천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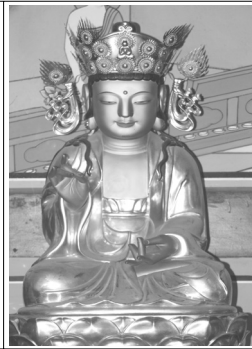
〈圖 13〉色難
목조석가불좌상
1694년 화순 쌍봉사



〈圖 14〉色難
목조가섭존자
1694년 화순 쌍봉사



〈圖 15〉色難
목조아미타불좌상
1694년 화순 쌍봉사



〈圖 16〉色難
목조보살좌상 개금
1698년 제주 관음사



〈圖 17〉色難
목조불좌상
1699년 개인소장



〈圖 18〉色難
목조가섭존자상
1700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圖 19〉色難
목조나반존자상
1700년 영암 축성암



〈圖 20〉色難
목조석가불좌상
1701년 해남 대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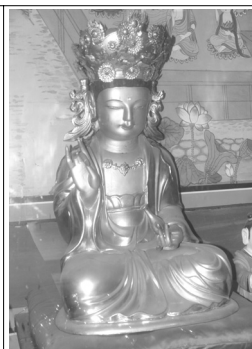
〈圖 21〉色難
목조석가불좌상
1703년 구례 화엄사



〈圖 22〉色難
목조보살입상
1703년 구례 화엄사



〈圖 23〉色難
목조보살입상
1694년 화순 쌍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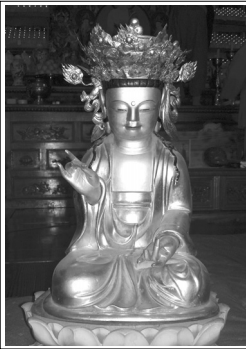
〈圖 24〉色難
목조보살좌상
1703년 서울 경국사



〈圖 25〉色難 作 추정
석가여래좌상
1707년 추정
고흥 능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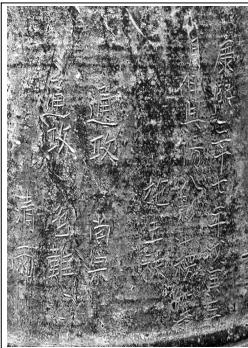
〈圖 26〉色難 作 추정
보살입상
1707년 추정
고흥 능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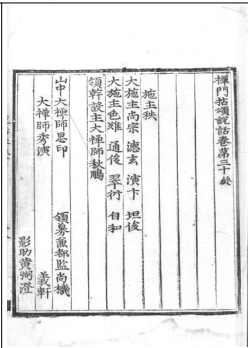
〈圖 27〉色難
목조보살좌상
1709년 고흥 송광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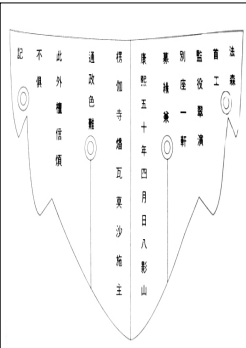
〈圖 28〉色難
목조석가불좌상
1709년
광주 덕림사(燒失)



〈圖 29〉
범종 시주질
1698년 고흥 능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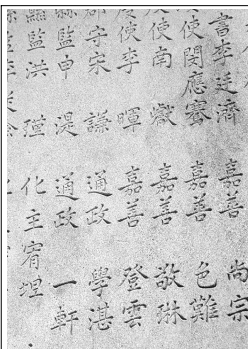
〈圖 30〉
『禪門拈頌說話』시주질
1707년 고흥 능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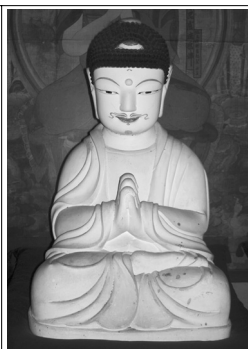
〈圖 31〉
기와 시주질
1711년 고흥 능가사



〈圖 32〉
범종 시주질
1730년 곡성 서산사



〈圖 33〉사적비 후면
1750년 고흥 능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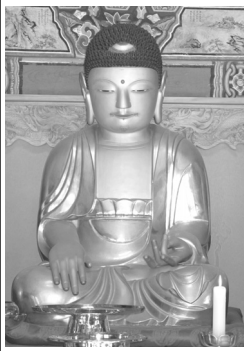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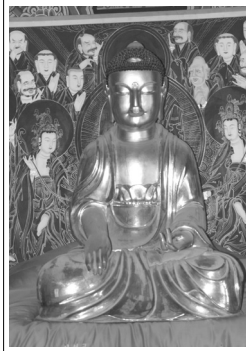
〈圖 34〉忠玉
석조비로자나불좌상
1684년 순천 송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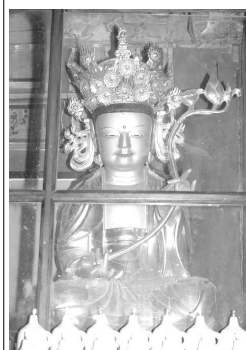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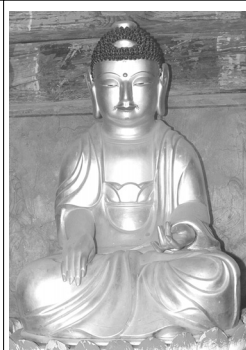
〈圖 35〉忠玉
목조지장보살좌상
1690년 곡성 도림사



〈圖 36〉得牛
목조보살좌상
1695년 서울 엽불암

			
〈圖 37〉一機 목조보살좌상 1718년 칠장사	〈圖 38〉楚卞 목조석가불좌상 1706년 영광 불갑사	〈圖 39〉夏天 목조석가불좌상 1727년 대구 동화사	〈圖 40〉목조불좌상 17세기 후반 강진 백련사 응진전

			
〈圖 41〉 목조삼세불좌상의 본존 해남 대둔사 대웅보전	〈圖 42〉 목조지장보살좌상 서울 봉원사	〈圖 43〉 목조불좌상 1702년 순천 선암사 불조전	〈圖 44〉 목조보살좌상 고성 옥천사 나한전

			
〈圖 45〉목조불좌상 밀양 표충사 대광전	〈圖 46〉목조불좌상 남원 실상사	〈圖 47〉목조보살좌상 인천시립박물관	〈圖 48〉목조불좌상 해남 미황사 응진전

총 평

홍 윤 식*

오늘 발표를 통해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세 분의 발표 모두 훌륭했고, 그 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우리는 조선시대 불교라 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송유억불(崇儒抑佛)정책입니다. 송유억불 정책을 먼저 생각하고 그 시대의 불상이 어떻게 해서 전개되었고 어떻게 조성되었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영호 박사님께서 기조강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 전기에는 국가정책이 송유배불이지만 실질적으로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믿고, 왕실을 위주로 많은 불상들이 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불상들은 고려시대 양식을 이어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우수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영호 박사님께서서는 전반적인 조선시대의 불교조각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왕실의 후원 등 여러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제작할 수 없는 금동불 같은 것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후기가 되면 전혀 사정이 달라지는데 왕실의 사정, 어려워진 경제사정, 강화된 배불지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민중의 힘에 의해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유지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기 쉬운 흙, 나무, 종이 등으로 불상의 재질이 변해갑니다. 근데 재질이 바뀌면 양식도 바뀌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전기와 후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기에 미륵불이 발전했다고 하셨는데 미륵불이라 하면 그냥 불상행적을 갖추지 않고 자연석을 갖다 놓고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그런 것도 묘한 현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조강연을 통해서 조선시대 불교조각을 이해하는데 큰 길잡이가 되어주셨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성춘경 박사님은 미술사는 무엇보다도 양식이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양식에 충실해야만 미술사 전공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세기~16세기에 걸친 양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선전기와 후기 양식을 비교하는데 아주 좋은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조선 전기 불상의 우아한 양식의 흐름을 누가 신고전주의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미술사에서 신고전주의라는 것은 서양 미술사에서 갖다 붙인 것으로 그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무슨 주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붙일 게 아니고 좀 더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한국 미술사학계 뿐만 아니라 다른 학회와도 공동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그냥 무슨 주의다 무슨 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춘경 선생님께서 삼국사기 이야기 하면서 왜 ‘나라국’자를 붙이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내에 ‘나라국’자를 붙이는 절이 많습니다. 서울시내에는 봉국사, 보국사, 경국사 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주변에만 있는데 조선시대 불교가 갖는 특징의 하나로 당시 배불정책 하에서 불교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인선 교수께서도 많은 자료를 인용하면서 좋은 공부가 되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조선후기 불상조각의 시기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진홍섭 선생님께서는 특별한 이유를 달지 않고 6단계로 구분하셨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인선 교수님께서는 불상의 제작시기와 전체 복장물을 통해서 얻어진 작가와의 상관관계, 연관관계를 지으면서 조선후기의 불상의 양식이라던가 그것이 갖는 의미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에는 무척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교수께서는 복장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복장이 조선후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 불교가 점차 불교가 지닌 힘은 약해져갔는데 불교가 지닌 힘이 약해질 때에는 불교에 대해서 힘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을 불어주기 위해서 필

요했던 것이 밀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라마 불교하고 관계가 있는데 복장물이라고 하는 것은 밀교같은 것입니다. 불상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준다는 것은 생명과 관계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장물을 인용할 때에는 주로 연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절대연대를 찾으려고 합니다. 저도 문수보살상 시대구분 관계를 가지고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복장을 가지고 절대연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조선후기 불상이라는 것은 조상기와 관련이 있고 복장물과 연관이 있지만 복장물에서 나온 자료를 좀 더 깊게 연구해서 종합해서 활용하는 지혜를 생각해야지 단순히 내놓은 작가라든가 연대를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최선일 교수님께서도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색난이라는 하는 조각승 자료를 그렇게 많이 찾을 수 있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로 복장물을 통해서 자료를 구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인선 교수님이나 최선일 교수님 두 분 모두 자료를 집약한 방법이 복장물에서 나온 것을 통해서 불상연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요즘 시대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하지만 단순히 자기가 목표로 한 자료만 얻는데 그치지 말고 신고전주의에 대해 표명하기 위해서는 학계의 종합적인 입장이 필요하듯이 미술사에서 복장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불교학이라든가 기타 다른 학계의 통합적인 노력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장이 단순히 시기와 조각승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 되고 불상의 양식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불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조선시대 불교의 흐름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불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선종과 밀교라고 하는 것이 주를 이루는데 이것도 불상 조각양식 형성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에 느끼는 감성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미술작품이라고 할 때 그것이 가슴에 와닿기 위해서는 아울러 그것을 이해할 능력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현선생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그분의 글을 지금 읽어도 쓸 것이 많습니다. 우현선생께서는 미학을

하셨는데 순수 양식요소만 하는 미술사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한다면 좀 더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세분 발표 너무도 좋았습니다. 많은 자료를 섭외했고 많은 넓은 범위에서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욕심을 낸다면 그렇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성춘경 박사님께서 전라도를 중심으로 했는데 전라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인 분표를 자료로 조사해서 연관성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 회보

(2008. 1. 1 ~ 2008. 11. 7)

2008. 01. 12 ~ 01. 13 박물관 동계 워크샵
장소 : 강원도 횡성 장송모도자관
2008. 01. 15 ~ 03. 14 응암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지표조사
2008. 01. 20 ~ 02. 20 홍은 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문화재지표조사
2008. 02. 28 복기대 학예연구원 퇴임
2008. 03. 01 엄기표 사학과 강의전담교수 학예연구원겸직 발령
2008. 05. 17 ~ 05. 31 수장고 방제 실시(주 한국종합방제)
2008. 09. 29 ~ 10. 31 성북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문화재지표조사
2008. 09. 29 ~ 10. 31 화성시 향남읍 장침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문화재지표조사
2008. 10. 10 대학원 개원 50주년기념
제23회 정기연구발표회 개최(고고·미술분야)
- 시간 : 14:00~16:00
- 장소 : 박물관 2층 컨벤션홀
- 기조강연
- 조선시대의 불교조각에 관하여
 - 정영호(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장)
- 발표
- 조선 초반기의 불교조각
 - 성춘경(전라남도 문화재위원)
 - 조선 후기의 불상
 - 최인선(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 彫妙工 色難의 활동과 불상 양식
 - － 최선일(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 총평 : 홍윤식(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정기연구발표지 『韓國服飾』 제26호 발간
 - 복원품 · 창작품 도록 발간
 - 『17세기 무관 신경유 墓 출토복식 이야기 展
 - “석주선기념박물관, SADI를 만나다”』
 - 도록 발간 『정사공신 신경유묘 출토복식』
2008. 11. 07 제26회 학술세미나 (민속 · 복식분야)
- 시간 : 13:00~17:00
 - 장소 : 단국대학교 인문관 소극장
 - 발표
 - 신경유 출토복식을 모티브로한 현대 패션 디자인
 - － 임은혁(SADI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靖社功臣 申景裕와 武官家門
 - － 정만조(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신경유의 靖社功臣像과 17세기 武官胸背 圖像
 - － 윤진영(한국학중앙연구원)
 - 신경유墓 출토 직물 연구
 - － 조효숙(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신경유墓 출토 복식 고찰
 - － 박성실(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교수)
2008. 11. 07 ~ 11. 30 제27회 특별전 (민속 · 복식분야)
- “17세기 武官, 신경유墓 출토복식 이야기 展”
- 첫 번째 이야기 “신경유 墓 출토복식” 展
- 시간 : 기간 중 무휴, 10:00~17:00
 - 장소 : 박물관 1층 제3전시실

- 내용 : 신경유 墓 출토복식류 40여 점 전시
두 번째 이야기 “석주선기념박물관, SADI와 만나다” 展
- 시간 및 장소
2008.11.07 ~ 11.15 : 석주선기념박물관 4전시실
2008.11.17 ~ 11.19 : Space Gallery (SADI 전
시장 : 서울 논현동)
- 내용 : 단국대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복원품
20여 점과 SADI(Samsung Art & Design
Institute)의 현대디자인 20점 공동 전시

구입 및 기증받은 도서목록

연번	책 이 름	퍼 낸 곳
11551	첫번째 누비전 침향	경인미술관
11552	MAEIL AUCTION	매일옥션
11553	수집유물공개전 전시도록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1554	하이퐁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1555	경기도 여주군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1556	학예지 제14집 관방유적 축조법 특징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1557	조선여인의 속 입성거리(C.1)	단국대학교 평생교육원
11558	충원지역의 구석기유적	충북대학교 박물관
11559	충주 금릉동 유적	충북대학교 박물관
11560	청원 작은용굴 유적	충북대학교 박물관 / 청원군
11561	연보 13	충북대학교 박물관
11562	연보 14	충북대학교 박물관
11563	연보 15	충북대학교 박물관
11564	일본고고학편	충북대학교 박물관
11565	청주 신봉동 백제고분군	충북대학교 박물관 / 청주시
11566	청주 율량동 구석기유적	충북대학교 박물관
11567	제천 계산리 구석기유적	충북대학교 박물관
11568	수양개와 그 이웃들	단양군·(재)한국선사문화연구원 / 충북대학교 박물관 / (재)단양향토문화연구회
11569	청주 내덕동 안터별 유적	충북대학교 박물관
11570	청주 가정 4지구 유적(Ⅰ)	충북대학교 박물관 / 대한주택공사
11571	청주 가정 4지구 유적(Ⅱ)	충북대학교 박물관 /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
11572	충북대학교 박물관 30년사	충북대학교 박물관
11573	문화재보존연구 4	서울역사박물관
11574	세존이 도를 이룬 그림 석가입상도	동국대학교 박물관
11575	한강고고	(재)한국문화재연구원

연번	책 이 름	퍼 낸 곳
11576	늑천 송명흠 선생가 기증유물(IV)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11577	역사의 숨결과 만나다 우리의 세계유산	국립전주박물관
11578	연해주 체르냐피노 5 발해고분군(III)	대한민국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학교 / 러시아 아연방 극동국립기술대학교 /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소 역사고고학 민족학 연구소
11579	과기고고연구 제13호	아주대학교 박물관
11580	소암 현증화 선생의 삶과 예술	국립제주박물관
11581	가라문화	경남대학교 박물관 가라문화연구소
11582	경산의 층과 효	경산시립박물관
11583	창녕 영축산성	경남대학교 박물관 / 창녕군
11584	상주 영풍산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585	김천교동유적유적Ⅱ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나 유적조사보고 제16집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11586	김천교동유적유적Ⅱ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이나 유적조사보고 제17집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11587	아외고고학 제3호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11588	한국의 일상문 연구 - 동이계 한민족의 문화 계통을 중심으로 - (C.1)	사학과 / 고고 미술사 전공 / 단국대학교 대학원
11589	경기도 능원총람 上	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사
11590	경기도 능원총람 下	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사
11591	경기향토사학 제12집	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사
11592	경기도 여성 문인 I	한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사
11593	민족문화논총 제37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1594	미술사연구 제21호	미술사연구회
11595	전통 의생활 연구 제1집 (C.1)	단국대학교 전통복식 연구소
11596	군산 야미도 (C.1) (C.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군산시
11597	보령 원산도 (C.1) (C.2)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1598	선암사	순천시
11599	문화아시아 (C.1)	문화관광부
11600	다시 보는 한국해양사	해군사관학교
11601	한국사연구 휘보 제138호	국사편찬위원회
11602	박물관 보존과학 제8집	국립중앙박물관

연번	책 이 름	퍼 낸 곳
11603	한국 상고사학보 제58호	한국상고사학회
11604	아름다운 산수화전	가회박물관
11605	中国における『近代知』の生成	学習院大学東洋文化研究叢書
11606	문화의 빚깅들	문화관광부 / 국립민속박물관
11607	미술사학연구	(사)한국미술사학회
11608	경주 검단리 유적	(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609	경산 신한리 취락유적	(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610	영천 은해사 거조암	(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611	칠곡 용산리 유적	(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612	고문화 (C.1) ~ (C.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한국박물관협회
11613	미술자료	국립중앙박물관
11614	한국도자연구보고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11615	음파 / 전파표지	국립등대박물관
11616	강화 고려왕릉	국립문화재연구소
11617	남방애와 가구	제주대학교 박물관
11618	석상과 석물	제주대학교 박물관
11619	직지에서 디지털까지 (C.1~C.8)	청주인쇄출판박람회조직위원회
11620	문화재 제사십호	국립문화재연구소
11621	40년 발굴 여정 미리보는 신 발굴	국립문화재연구소
11622	연해주의 문화유적 1	대한민국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부 / 역사학고고학민속학연구소
11623	한국 고고학 저널	국립문화재연구소
11624	한국 매장 문화재 조사연구방법론 3	국립문화재연구소
11625	패총출토 동물유존체 분석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11626	대연평도 까치산 패총	국립문화재연구소
11627	한일 문화재 논집 1	국립문화재연구소
11628	문화유적분포지도 - 홍천군- (C.1)	홍천군 / 강원문화재연구소
11629	문화유적분포지도 - 고성군- (C.1)	문화재청 / 강원도 · 고성군 / 강원문화재연구소
11630	문화유적분포지도 - 평창군- (C.1)	문화재청 / 강원도 · 평창군 / 강원문화재연구소
11631	문화유적분포지도 - 삼척시- (C.1)	문화재청 / 강원도 · 삼척시 / 강원문화재연구소
11632	문화유적분포지도 - 속초시- (C.1)	문화재청 / 강원도 · 속초시 / 강원문화재연구소

연번	책 이 름	퍼 낸 곳
11633	문화유적분포지도 - 영월군- (C.1)	문화재청 / 강원도 · 영월군 / 강원문화재연구소
11634	한성인문학 제6집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11635	경주 사학 제26집	경주사학회
11636	도시역사문화 제6호	서울역사박물관
11637	경북대학교박물관 연보 제5호	경북대학교박물관
11638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지 제3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11639	세계문화유적 화순 지석묘 (C.1)	(재)동북아지석묘 연구소 · 화순군
11640	평생교육 운영의 실제	제주교육박물관
11641	박물관지 제16호(C.1)	충청대학 박물관
11642	증평 구암(구계)서원지 지표조사 보고서	증평군 / 충청대학 박물관
11643	고궁문화 창간호	국립고궁박물관
11644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3 우리나라의 문화	고려대학교 박물관
11645	서울의 사찰불화 1	서울 역사 박물관
11646	포항 삼정2리 · 석병리 유적	(재)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11647	포항 강사리유적	(재)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11648	MUSEUM GALLERY IN GYEONGGI PROVINCE(C.1)	경기도 · (사)경기도박물관협의회
11649	정신문화연구 109호(C.1)	한국학중앙연구원
11650	박물관지 제14호(C.1)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
11651	서울-순천 고속도로 4공구 노문3교구간 시 · 발굴조사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주)서울-순천 고속도로
11652	평택지제, 세교 도시개발사업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
11653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이후 변동사항 확인조사 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임진강건설단 /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연세대학교박물관 / 한양대학교 문화재 연구소
11654	하남 망월동 유적	(재)고려문화재연구소 / (주)서울-순천 고속도로
11655	서울 통의동 67-1번지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재)고려문화재연구소
11656	군도 7호선 도로 확 · 포장공사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재)고려문화재연구소/파주시청
11657	부평역사박물관 전시유물 도록	부평역사박물관
11658	서울역사 박물관 개관지	서울역사박물관

연번	책 이 름	퍼 낸 곳
11659	흘곶패총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 안산시
11660	북한의 「단군릉」 발굴관련자료	북한문제조사연구소
11661	89추수정기고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11662	동대문 구향토사 개관	동대문문화원
11663	경주 작성 지표조사보고서	경주시/대구대학교 박물관
11664	기장 교리유적	북천박물관
11665	전환기의 선사토기(C.1)	국립김해박물관
11666	유물분류표준화	국립중앙박물관
11667	문화유적분포지도 - 군위군 - (C.1~C.2)	군위군/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11668	노원구의 문화유산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11669	백제와 금강	서경문화사
11670	국사교과서파동	해안
11671	서천 송내리 유적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1672	서천 화산리 고분군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
11673	부여 정관리 갯점골 유적	(재)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1674	풍납과 이성	한양대학교 박물관
11675	서울소재 성곽조사 보고서	서울특별시
11676	신라고분 기호학술조사연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경주시
11677	김해화정유적 I (본문 I)	복선박물관
11678	김해화정유적 I (본문 II)	복선박물관
11679	김해화정유적 I (도판)	복선박물관
11680	아름다운 우리문화재 ①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11681	러시아 극동대학교 박물관 도록	러시아극동대학교
11682	달성 죽곡리고분 발굴조사보고서	대구대학교 박물관
11683	2005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경상북도 구미시 / 경상북도 구미문화원
11684	김해대청유적	부산대학교 박물관 / 한국토지공사
11685	안성 매산리 고려 고분군	경기도박물관 / 안성시
11686	구미 인의·진평 토지구회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11687	파주 육계토성	경기도박물관 / 파주시

연번	책 이 름	퍼 낸 곳
11688	여주지역의 도자유적	경기도박물관 / 여주군
11689	고문화 제61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1690	2005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경상북도 예천군 /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11691	장성 제병협동훈련장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 / 을지사업단
11692	제천 장락사지 시굴조사 보고서	충청대학 박물관 / 제천시
11693	고려 왕실사찰 봉업사	경기도박물관 / 안성시
11694	용인시의 역사화 문화유적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용인시
11695	범승지서 제민요술	한국농업사학회 / 농촌진흥청
11696	문화재관계법령집	문화재청
11697	경기도립박물관 전시설계	(주)시공테크
11698	경기도립박물관신축(준공도면)	(주)성일건설
11699	고서해제	인천광역시시립도서관
11700	기장 임초리 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 한국철도시설공단
11701	동래 고읍성지	경남문화재연구원 / (주)대경 종합건설
11702	경문논총 창간호	경남문화재연구원
11703	함안 오곡리 유적	(주)계림산업개발 / 경남문화재연구원
11704	고려대학교박물관 명품도록	고려대학교박물관
11705	한민족역사문화도감 식생활	국립민속박물관
11706	조선쌍수검법	국립민속박물관
11707	문화유적 분포지도 - 영동군 -	(재)중원문화재연구원
11708	갑안자와 한글활자(C.I)	청주 고인쇄 박물관
11709	조선시대 인쇄출판 정책과 역사발전(C.I)	청주 고인쇄 박물관
11710	경기 묘제 석조 미술 下 조선후기도판	경기도박물관
11711	경기 묘제 석조 미술 下 조선후기해설	경기도박물관
11712	보존과 복원의 세계 - 토기 · 자기	국립중앙박물관
11713	ANTIQUÉ MAPS & KOREA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11714	탐험이 가져온 선물 지도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11715	고인쇄문화 제14집	청주 고인쇄 박물관
11716	불교미술 19	동국대학교 박물관
11717	인문과학논총 제45집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번	책 이 름	퍼 낸 곳
11718	영남고고학 44	영남 고고학회
11719	동·서 가야문화벨트의 역사적 의미와 그 활용방안 모색	고령군 / 경북대 영남문화 연구원
11720	창녕조씨 대중공파 세보	창녕조씨대중공파종중
11721	기획특별전 전시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11722	미술연구 제393호	동경문화재연구소
11723	포항 삼정1리유적(전2권)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724	한국사연구 회보 제139호	국사편찬위원회
11725	서울대학교박물관 연보 19	서울대학교박물관
11726	한국 상고사학보 제59호	한국상고사학회
11727	제주시 삼양2동 2132-1번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제주박물관
11728	청주세무서 직원사택 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제주박물관 / 제주세무서
11729	동래 수안동 다세대주택건설지 발굴조사 보고서	북천박물관
11730	연천 동이리 유적	경기도박물관
11731	마산시립박물관	마산시립박물관
11732	연보 제17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1733	천년궁성 신라월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1734	천룡사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경주시
11735	계룡산 도자기	국립중앙박물관
11736	책과 그림	청계천 문화관
11737	서산 주산봉수	(재)충청문화재연구소
11738	천안 성정동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소
11739	아산 상성리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소
11740	궁남지 III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1741	왕궁의 공방Ⅱ - 유리전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1742	왕흥사지 Ⅱ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1743	고고직물 I 제주고씨 선산분묘 출토복식 연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1744	백제왕흥사	국립부여박물관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1745	수자기 - 136년 만의 귀환	국립고궁박물관

연번	책 이 름	퍼 낸 곳
11746	북한산 삼천사지 탐비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11747	여주 금강반야경 소론찬요조현록	청주대학교박물관
11748	청주대학교 박물관보 제20호	청주대학교박물관
11749	노근리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보고서(c.3)	영동군 / 충북대학교 박물관
11750	연보 16(c.3)	충북대학교박물관
11751	Handicraft Technique of Miao(05 tume)	서울여자대학교 출판부
11752	미술사학연구 257 (C.1)	(사)한국미술사학회
11753	한국상고사학보	한국상고사학회
11754	박물관지 제8권(C.1)	한양대학교 박물관
11755	기장 두모포진성 · 죽성리 왜성	북천박물관
11756	동양학 제43집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11757	달성 본리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재)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758	문화 유적 분포지도 - 이천시 - (C.1)	이천시 한양대학교 박물관
11759	조선시대 초상화 I	국립중앙박물관
11760	명청대 인물화	통도사 정보 박물관
11761	글씨의 아름다움	순천대학교박물관
11762	한국민족문화 31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11763	베트남 삶과 문화	국립중앙박물관
11764	한국미술	(주)월간미술
11765	I AUCTION	(주)한국미술품경매
11766	고령지역의 선사 고대사회와 암각화	고령군대가야박물관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한국암각화학회
11767	민족 문화 논총 제38집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1768	국보 · 보물전 (DVD)	가천박물관 / 가천문화재단
11769	차살림 연지 특별전	김포다도박물관
11770	만재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1771	길천 홍문관 출판도서목록	길천 홍문관
11772	늑천 송명흡 선생가 기증유물(V)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11773	탐라문화 제32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1774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1775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 조사 보고서 I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연번	책 이 름	퍼 낸 곳
11776	기산 김준근 조선풍속도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11777	International Area Review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1778	간찰이	국립중앙박물관
11779	고소설 해제	국립중앙박물관
11780	교서 관인 서체자	국립중앙박물관
11781	기전 고고 제6호	기전문화재연구원
11782	한성백제 사료 연구	경기도 / 경기도문화재단기단문화재연구원
11783	한성백제 고고자료집 上	경기도 / 경기도문화재단기단문화재연구원
11784	한성백제 고고자료집 下	경기도 / 경기도문화재단기단문화재연구원
11785	정신문화연구 (C.1)	한국학중앙연구원
11786	전주대학교 박물관 도록	전주대학교박물관
11787	호남기독교 선교초기의 발자취	전주대학교박물관
11788	동아시아 도성과 신라왕경의 비교연구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 경주문화원 /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1789	영남 고고학 45	경남고고학계
11790	경주 구황동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부지 내 유적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경주시
11791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품도록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11792	문화유적 분포지도	단양군 / 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원
11793	정의운 선생가 기증 고서·고문서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 / 강원대학교 문화연구소
11794	불국사 석가탑 목서지편의 기초적 검토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11795	불국사 석가탑 목서지편의 기초적 검토 -판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	재단법인 불교문화재연구소
11796	한국외당 수집 100년 명품 100선	유금외당박물관
11797	대전상서동유적(C.1)	충남대학교박물관 / 대전광역시
11798	궁동(C.1)	충남대학교박물관
11799	2007 백제문화를 찾아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1800	경산의 역사와 문화	경상시립박물관
11801	한국미술 전시와 연구	국립중앙박물관
11802	천안 청수동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한국토지공사
11803	천안 삼봉리·군서리·판정리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연번	책 이 름	퍼 낸 곳
11804	아산 실옥동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11805	서천 옥북리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11806	홍성 송월리·학계리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11807	아산 시전리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11808	아산 밤줄길 유적	(재)충청문화재연구원
11809	문화유적 분포 지도 (C.1)	함양군 / 경남대학교박물관
11810	한국 상고사학보 제60호	한국상고사학회
11811	양평 삼성리 유적	(재단법인)증원문화재연구소
11812	충주 신흥리 유적	(재단법인)증원문화재연구소
11813	청주 송절동 유적	(재단법인)증원문화재연구소
11814	증평 미암리 유적 I	(재단법인)증원문화재연구소
11815	증원 문화재 연구 2	(재단법인)증원문화재연구소
11816	초상, 영원을 그리다	경기도박물관
11817	문화유적 분포지도 - 장수군 -	군산대학교박물관 / 장수군
11818	국제학 논총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11819	한국의 벽사부적	대원사
11820	미술사학 연구	(사단법인)한국미술사학회
11821	성남 하산운동유적	기호문화재연구원 /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
11822	포항 호동유적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823	포항 호동유적Ⅲ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824	포항 호동유적Ⅳ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825	포항 호동유적Ⅴ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826	포항 호동유적Ⅵ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827	포항 호동유적Ⅶ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828	포항 호동유적Ⅷ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829	인천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하대학교박물관
11830	인천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인하대학교박물관
11831	월미 관광특구 모노레일 설치공사	인하대학교박물관
11832	강화 교동 읍성	인하대학교박물관
11833	교동 2-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인하대학교박물관
11834	학운 2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	인하대학교박물관

연번	책 이 름	퍼 낸 곳
11835	용인 남사(아곡) 도시개발사업	인하대학교박물관
11836	송도 국제도시 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매립용 준설토채취장	인하대학교박물관
11837	인천항 팔미도 북서항로 준설공사	인하대학교박물관
11838	제물포 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	인하대학교박물관
11839	대곡동 지석묘	인하대학교박물관
11840	인천대교 연결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인하대학교박물관
11841	박물관지 7	인하대학교박물관
11842	박물관지 8	인하대학교박물관
11843	박물관지 9	인하대학교박물관
11844	박물관지 10	인하대학교박물관
11845	연보 - 2004~2007 -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1846	홍천 물결리 사지 - 학술조사보고서 -	국립춘천박물관
11847	2003~2007 강원발굴조사 성과	국립춘천박물관
11848	도서문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 연구소
11849	고고광장 - 창간호 -	부산 고고학 연구회
11850	대구 두산동 621번지 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851	김천 문당동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852	성주 장학리 장골유적Ⅵ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853	고문화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1854	서천 옥남리 유적 - 사진 -	(재)충청문화재연구원
11855	서천 옥남리 유적 - 본문 -	(재)충청문화재연구원
11856	그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	국립민속박물관
11857	사진 엽서에서 만난 관광 명소	부산박물관
11858	조선여인의 은장도, 그 순결함	엠티 민속 박물관
11859	울산 다운동 436-5 유적	(재)울산문화재연구원
11860	울산 굴화리 생기들 유적	(재)울산문화재연구원
11861	울산 교동리 73-2 유적	(재)울산문화재연구원
11862	울산 위양리 유적	(재)울산문화재연구원
11863	울산 달천 유적 1차 발굴조사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연번	책 이 름	퍼 낸 곳
11864	경주 구황동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발굴조사 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11865	소박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	동강사진박물관
11866	어장의 사진첩	동강사진박물관
11867	한국사 연구 회보	국사편찬위원회
11868	울산 서사리 278 유적	(재)울산문화재연구원
11869	한국의 벽사부적	대원사
11870	강화산성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1871	개항장 화교의 신앙과 민속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1872	강화의 마장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1873	강화정밀지표조사 - 화도면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1874	교동향교 소장자료 조사보고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1875	강화 창후리 유스호스텔 부지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1876	연보 제18집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1877	인천문화연구 제4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1878	인천문화연구 제5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1879	낙동강	국립김해박물관
11880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연구보고 제139집	국립역사민속박물관
11881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연구보고 제142집	국립역사민속박물관
11882	상주 - 옛 상주를 답다	상주박물관
11883	울산의 유적과 유물 - 발굴로 드러난 울산의 역사	울산광역시
11884	기장 체육관 부지 동부리 유적	부산박물관
11885	소치 허련 200년	국립광주박물관
11886	중국 고대 회화의 탄생	국립중앙박물관
11887	고령의 암각유적	대가야 박물관
11888	러시아박물관	민속원
11889	이창용 교수 기증 유물 도록	강릉시 오죽헌, 시립박물관
11890	경주 화천리 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891	고령 대흥리 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892	계왕개래	영남대학교박물관

연번	책 이 름	퍼 낸 곳
11893	와전	영남대학교박물관
11894	미술연구	동경문화재연구소
11895	한국상고사학보	한국상고사학회
11896	여주의 문인 묵사 류주현	여주군향토사료관
11897	단양 현곡리 고려 고분군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 한국도로공사
11898	경복궁	국립문화재연구소
11899	민족문화논총 제39	영남대학교 / 민족문화재연구소
11900	흙 · 짚 · 건축	짚풀생활사박물관 / 한국흙건축연구회
11901	영남고고학 46	영남고고학회
11902	낙산사	국립문화재연구소
11903	성주 장학리 별티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904	대구 월성동 1361번지 유적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905	영양 향교 육영루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906	문산 선유리 유적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경기도시공사
11907	남양주 금남리 유적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주)서울-춘천고속도로
11908	인천 검단 신도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11909	서울 관철동 유적	(재)고려문화재연구원
11910	용인 상갈동 유적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경기문화재단
11911	평택 안화리 유적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11912	강화 부근리 유적	(재)고려문화재연구원 / 강화군
11913	서울 통의동 유적	(재)고려문화재연구원
11914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11915	제2회 대한민국 고미술 축제	(사)한국고미술협회 충북지회
11916	꾸밈과 갖춤의 예술, 장황	국립고궁박물관
11917	신라 금석문 탁본전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11918	문화유적 분포지도 - 양구군 -	양구군 / 한림대학교박물관
11919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연구보고 上	국립역사민속박물관
11920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연구보고 下	국립역사민속박물관
11921	고성읍성지	동아대학교 박물관
11922	강서죽도성지	부산광역시 / 동아대학교 박물관

연번	책 이 름	퍼 낸 곳
11923	구포 덕천동 유적	동아대학교 박물관
11924	사천 늑도 C I	동아대학교 박물관
11925	사천 늑도 C II	동아대학교 박물관
11926	대구 신서동 유적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
11927	상주 복룡동 130번지 유적 / 상주 현신동 765-2번지 유적	(재)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11928	전통 의생활 연구	단국대학교 전통복식 연구소
11929	국역 국조상례보편	민속원
11930	성주 가암리 유적	(재)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11931	성주 상언리 유적	(재)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11932	사천 용현 유적	동아대학교 박물관
11933	문화유적분포지도 - 정읍시 -	원광대학교 박물관 / 정읍시
11934	성주 장학리 별티유적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
11935	대구 상동 162-11번지 유적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
11936	경산 당곡리 447번지 유적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
11937	봉화 청암정 유적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
11938	치열한 구도의 흔적 상주의 불화	상주박물관
11939	전라북도 연해지역의 간척과 경관변화	전라북도 / 국립민속박물관
11940	호남평야 벼농사 이야기	전라북도 / 국립민속박물관
11941	콩에서 발견한 전북의 음식문화	전라북도 / 국립민속박물관
11942	전북의 음악, 그 신명과 멋	전라북도 / 국립민속박물관
11943	모정의 세월	전라북도 / 국립민속박물관
11944	오목이네 살림살이	전라북도 / 국립민속박물관
11945	강공진, 김영남 부부의 살림살이	전라북도 / 국립민속박물관
11946	젓들, 산 위에 들을 일구다	전라북도 / 국립민속박물관
11947	바다를 메운 땅, 그들이 그곳에 사는 이유	전라북도 / 국립민속박물관
11948	곡성 오지리 유적	곡성군 / 마한문화연구원
11949	신안조선타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개발사업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주)유신코퍼레이션 / 마한문화연구원
11950	영광 덕흥리 백자 요지	마한문화연구원
11951	순천 가곡동 지석묘	마한문화연구원
11952	달성 죽곡리 고분군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

연번	책 이 름	퍼 낸 곳
11953	기산풍속도 그림으로 남은 100년 전의 기억	청계천 문화관
11954	고령 송곡리 유적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
11955	가을, 유물 속 가을 이야기	국립중앙박물관
11956	문화재연감 2008	문화재청
11957	전라도 수공기술의 아름다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1958	문화예술의 고장Ⅲ 우리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1959	오대산 명주지역 문화유산 탁본전	월정사 성보 박물관 / 관동대박물관
11960	용인 마북동 425-19번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기호문화재연구원
11961	백제문화 해외조사보고서Ⅵ - 중국남경지역-	국립공주박물관
11962	탐라문화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1963	제9회 한국문화재기능인 작품전	한국문화재 기능인 협회
11964	포항 대각리 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11965	경주 화곡리 신라분묘군	성림문화재연구원
11966	영천 해선리 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11967	포항 영일 장기읍성 동문지 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11968	경산 안촌리Ⅱ 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11969	경주 화곡리 제단 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11970	청도 대전리 고려·조선 묘군 I	성림문화재연구원
11971	청도 대전리 고려·조선 묘군Ⅱ	성림문화재연구원
11972	포항 오도리 조선묘군	성림문화재연구원
11973	경주 성건동 172-2번지 신라시대 유적	성림문화재연구원
11974	영천 덕암리 신라묘군	성림문화재연구원
11975	경산 신대·부적 조선묘군	성림문화재연구원
11976	옛 사진으로 본 근대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11977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연구보고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일본)
11978	마사박물관지	마사박물관
11979	철농 이기우, 인연을 새기다	해곡 최순우 기념관
11980	간송문화	한국민속미술연구소
11981	경기도의 도자유적	경기도자박물관
11982	한반도 근·현대도자의 향방	경기도자박물관

알 림

〈박물관 기요〉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투고요령을 알려 드립니다.

1. 투고원고는 역사학 일반, 고고학, 미술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른 학술지나 논문집에 실린 바 없는 고유한 연구물이어야 합니다.
2. 투고원고의 매수 제한은 없으며, 편집의 편의를 위하여 되도록 디스켓을 동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투고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박물관 정기 연구 발표회’를 통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량이 많을 경우 편집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4. 그 밖에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 8005-2389~2390

FAX : (031) 8005-2391

〈박물관기요〉 23

2008년 11월 25일 인쇄

2008년 11월 30일 발행

발행 단국대학교 출판부

등록 1968年 2月 27日 NO. 3-95

편집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경기도 수지구 용인시 죽전동 126번지

(031) 8005-2389~2390, FAX : (031) 8005-2391

편집 新 陽 社 (02) 2275-0834, 4585

